

연구보고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V

2010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자료집 - 발달권·참여권 -

책임연구원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노자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김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목 차

I. 조사개요	1
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3
2.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4
1) 조사모집단	4
2) 모집단 층화	4
3) 표본크기	9
4) 표본의 배분	9
5) 표집추출방법	10
6) 모수추정	13
II. 아동·청소년 발달권 · 참여권 문항구성체계	17
1. 발달권 설문문항 구성체계	19
2. 참여권 설문문항 구성체계	22
III. 아동·청소년 발달권 · 참여권 실태조사결과	27
1.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29
1) 조사결과 분석방법	29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9
2. 아동·청소년 발달권 실태	32
1) 인지적 발달	32
2) 정서적 발달	44
3) 사회적 발달	75
4) 직업적 발달	85

5) 신체적 발달	90
3. 아동·청소년 참여권 실태	97
1)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보호	97
2) 표현의 자유	114
3) 집회·결사의 자유	135
4)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144
5) 사회참여 및 참정권	154
6) 참여관련 인식	176
IV.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실태조사결과 요약	197
1. 아동·청소년 발달권 조사결과요약	199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조사결과요약	206
부 록. 201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213

표 목차

<표 I-2-1>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를 위한 통계틀	5
<표 I-2-2>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비율에 의한 표본배분	6
<표 I-2-3>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수	7
<표 I-2-4>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수	8
<표 I-3-1> 표본크기	9
<표 II-1-1> 발달권 설문문항체계의 구성	20
<표 II-2-1> 참여권 설문문항구성체계의 구성	23
<표 III-1-1> 조사대상자의 성별·학교급별 특성	31
<표 III-1-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특성	32
<표 III-2-1> 학업중도포기 이유(중·고등학생)	33
<표 III-2-2>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1순위)(초등학생)	34
<표 III-2-3>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1순위)(중·고등학생)	35
<표 III-2-4> 사교육 경험 유무(초등학생)	35
<표 III-2-5> 사교육 경험 유무(중·고등학생)	36
<표 III-2-6> 사교육 효과성(초등학생)	37
<표 III-2-7> 사교육 효과성(중·고등학생)	38
<표 III-2-8>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초등학생)	39
<표 III-2-9>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중·고등학생)	40
<표 III-2-10> 학교수업진행 수준(초등학생)	41
<표 III-2-11> 학교수업진행 수준(중·고등학생)	41
<표 III-2-12>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중·고등학생)	42
<표 III-2-13> 학교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초등학생)	43
<표 III-2-14> 학교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중·고등학생)	44
<표 III-2-15> 부모님과과의 대화빈도(아버지)(초등학생)	45
<표 III-2-16> 부모님과과의 대화빈도(아버지)(중·고등학생)	46

<표 III-2-17>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어머니)(초등학생)	46
<표 III-2-18>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어머니)(중·고등학생)	47
<표 III-2-19> 학교선생님과의 대화빈도(초등학생)	48
<표 III-2-20> 학교선생님과의 대화빈도(중·고등학생)	48
<표 III-2-21>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평균(하루기준)(초등학생)	49
<표 III-2-22>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평균(하루 기준)(중·고등학생)	50
<표 III-2-23>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지각(초등학생)	51
<표 III-2-24>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지각(중·고등학생)	51
<표 III-2-25> 휴일을 보내는 방법(1순위)(초등학생)	53
<표 III-2-26> 휴일을 보내는 방법(1순위)(중·고등학생)	54
<표 III-2-27>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초등학생)	55
<표 III-2-28>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중·고등학생)	55
<표 III-2-29>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가정)(초등학생)	56
<표 III-2-30>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가정)(중·고등학생)	56
<표 III-2-31>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친구)(초등학생)	57
<표 III-2-32>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친구)(중·고등학생)	58
<표 III-2-33>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학교)(초등학생)	59
<표 III-2-34>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학교)(중·고등학생)	59
<표 III-2-35> 고민 상담 대상(초등학생)	60
<표 III-2-36> 고민 상담 대상(중·고등학생)	61
<표 III-2-37> 고민거리 유형별 우선순위(1순위)(초등학생)	62
<표 III-2-38> 고민거리 유형별 우선순위(1순위)(중·고등학생)	62
<표 III-2-39> 부모자녀관계(초등학생)	63
<표 III-2-40> 부모자녀관계(중·고등학생)	64
<표 III-2-41> 우울감(초등학생)	64
<표 III-2-42> 우울감(중·고등학생)	65

<표 III-2-43> 학업스트레스(초등학생)	65
<표 III-2-44> 학업스트레스(중·고등학생)	66
<표 III-2-45> 전반적인 행복감(초등학생)	67
<표 III-2-46> 전반적인 행복감(중·고등학생)	67
<표 III-2-47> 자아존중감(초등학생)	68
<표 III-2-48> 자아존중감(중·고등학생)	69
<표 III-2-49> 자기효능감(초등학생)	70
<표 III-2-50> 자기효능감(중·고등학생)	70
<표 III-2-51> 정서적 고립감(초등학생)	71
<표 III-2-52> 정서적 고립감(중·고등학생)	72
<표 III-2-53> 정서적 조절감(초등학생)	72
<표 III-2-54> 정서적 조절감(중·고등학생)	73
<표 III-2-55> 낙관성 수준(초등학생)	74
<표 III-2-56> 낙관성 수준(중·고등학생)	74
<표 III-2-57>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초등학생)	75
<표 III-2-58>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중·고등학생) ..	76
<표 III-2-59>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중·고등학생)	77
<표 III-2-60> 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중·고등학생)	77
<표 III-2-61>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다중응답)(초등학생)	78
<표 III-2-62>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다중응답)(중·고등학생)	79
<표 III-2-63> 갈등해결전략(협력전략)(초등학생)	79
<표 III-2-64> 갈등해결전략(협력전략)(중·고등학생)	80
<표 III-2-65> 갈등해결전략(양보전략)(초등학생)	81
<표 III-2-66> 갈등해결전략(양보전략)(중·고등학생)	82
<표 III-2-67> 갈등해결전략(회피전략)(초등학생)	82
<표 III-2-68> 갈등해결전략(회피전략)(중·고등학생)	83
<표 III-2-69> 갈등해결전략(지배전략)(초등학생)	84
<표 III-2-70> 갈등해결전략(지배전략)(중·고등학생)	85

<표 III-2-71> 진로준비행동	86
<표 III-2-72> 진로교육경험유무	86
<표 III-2-73> 진로교육만족정도	87
<표 III-2-74> 진로직업태도	87
<표 III-2-75> 중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88
<표 III-2-76>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89
<표 III-2-77> 정기적인 운동실천 여부(초등학생)	90
<표 III-2-78> 정기적인 운동실천 여부(중·고등학생)	91
<표 III-2-79> 평일 평균수면시간(초등학생)	92
<표 III-2-80> 평일 평균수면시간(중·고등학생)	92
<표 III-2-81>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초등학생)	93
<표 III-2-82>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중·고등학생)	94
<표 III-2-83>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초등학생)	95
<표 III-2-84>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중·고등학생)	96
<표 III-3-1>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 경험(중·고등학생)	97
<표 III-3-2> 가정 중요사 결정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초등학생)	99
<표 III-3-3> 가정 중요사 결정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 (중·고등학생)	99
<표 III-3-4>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초등학생) ..	100
<표 III-3-5>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중·고등학생) ..	101
<표 III-3-6> 진로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초등학생)	102
<표 III-3-7> 진로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중·고등학생)	102
<표 III-3-8> 교육비 미납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초등학생)	104
<표 III-3-9> 교육비 미납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중·고등학생)	105
<표 III-3-10> 징계 대상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초등학생)	106
<표 III-3-11> 징계 대상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중·고등학생)	106
<표 III-3-12> 개인 시험성적 공개하지 않음(초등학생)	107
<표 III-3-13> 개인 시험성적 공개하지 않음(중·고등학생)	108

<표 III-3-14> 학교에서 개인소지품 검사경험(초등학생)	109
<표 III-3-15> 학교에서 개인소지품 검사경험(중·고등학생)	110
<표 III-3-16> 학교에서 개인소지품 검사 대응태도(초등학생)	111
<표 III-3-17> 학교에서 개인소지품 검사 대응태도(중·고등학생)	112
<표 III-3-18>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	
- 등교 후 휴대폰 제출(초등학생)	113
<표 III-3-19>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	
- 등교 후 휴대폰 제출(중·고등학생)	113
<표 III-3-20> 학교에서 두발 등 용모규제 경험(초등학생)	114
<표 III-3-21> 학교에서 두발 등 용모규제 경험(중·고등학생)	115
<표 III-3-22> 학교에서 두발 등 용모규제 대응태도(초등학생)	116
<표 III-3-23> 학교에서 두발 등 용모규제 대응태도(중·고등학생)	117
<표 III-3-24> 학교에서 복장규제 경험(초등학생)	118
<표 III-3-25> 학교에서 복장규제 경험(중·고등학생)	119
<표 III-3-26> 학교에서 복장규제 대응태도(초등학생)	120
<표 III-3-27> 학교에서 복장규제 대응태도(중·고등학생)	121
<표 III-3-28>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의 자율권 보장 정도	
(초등학생)	122
<표 III-3-29>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의 자율권 보장 정도	
(중·고등학생)	123
<표 III-3-30> 징계(벌)대상 학생에게 입장표명 기회부여(초등학생)	124
<표 III-3-31>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여부(중·고등학생)	124
<표 III-3-32> 학교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제시 가능여부(초등학생)	125
<표 III-3-33> 학교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제시 가능여부	
(중·고등학생)	126
<표 III-3-34> 지난 1년간 인터넷에 게시글 작성 경험(초등학생)	127
<표 III-3-35> 지난 1년간 인터넷에 게시글 작성 경험(중·고등학생)	127
<표 III-3-36> 지난 1년간 인터넷에서 댓글 작성 경험(초등학생)	128

<표 III-3-37> 지난 1년간 인터넷에서 댓글 작성 경험(중·고등학생)	129
<표 III-3-38>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초등학생)	130
<표 III-3-39>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중·고등학생)	130
<표 III-3-40>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초등학생)	131
<표 III-3-41>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중·고등학생)	132
<표 III-3-42>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 대중매체의 부정적 역할(초등학생)	133
<표 III-3-43>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 대중매체의 부정적 역할(중·고등학생)	134
<표 III-3-44> 학생회나 학급회 참여도(초등학생)	135
<표 III-3-45> 학생회나 학급회 참여도(중·고등학생)	136
<표 III-3-46> 학교의 교내/교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중·고등학생)	137
<표 III-3-47>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토론(초등학생)	138
<표 III-3-48>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토론(중·고등학생)	139
<표 III-3-49>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모임이나 카페 가입(초등학생)	140
<표 III-3-50>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모임이나 카페 가입(중·고등학생)	140
<표 III-3-51>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초등학생)	141
<표 III-3-52>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중·고등학생)	142
<표 III-3-53>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서명운동(초등학생) ...	143
<표 III-3-54>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서명운동(중·고등학생)	143

<표 III-3-55>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보장정도에 대한 인식 (중·고등학생)	144
<표 III-3-56>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공지책임 이행정도(초등학생)	145
<표 III-3-57>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공지책임 이행정도(중·고등학생) ...	146
<표 III-3-58> 학교나 학급 규칙 인지도(초등학생)	147
<표 III-3-59> 학생생활규정, 자치규정 등 인지도(중·고등학생)	147
<표 III-3-60> 아동용 정책 홍보자료 제공 여부(초등학생)	148
<표 III-3-61> 청소년용 정책 홍보자료 제공 여부(중·고등학생)	149
<표 III-3-62> 아동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자료 제공 여부(초등학생)	150
<표 III-3-63> 청소년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자료 제공 여부 (중·고등학생)	150
<표 III-3-64> 학대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 받을 기관 정보 제공 여부(초등학생)	151
<표 III-3-65>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 여부(중·고등학생)	152
<표 III-3-66>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초등학생)	153
<표 III-3-67>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중·고등학생)	153
<표 III-3-68> 자원봉사 참여 이유(초등학생)	154
<표 III-3-69> 자원봉사 참여 이유(중·고등학생)	155
<표 III-3-70> 아동 정책·시설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경험 (초등학생)	157
<표 III-3-71> 청소년 정책·시설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경험 (중·고등학생)	158
<표 III-3-72> 아동정책에 대해 아동 의견 반영 여부(초등학생)	159
<표 III-3-73> 청소년정책에 대해 청소년 의견 반영 여부(중·고등학생)	159
<표 III-3-74> 지역 아동시설 설치·운영 시 아동 의견 반영여부 (초등학생)	160
<표 III-3-75> 지역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시 청소년 의견 반영여부 (중·고등학생)	161

<표 III-3-76> 학생회 활동에 지도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중·고등학생)	162
<표 III-3-77> 전교 어린이회 임원 자격의 성적 제한 여부(초등학생) ..	163
<표 III-3-78> 학생회 임원 자격의 성적 제한 여부(중·고등학생)	163
<표 III-3-79> 전교 어린이회 활동장소와 시간 보장여부(초등학생)	164
<표 III-3-80> 학생회 활동장소와 시간 보장여부(중·고등학생)	165
<표 III-3-81> 직접선거를 통한 전교 어린이회장 선출여부(초등학생) ..	166
<표 III-3-82> 직접선거를 통한 학생회장 선출여부(중·고등학생)	166
<표 III-3-83> 학교규칙과 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여부 (초등학생)	167
<표 III-3-84> 학교규칙과 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여부 (중·고등학생)	168
<표 III-3-85> 전교어린이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 (초등학생)	169
<표 III-3-86>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중·고등학생) ..	170
<표 III-3-87> 특별활동, 방과 후 교실 학생 선택권(초등학생)	171
<표 III-3-88>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추가학습 선택권 (중·고등학생)	172
<표 III-3-89>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결정에 학생의견 반영여부 (초등학생)	172
<표 III-3-90> 수학여행, 수련회 등 결정에 학생의견 반영여부 (중·고등학생)	173
<표 III-3-91> 급식메뉴와 질에 학생의견 반영여부(초등학생)	174
<표 III-3-92> 급식메뉴와 질에 학생의견 반영여부(중·고등학생)	174
<표 III-3-93> 어른이 되었을 때 선거참여 의향(초등학생)	175
<표 III-3-94>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인식(중·고등학생)	176
<표 III-3-95>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초등학생)	178
<표 III-3-96>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중·고등학생)	178

그림 목차

[그림 III-3-1]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103
[그림 III-3-2]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08
[그림 III-3-3] 학교에서의 두발 등 용모규제 경험(중·고등학생)	115
[그림 III-3-4] 학교에서 두발 등 용모규제 대응태도(중·고등학생)	117
[그림 III-3-5] 학교에서 복장규제 경험(중·고등학생)	119
[그림 III-3-6] 학교에서 복장규제 대응태도(중·고등학생)	121
[그림 III-3-7]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중·고등학생)	134
[그림 III-3-8] 자원봉사 참여 이유(초등학생)	156
[그림 III-3-9] 자원봉사 참여 이유(중·고등학생)	156
[그림 III-3-10] 학교규칙, 규정 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중·고등학생) ..	169
[그림 III-3-11]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	177
[그림 III-3-12]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	179
[그림 III-3-13] 참여의 장애요인	190
[그림 III-3-14] 우리 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	195

I. 조사개요

I.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조사의 목적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그 변화양상을 추적 할 수 있는 반복횡단 자료의 수집을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아동·청소년을 위한 긍정적 인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를 제공하며,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 정책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국제수준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환경 조성과 인권의식에 대한 긍정적 확산과 개선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발달 및 참여권 영역에서 권리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체계적 축적이 요구되며,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설문도구를 개발이 필요하다. 인권실태조사는 현시점에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을 모니터링하며 그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국제기준대비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권수준 향상과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OECD 위상에 걸 맞는 인권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이 중요 국가통계자료 구축 목적과 그 적합성을 인정받아 국가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통계청승인을 2009년 6월24일에 취득할 수 있었다. 본 조사의 통계작성을 위해 승인된 승인번호는 Nr. 40201이다.

2.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1) 조사모집단

이 조사의 조사모집단은 12개 시도의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을 조사대상자로 하였으며, 제주도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조사모집단에서 제외하였다.

2) 모집단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중·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12개 시도별 학생수를 구분한 후에 각 시도의 학생 현황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였다.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를 위한 통계틀,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비율에 의한 표본배분,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수와 부차모집단별 표본학생수는 각각 <표-I-2-1>에서 <표-I-2-4>까지 제시되어 있다.

〈표 1-2-1〉 시도별 조사모집단 총화를 위한 통계들

구분	모집단		모집단수 (제주도 제외)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6학년	초4	586,343	101,993	36,021	30,945	33,149	20,820	19,423	15,173	150,787	17,833	43,095	45,617	71,487
			(100)	17.4	6.1	5.3	5.7	3.6	3.3	2.6	25.7	3.0	7.3	7.8	12.2
		초5	604,803	105,217	37,952	31,544	34,013	21,848	20,375	15,914	154,070	18,530	44,935	47,650	72,755
			(100)	17.4	6.3	5.2	5.6	3.6	3.4	2.6	25.5	3.1	7.4	7.9	12.0
		초6	633,055	111,224	40,170	34,350	36,341	22,993	21,234	16,807	158,941	19,089	46,362	48,998	76,546
			(100)	17.6	6.3	5.4	5.7	3.6	3.4	2.7	25.1	3.0	7.3	7.7	12.1
중학교	중1-3학년	중1	648,244	114,630	43,557	35,692	37,109	23,003	21,998	17,415	160,098	19,395	47,095	50,379	77,873
			(100)	17.7	6.7	5.5	5.7	3.5	3.4	2.7	24.7	3.0	7.3	7.8	12.0
		중2	668,278	119,529	45,339	37,601	38,768	23,937	22,716	18,125	163,239	19,796	47,831	51,730	79,667
			(100)	17.9	6.8	5.6	5.8	3.6	3.4	2.7	24.4	3.0	7.2	7.7	11.9
		중3	665,078	121,679	46,080	37,156	39,321	23,531	22,211	18,085	161,319	19,414	46,959	50,775	78,548
			(100)	18.3	6.9	5.6	5.9	3.5	3.3	2.7	24.3	2.9	7.1	7.6	11.8
고등학교 (방통고, 산업체 부설 학교 등 특수 학교 제외)	일반 고1-3 학년	일반 고1	502,171	102,059	34,775	29,230	30,152	17,882	18,134	14,019	119,392	11,185	33,962	33,917	57,464
			(100)	20.3	6.9	5.8	6.0	3.6	3.6	2.8	23.8	2.2	6.8	6.8	11.4
		일반 고2	495,493	103,144	34,994	29,194	30,179	17,392	18,052	14,040	114,726	10,909	33,008	33,514	56,341
			(100)	20.8	7.1	5.9	6.1	3.5	3.6	2.8	23.2	2.2	6.7	6.8	11.4
		일반 고3	471,953	101,400	33,915	28,120	28,414	16,196	17,015	13,516	107,096	10,382	30,713	31,295	53,891
			(100)	21.5	7.2	6.0	6.0	3.4	3.6	2.9	22.7	2.2	6.5	6.6	11.4
		전문 고1	159,722	20,363	11,991	7,827	8,640	5,384	4,037	3,860	38,738	8,232	13,472	16,673	20,505
			(100)	12.7	7.5	4.9	5.4	3.4	2.5	2.4	24.3	5.2	8.4	10.4	12.8
		전문 고2	158,017	20,377	12,459	7,977	8,530	5,161	3,792	3,600	38,917	8,152	12,667	16,225	20,160
			(100)	12.9	7.9	5.0	5.4	3.3	2.4	2.3	24.6	5.2	8.0	10.3	12.8
		전문 고3	155,000	20,732	12,489	7,897	8,467	5,074	3,901	3,629	38,028	7,823	12,082	15,360	19,518
			(100)	13.4	8.1	5.1	5.5	3.3	2.5	2.3	24.5	5.0	7.8	9.9	12.6
합계	-	-	574,157	1,042,347	389,742	317,533	333,083	203,221	192,888	154,183	1,405,351	170,740	412,181	442,133	684,755

※ 2009년 교육통계연보에서 제시된 현황표에 기초하여 작성했음.

〈표 1-2-2〉 시도별 조사모집단 총화비율에 의한 표본배분

구분	표본수		교급별 표본수 (제주도제외)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6 학년 (2809)	초4	867	151	53	46	49	31	29	22	223	26	64	67	106
			(100)	17.4	6.1	5.3	5.7	3.6	3.3	2.6	25.7	3.0	7.3	7.8	12.2
		초5	894	156	56	47	50	32	30	24	228	27	66	70	108
			(100)	17.4	6.3	5.2	5.6	3.6	3.4	2.6	25.5	3.1	7.4	7.9	12.0
		초6	936	164	59	51	54	34	31	25	235	28	69	72	113
			(100)	17.6	6.3	5.4	5.7	3.6	3.4	2.7	25.1	3.0	7.3	7.7	12.1
중학교	중1-3 학년 (2968)	중1	959	170	64	53	55	34	33	26	237	29	70	74	115
			(100)	17.7	6.7	5.5	5.7	3.5	3.4	2.7	24.7	3.0	7.3	7.8	12.0
		중2	988	177	67	56	57	35	34	27	241	29	71	76	118
			(100)	17.9	6.8	5.6	5.8	3.6	3.4	2.7	24.4	3.0	7.2	7.7	11.9
		중3	983	180	68	55	58	35	33	27	239	29	69	75	116
			(100)	18.3	6.9	5.6	5.9	3.5	3.3	2.7	24.3	2.9	7.1	7.6	11.8
고등학교 (방통고, 산업체 부설 학교 등 특수 학교 제외)	일반고 1-3학 년 (2055) 전문고 1-3학 년 (701)	일반 고1	743	151	51	43	45	26	27	21	177	17	50	50	85
			(100)	20.3	6.9	5.8	6.0	3.6	3.6	2.8	23.8	2.2	6.8	6.8	11.4
		일반 고2	733	153	52	43	45	26	27	21	170	16	49	50	83
			(100)	20.8	7.1	5.9	6.1	3.5	3.6	2.8	23.2	2.2	6.7	6.8	11.4
		일반 고3	698	150	50	42	42	24	25	20	158	15	45	46	80
			(100)	21.5	7.2	6.0	6.0	3.4	3.6	2.9	22.7	2.2	6.5	6.6	11.4
		전문 고1	236	30	18	12	13	8	6	6	57	12	20	25	30
			(100)	12.7	7.5	4.9	5.4	3.4	2.5	2.4	24.3	5.2	8.4	10.4	12.8
		전문 고2	234	30	18	12	13	8	6	5	58	12	19	24	30
			(100)	12.9	7.9	5.0	5.4	3.3	2.4	2.3	24.6	5.2	8.0	10.3	12.8
		전문 고3	229	31	18	12	13	8	6	5	56	12	18	23	29
			(100)	13.4	8.1	5.1	5.5	3.3	2.5	2.3	24.5	5.0	7.8	9.9	12.6
합계	-	-	8,500	1,541	576	470	493	301	285	228	2,078	252	610	654	1,013

〈표 1-2-3〉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수

구분	표본수		교급별 학급수 (제주도 제외)	시도별·학년별 학급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6 학년 (2809)	초4	30	5	2	2	2	1	1	1	7	1	2	2	4
			(100)	16.7	6.7	6.7	6.7	3.3	3.3	3.3	23.3	3.3	6.7	6.7	13.3
		초5	31	5	2	2	2	1	1	1	7	1	2	3	4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12.9
		초6	31	5	2	2	2	1	1	1	7	1	2	3	4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12.9
중학교	중1-3 학년 (2968)	중1	31	5	2	2	2	1	1	1	7	1	2	3	4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12.9
		중2	34	6	2	2	2	2	1	1	7	1	3	3	4
			(100)	17.6	5.9	5.9	5.9	5.9	2.9	2.9	20.6	2.9	8.8	8.8	11.8
		중3	32	6	2	2	2	1	1	1	7	1	2	3	4
			(100)	18.8	6.3	6.3	6.3	3.1	3.1	3.1	21.9	3.1	6.3	9.4	12.5
고등학교 (방통고, 산업체 부설 학교 등 특수 학교 제외)	일반고 1-3학 년 (2055) 전문고 1-3학 년 (701)	일반 고1	28	5	2	2	2	1	1	1	6	1	2	2	3
			(100)	17.9	7.1	7.1	7.1	3.6	3.6	3.6	21.4	3.6	7.1	7.1	10.7
		일반 고2	27	5	2	2	2	1	1	1	5	1	2	2	3
			(100)	18.5	7.4	7.4	7.4	3.7	3.7	3.7	18.5	3.7	7.4	7.4	11.1
		일반 고3	27	5	2	2	2	1	1	1	5	1	2	2	3
			(100)	18.5	7.4	7.4	7.4	3.7	3.7	3.7	18.5	3.7	7.4	7.4	11.1
		전문 고1	13	1	1	1	1	1	1	1	2	1	1	1	1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7.7
		전문 고2	13	1	1	1	1	1	1	1	2	1	1	1	1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7.7
		전문 고3	13	1	1	1	1	1	1	1	2	1	1	1	1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7.7
합계	-	-	310	50	21	21	21	13	12	12	64	12	22	26	36

<표 1-2-4>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수

구분	표본수		교급별 학생수 (제주도 제외)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6 학년 (2809)	초4	1,050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70	140
			(100)	16.7	6.7	6.7	6.7	3.3	3.3	3.3	23.3	3.3	6.7	6.7	13.3
		초5	1,085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40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12.9
		초6	1,085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40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12.9
중학교	중1-3 학년 (2968)	중1	1,085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40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12.9
		중2	1,190	210	70	70	70	70	35	35	245	35	105	105	140
			(100)	17.6	5.9	5.9	5.9	5.9	2.9	2.9	20.6	2.9	8.8	8.8	11.8
		중3	1,120	210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40
			(100)	18.8	6.3	6.3	6.3	3.1	3.1	3.1	21.9	3.1	6.3	9.4	12.5
고등학교 (방통고, 산업체 부설 학교 등 특수 학교 제외)	일반고 1-3학 년 (2055)	일반 고1	980	175	70	70	70	35	35	35	210	35	70	70	105
			(100)	17.9	7.1	7.1	7.1	3.6	3.6	3.6	21.4	3.6	7.1	7.1	10.7
		일반 고2	945	175	70	70	70	35	35	35	175	35	70	70	105
			(100)	18.5	7.4	7.4	7.4	3.7	3.7	3.7	18.5	3.7	7.4	7.4	11.1
		일반 고3	945	175	70	70	70	35	35	35	175	35	70	70	105
			(100)	18.5	7.4	7.4	7.4	3.7	3.7	3.7	18.5	3.7	7.4	7.4	11.1
		전문 고1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7.7
		전문 고2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7.7
		전문 고3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7.7
합계	-	-	10,850	1,750	735	735	735	455	420	420	2,240	420	770	910	1,260

3) 표본크기

본 조사의 표본크기는 전국 12개 시도의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 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현황을 기초로 각 시도의 학생비율 분포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다.

<표 1-3-1> 표본크기

구분	모집단		모집단수 (제주도 제외)	모집단 합계 (제주도 제외)		목표표본수	
초등학교	초4-6 학년	초4	586,343	1,824,201 (31.7%)		2,698	
		초5	604,803				
		초6	633,055				
중학교	중1-3 학년	중1	648,244	1,981,600 (34.5%)		2,930	
		중2	668,278				
		중3	665,078				
고등학교(방통고, 산업체 부설학교 등 특수학교 제외)	일반고 1-3 학년	일반고1	502,171	1,469,617 (25.6%)		2,173	2,872
		일반고2	495,493				
		일반고3	471,953				
	전문고 1-3 학년	전문고1	159,722	472,739 (8.2%)	1,942,356 (33.8%)	699	
		전문고2	158,017				
		전문고3	155,000				
합계	-	-	-	5,748,157 (100.0%)		8,500 (100.0%)	

4) 표본의 배분

- (1)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의 부분 과제이며, 전체 통합조사의 측면에서 목표 표본크기는 8,500(중·고등학교는 5,802임)으로 결정되었음. 이 때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63\%P$ (중·고등학교는 $\pm 1.98\%P$)임 (다음 ‘3) 모수추정’ 참조).

- (2) 각 부차모집단별 비례배분에 의하여 목표 표본수(학생수)를 할당함
(<표 I-2-2> 및 <표 I-3-1> 참조).
- (3)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5명임을 가정하여 목표 학급수를 할당함
(<표 I-2-3> 참조). 학급: 일차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
- (4) 추출된 학급의 전체 학생을 조사한다는 원칙 하에서 각 부차모집단별
예상되는 최종 학생수는 <표 I-2-4>와 같음. 학생: 이차추출단위(SSU;
secondary sampling unit). 따라서 예상되는 최종 표본크기는 10,815(중·
고등학교는 7,630임)이며, 이 때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45\%P$ (중·고등학교는 $\pm 1.72\%P$)임(다음 '3) 모수추정' 참조).

5) 표집추출방법

- (1) 초등학교 표본추출(안)
 - ①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
전라도/강원도/경상도) 지역별 층화
 - ② 층화지역별 학생수 비례 목표표본수 할당
 - ③ 할당표본수에 따른 추출학교수 결정
 - ☞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조사
원칙이므로, 층화지역별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기준으로 추출학교수
결정
 - ④ 층화지역별 할당된 학교추출
 - ☞ 학교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12개 지역별
로 초등학교 리스트 정렬 → 12개 지역별 초등학교 학생수 누적 →
12개 지역별 초등학교 전체 학교 학생수를 정해진 학교수로 나눠 추
출간격 결정 →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
에 해당되는 학교 추출)
 - ☞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
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교 제외

⑤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 학교추출순으로 첫 번째는 4학년 → 두 번째는 5학년 → 세 번째는 6학년 → 네 번째는 다시 4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

⑥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

☞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

(2) 중학교 표본추출(안)

①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지역별 층화

② 층화지역별 학생수 비례 목표표본수 할당

③ 할당표본수에 따른 추출학교수 결정

☞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조사 원칙이므로, 층화지역별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기준으로 추출학교수 결정

④ 층화지역별 할당된 학교추출

☞ 학교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12개 지역별로 중학교 리스트 정렬 → 12개 지역별 중학교 학생수 누적 → 12개 지역별 중학교 전체 학교 학생수를 정해진 학교수로 나눠 추출간격 결정 →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 되는 학교 추출)

☞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교 제외

⑤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학교추출순으로 첫 번째는 1학년 → 두 번째는 2학년 → 세 번째는 3학년 → 네 번째는 다시 1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

- ⑥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
 -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층화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
 - ☞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

(3) 고등학교 표본추출(안)

- ①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지역별 ×2개(일반고·전문고) 계열별 층화(two way : 24개 sector)
- ② 층화sector별 학생수 비례 목표표본수 할당
- ③ 할당표본수에 따른 추출학교수 결정
 - ☞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조사 원칙이므로, 층화sector별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기준으로 추출학교수 결정
- ④ 층화sector별 할당된 학교추출
 - ☞ 학교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층화 sector별로 고등학교 리스트 정렬 → 층화 sector별 고등학교 학생수 누적 → 층화 sector별 고등학교 전체 학교 학생수를 정해진 학교수로 나눠 추출간격 결정 →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 간격에 해당되는 학교 추출)
 - ☞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교 제외
- ⑤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 ☞ 학교추출순으로 첫 번째는 1학년 → 두 번째는 2학년 → 세 번째는 3학년 → 네 번째는 다시 1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
- ⑥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층화sector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

☞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

6) 모수추정

(1)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 학교구분×지역의 구분에 따른 번호.
 - 학교구분 : 4개(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고등학교, 전문고 고등학교).
 - 지역 :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즉, Y_{hij} 는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의 j 번째 학생에 대한 관측치임.
- w_{hij} : 표본 가중치 (표본추출확률의 역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w_{hij} = (\pi_{hi}\pi_{jhi})^{-1}$
 - $\pi_{hi} = h$ 번째 층에서 i 번째 집락의 추출확률이며, 이는 집락 내의 학생수에 비례함.
 - $\pi_{j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에서 j 번째 학생의 추출확률.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2)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 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_{\dots}$: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_{\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3)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4)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dots}$$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 \text{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5)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6) 목표 오차한계(표본오차)

- 집락효과를 무시하는 경우(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0.5$ 로 할 때, 모비율에 대한 오차한계를 계산하면(95% 신뢰수준 하에서)

$$e = z_{\alpha/2} \times \sqrt{\frac{p(1-p)}{n}} \times \sqrt{\frac{N-n}{N-1}}$$

- 목표: $N=5,800,890(3,972,764)$, $n=8,500(5,802) \Rightarrow e=\pm 1.06\%P(\pm 1.29\%P)$

- 최종: $N=5,800,890(3,972,764)$, $n=10,850(7,630) \Rightarrow e=\pm 0.94\%P(\pm 1.12\%P)$

- 대략 $M=35$ (집락크기), $\rho=0.04$ (급내상관계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의 경우)로 간주하여, $deff = 1 + (M-1)\rho = 2.36$ 을 단순임의추출에 대한 집락추출의 설계효과로 하고 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0.5$ 로 할 때, 모비율에 대한 오차한계를 계산하면(95% 신뢰수준 하에서)

$$e = z_{\alpha/2} \times \sqrt{\frac{p(1-p)}{n}} \times \sqrt{\frac{N-n}{N-1}} \times \sqrt{deff}$$

- 목표: $N=5,800,890(3,972,764)$, $n=8,500(5,802)$

$$\Rightarrow e=\pm 1.63\%P(\pm 1.98\%P)$$

- 최종: $N=5,800,890(3,972,764)$, $n=10,850(7,630)$

$$\Rightarrow e=\pm 1.45\%P(\pm 1.72\%P)$$

(7) 오차한계

○ 모수추정 방식이 동일하여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였으며, 모집단 총계 및 조사 표본수를 적용함.

-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 $N=5,800,890$, $n=9,591 \Rightarrow e=\pm 1.54\%P$

Ⅱ.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문항구성체계

II.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문항구성체계

본 조사의 설문문항체계의 구성은 위에서 논의된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에서 선정된 정성지표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정성지표로서 활용가능한 지표체계화 작업과 더불어 발달권 및 참여권의 개별지표에 상응하는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체계를 구축하였다. 2010년도에 선별하여 설문조사문항으로 개발된 지표는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조사실용성(practic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상대적 중요성(relative importance)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지표선정의 보편적 기준인 측정가능성과 조사실용성 이외에 국가 간 인권 모니터링 산출결과와의 비교를 고려한 지표항목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의 측면이외에 우리 아동·청소년이 처한 특수한 인권현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대적 중요성(relative importance)도 중요 지표선정의 기준이 되었다.

설문조사도구는 청소년용 기준으로 발달·참여권 분야에서 총 133문항(발달권 63문항, 참여권 61문항, 배경변인 9문항)으로 선정·구성 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II-1-1>, <표 II-2-1>과 같다. 설문도구의 각 조사항목은 초등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누어 분류되었으며, 각 설문문항의 순서에 따라 해당 지표항목을 제시하였다.

1. 발달권 설문문항 구성체계

아동·청소년 발달권 영역에서의 설문문항의 체계화 작업은 5개 발달권 개별지표에 상응되는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정성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즉 개별문항의 개발은 활용성에 중점을 둔 정성지표로서 사용 가능한 지표체계화 작업을 의미한다. 인지발달의 기회는 중퇴율과 연관이 있는 항목, 학교등교거부의 이유, 사교육과 경험유무와 효과성,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 및 진행수준과 만족도, 평균학습시간 등을 포함한다. 정서적 발달환경은 부모 및 선생님과 대화 빈도, 여가 및 여가시간

과 여가시설과 관련된 문항,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고민관련 문항 그리고 부모님과 관계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정서적 안정감은 현재의 심리·정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들을 본 조사에 맞게 변형되어 제시되었다. 사회성 발달기회는 묻는 문항들은 친구와 관련된 문항, 청소년 활동과 동아리 활동 유무와 그 유용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성 발달정도 혹은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전략을 묻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진로준비 기회는 진로준비 행동과 진로경험 유무와 효과성을 묻는 질문, 그리고 직업능력은 직업진로태도와 졸업 후의 진로방향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체발달 기회는 자신의 건강과 운동 및 수면과 관련된 문항들로 제시되었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인지능력과 신체적 능력 지표는 중복 가능성과 본 연구의 두 번째 정량지표연구에서 행정통계지표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함으로 제외되었다.

〈표 II-1-1〉 발달권 설문문항체계의 구성

관심 영역	세부영역	조사문항	문항번호		지표 항목	
			초등	중고		
3-1. 인지 적 발달	3-1-1. 인지발달 기회	학업중도포기 이유		26	3-1-1-2A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23	25	3-1-1-2B	
		사교육 경험 유무와 효과성	8 8-1	8 8-1	3-1-1-4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	5	5	3-1-1-5와6	
		학교수업진행 수준	6	6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5-1	3-1-1-7	
		학교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7	7		
3-2. 정서 적 발달	3-2-1. 정서발달 환경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아버지)	16-1	18-1	3-2-1-1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어머니)	16-2	18-2		
		학교선생님과의 대화빈도	16-3	18-3	3-2-1-2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평균(하루기준)	9	9	3-2-1-4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지각	10	10		
		휴일을 보내는 방법	12	12	3-2-1-5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11	11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	가정	24-1	30-1	3-2-1-6
			친구	24-3	30-3	

		학교	24-2	30-2	3-2-1-7
		고민 상담 대상	15	17	
		고민거리 유형별 우선순위	14	16	
		부모·자녀관계	17-1 17-2	19-1 19-2	3-2-1-8
	3-2-2. 정서적 안정	우울감	20-1~ 3	22-1~ 3	3-2-2-1
		학업스트레스	20-7 20-8	22-7~ 9	3-2-2-2
		전반적인 행복감	21-1 21-2	22-1 22-2	3-2-2-3
		자아존중감	22-1~ 3	24-1~ 3	3-2-2-4
		자기효능감	22-4 22-5	24-4 22-5	3-2-2-5
		정서적 고립감	20-4~ 6	22-4~ 6	3-2-2-7
		정서적 조절감(24-6,7)	22-6,7	24-6,7	3-2-2-6
		낙관성 수준(24-8,9)	22-82 2-9	24-82 4-9	3-2-2-8
3-3. 사회 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18	20	3-3-1-1
		아동·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13	13	3-3-1-2A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14-1~ 3	3-3-1-2B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		15	3-3-1-4
	3-3-2. 사회성 발달정도	갈등해결전략	19-1~ 4	21-1~ 4	3-3-2-1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 기회	진로준비행동		28-1 28-2	3-4-1-2
		진로교육경험유무/만족정도		27 27-1	3-4-1-3
	3-4-2. 직업능력	진로직업태도		28-3~ 5	3-4-2-1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29-1 29-2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 기회	정기적인 운동실천 여부	4	4	3-5-1-1
		평일 평균수면시간	1	1	3-5-1-2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2	2	3-5-1-3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3	3	

2. 참여권 설문문항 구성체계

아동·청소년 참여권 영역에서의 설문문항의 체계화 작업은 6개 참여권 관심영역에 상응되는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정성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자기결정권(청소년 의견존중)과 사생활보호는 아동·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는지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정의 중요사와 교육 및 진로 결정에 있어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과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 등이 있다. 학교에서 개인소지품 검사나 휴대폰 소지 허용 여부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두발과 복장 등 사적 취향의 표현 실태,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 자율권 보장 정도,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으로서 인터넷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는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에서 청소년이 어느 정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발언권 존중정도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볼 수 있는 3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학생회 운영실태와 교내·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 등 자치활동에 대한 문항,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을 알아보는 문항,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권리행사를 위한 조건으로서 정보접근권과 정보참여의 경우 학교 규칙을 알려주는지와 학생들의 인지도, 그리고 아동·청소년 친화적 인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참여 및 참정권은 자원봉사활동, 청소년의 정책참여, 학교에서의 참여, 선거 참여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거관련 문항에서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선거가능연령이 되었을 때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관련 인식의 경우 사회참여의 의의, 장애요인, 활성화방안, 현재 우리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II-2-1> 참여권 설문문항구성체계의 구성

관심 영역	세부영역	조사문항	문항번호		지표 항목
			초·등	중·고	
4.1. 자기결정권 (=청소년 의견존중)과 사생활 보호	4-1-1. 종교 결정권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경험	-	327	41-1-3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가정 중요사 결정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	251	311	41-2-1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	252	312	41-3-1
		진로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	253	313	41-3-2
	4-1-5.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여부			41-5-1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여부	267	328	
		-징계대상 학생 정보 공개 여부	268	329	
		- 개인 시험성적 공개 여부	269	3210	41-5-2
		학교에서 개인 소지품 검사 경험과 대 응태도	303	363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	31	37	
4.2. 표현의 자유	4-2-1. 사적취향의 표현	학교에서의 두발 등 용모 규제 경험과 대응태도	301	361	42-1-1
		학교에서의 복장 규제 경험과 대응태 도	302	362	
	4-2-2. 학교에서의 의견 표현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의 자율 권 보장 정도	265	325	42-2-1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 부	29	35	42-2-2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제시 가능여부	266	326	42-2-3
	4-2-3.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인터넷에 게시물 작성 경험 인터넷에서 댓글 작성 경험	341 342	411 412	42-3-2
	4-2-4.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			4241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	도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 -대중매체의 부정적 역할	331 332 333	401 402 403	
4.3. 집회·결사의 자유	4-3-1. 학교에서의 집회·결사	학생회나 학급회 참여도	2612	3213	43-1-2
	4-3-2. 학교 밖에서의 집회·결사	학교의 교내/교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	-	38	43-2-1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토론	361	431	43-2-2
		-모임이나 카페 가입	362	43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서명운동	363 364	433 434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	44	43-2-3
4.4.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4-4-3. 알권리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 여부	2610	3211	44-3-1
		학생생활규정, 자치규정 등 인지도	2611	3212	
		아동·청소년 친화적 인권 정보 제공 정도			44-3-2
		-청소년용 정책자료 제공 여부	371	451	
		-청소년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공 여부	372	452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 여부	373	453	
		-인권교육 실시 여부	374	454	
		자원봉사 참여 횟수	381	461	45-1-1
		자원봉사 참여 시간	382	462	
		자원봉사 참여 이유	39	47	
		청소년 정책관련 자치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 경험	35	42	45-1-5
		청소년 정책에 대해 청소년 의견 반영 여부	321	391	45-1-6
		지역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시 청소년 의견 반영여부	322	392	
	4-5-2. 학교에서의 참여	학생회 운영 현황 -학생 자율권 정도 -임원 자격의 성적 제한 여부	- 271	331 332	45-2-1

	-활동장소와 시간 보장 여부	272	333	
	-직접 선거를 통한 선출 여부	273	334	
	학교의 규칙/규정 제정에 학생의견 반영여부	264	324	45-2-2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	28	34	45-2-3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결정권			
	-특별활동, 방과후 교실 학생 선택권	261	321	45-2-4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결정에 학생 의견 반영여부	262	322	
	-급식메뉴와 질에 학생 의견 반영여부	263	323	
4-5-3. 참정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인식 (초등: 선거가능 연령이 되었을 때 선거참여 의향)	40	48	45-3-2
4-6. 참여관련 인식	청소년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	41	49	46-0-1
	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42	50	
	참여의 장애요인	43	51	46-0-2
	참여 활성화 방안	44	52	46-0-4
	청소년인권 옹호 기구 필요성	45	53	
	참여권 보장 수준	46	54	46-0-5

Ⅲ.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실태조사결과

III.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실태조사결과

1.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결과 분석방법

실태조사 결과는 주요 측정변수(세부지표항목)에 대한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개인의 사회·환경적 특성에 기초하여 분석되어졌다.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학교 급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 경제수준 등이었으며, 이들 변인별 집단 수준에 따른 측정변수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태조사결과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를 구성하는 관심영역과 세부지표항목 별 설문문항에 대한 분석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발달권·참여권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된 주요 배경변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연령층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층으로 나누어 실태결과를 분석·기술하였다. 각 세부지표항목에 대한 기술은 항목의 시의성에 부합되는 유관변인 중심의 기술을 원칙으로 하되, 비록 유관변인 이외에 다른 변인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어도 해당 항목과의 중요성(relevance)이 적으면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다. 통계적 분석 방법의 틀로는 주로 집단 간 빈도 값의 차이에 기초한 교차분석이나 집단 간 평균비교 방식을 이용한 t검증이나 F검증을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초·중·고생들이다. 조사의 표본크기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현황을 기초로 각 시도

의 학생비율 분포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다.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배분과정은 시도별 부차모집단별 비례배분에 의하여 목표 표본수(학생수)를 할당하였으며, 일차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를 학급단위로, 이차추출단위(SSU; secondary sampling unit)는 학생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을 표집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2009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sampling frame)로 활용하였는데, 지역별(7개 광역시와 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도로 구분) 기준 이외에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유형별(일반계, 전문계)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재학생수 기준 인구비례(PPS)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학교의 각 학년에서 1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는 집락표집을 실시하였다. 학급선정에 있어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학교별 조정이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으며,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표본의 성격과 대표성이 문제가 되어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현황을 기초로 각 시도의 학생비율 분포에 근거하여 추정된 목표표본은 N=8,500으로 예측되었지만, 비례배분한 부차모집단 내의 표본의 배분이 불충분할 수 있어 층화지역별 1개 학교 1개 학년 1개 학급 전원조사를 원칙으로 삼았기에 실제 조사를 위한 최종표본 수는 목표표본보다 많은 9,591명이었다. 조사를 위한 표집인원은 초등학교 92개교, 중학교 97개교, 고등학교 121개교(일반고 82개교, 전문고 39개교)에서 추출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표집된 학생들의 성별, 교급별 분포는 아래에 제시된 <표 III-1-1>에 기술되어 있다. 추가로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직업유무, 가정경제수준, 지역, 학업성적 및 기초생활수급 경험유무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한 분포현황도 <표 III-1-2>에 기술되어 있다.

성별분포는 남자 아동·청소년은 4,881명으로 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아동·청소년은 4,705명으로 49.1%였다. 교급에 따른 인원비율은 초등학생 26.94%, 중학생 33.2% 고등학생 39.9%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분포에서 아동은 15%만이 자신의 성적이 하위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한 반면 청소년은 34.6%가 하위집단에 속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아동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신의 학업성적이 중상위 집단에 속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아동이 청소년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1.7%, 7.4%만이 하위 집단에 속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경제수준이 중간집단에 속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아동 70.7% 청소년 83.7%, 상위집단에 속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28.1%와 8.6%로 나타나,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경제수준이 중간층 이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가 청소년과 아동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연구에서 자신의 지각하는 경제수준인식과 기초생활수급경험 유무에서 청소년의 경우 두 배 이상, 아동의 경우 약 다섯 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감안하며, ‘가정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결과를 해석할 때 아동의 경우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제는 학업성적변인에 의한 집단 간 비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표 III-1-1〉 조사대상자의 성별·학교급별 특성

구 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자	4,881	50.9
	여자	4,705	49.1
학교급별	초등학교	2,581	26.9
	중학교	3,189	33.2
	고등학교	3,821	39.9

〈표 III-1-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특성

구 분		아동		청소년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학업 성적	하	386	15.0	2,424	34.6
	중	1,187	46.0	2,720	38.8
	상	1,008	39.1	1,845	26.3
가족 구성	양부모	2,342	90.7	5,936	84.7
	한부모	216	8.4	889	12.7
	조손가정	23	0.9	90	1.3
경제 수준	하	43	1.7	521	7.4
	중	1,808	70.7	5,865	83.7
	상	724	28.1	605	8.6

2. 아동·청소년 발달권 실태

1) 인지적 발달

인지적 발달을 구성하는 세부관심영역은 인지발달기회와 인지능력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능력은 중요 발달권 지표이지만 다른 아동·청소년 연구에서 중복 조사되는 경우가 많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발달기회와 관련된 지표항목만을 조사하였다. 인지발달기회와 관련된 개별지표로는 중퇴율, 학교등교거부이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하루 평균 학습시간 등이 있으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학업중도포기 이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사교육 경험 유무와 효과성,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 학교수업진행 수준,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통해 해당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 결과를 분석했다. 인지적 발달기회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려는 이유와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아동용으로는 아직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제외되었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려는 이유에 대한(〈표 III-2-1〉) 질문에 대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73.2%는 학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중도포기 이유에 대해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 8.5%, 경제적인 문제가 4.8%로 나타났다. 학업포기를 묻는 질문에서 교급, 학업성적, 가족구성 및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학업성적 하위집단이 중간 및 상위집단 보다, 조손 및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경제수준 하위집단이 중간 및 상위 집단보다 학업포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포기이유에 대해 교급 간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비율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에 포기하려는 경향이 높았다(상위집단4.6%, 중간집단6.8%, 하위집단 13.5%). 마찬가지로 가족구성 유형(양부모 8.4%, 한부모 9.5%, 조손가정 10.1%) 과 경제수준(상위집단6.9%, 중간집단8.5%, 하위집단10.5%)에 따른 부적응의 빈도 비율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표 III-2-1> 학업중도포기 이유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포기할 생각이 없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정문제 (부모님과 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생활 에 적응을 못해서	몸이 아파서	기타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¹⁾
전 체		73.2	4.8	2.1	8.5	0.7	10.7	100(6944)	
성별	남	74.4	5.2	2.2	8.4	0.8	9.0	100(3523)	27.86 ^{1***}
	여	72.0	4.4	2.0	8.7	0.5	12.5	100(3421)	
교급	중	77.5	4.1	2.0	6.1	0.9	9.4	100(3150)	74.426 ^{***}
	고	69.7	5.3	2.2	10.6	0.5	11.8	100(3764)	
학업 성적	하	63.3	5.6	2.6	13.5	0.8	14.2	100(2403)	228.464 ^{***}
	중	76.4	4.3	1.9	6.8	0.6	10.1	100(2694)	
	상	81.6	4.5	1.7	4.6	0.5	7.1	100(1833)	
가족 구성	양부모	74.9	3.8	1.9	8.4	0.7	10.3	100(5888)	119.290 ^{***}
	한부모	64.7	10.5	3.2	9.5	0.2	11.9	100(875)	
	조손가정	56.2	12.4	5.6	10.1	0	15.7	100(89)	
경제 수준	하	55.7	17.9	5.0	10.5	0.4	10.5	100(515)	251.632 ^{***}
	중	74.5	3.9	1.8	8.5	0.7	10.6	100(5818)	
	상	75.8	2.8	2.2	6.9	0.5	11.9	100(598)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표 III-2-2>) 초등학생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기 싫거나 몸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1% 정도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공부가 싫어서라는 응답비율이 11.6%를 차지했다. 성별에 따른 남녀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거나 몸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 초등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해 성적이 낮은 집단 일수록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집단일수록 아침에 일어나기 싫거나 몸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힘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은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의 초등학생들에게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1순위)(초등학생)

(단위: %)

구 분		괴롭힘을 당해서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학교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학교규율이 엄해서 자유롭지 않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음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7.5	6.5	8.0	3.1	0.2	0.4	11.6	4.6	1.9	20.9	20.8	14.5	100(2538)	
성별	남	8.2	4.8	9.1	3.9	0.4	0.6	13.4	4.9	2.5	16.4	19.6	16.2	100(1299)	78.242***
	여	6.9	8.4	6.8	2.2	0	0.2	9.8	4.2	1.4	25.7	22.0	12.6	100(1239)	
학업 성적	하	9.4	7.6	14.7	4.5	0	0.5	12.3	4.5	1.0	17.8	17.8	9.7	100(381)	99.238***
	중	8.4	6.3	9.7	2.1	0.4	0.3	11.7	4.7	1.9	20.9	18.5	15.1	100(1165)	
	상	5.7	6.4	3.3	3.7	0	0.5	11.3	4.4	2.3	22.1	24.5	15.6	100(994)	
가족 구성	양부모	7.3	6.5	7.5	2.9	0.1	0.4	11.8	4.7	1.9	21.4	21.1	14.3	100(2306)	38.100*
	한부모	10.0	5.7	11.8	3.8	0.9	0	10.9	3.3	1.4	17.5	17.5	17.1	100(211)	
	조손가정	8.7	13.0	13.0	13.0	0	0	4.3	4.3	8.7	8.7	17.4	8.7	100(23)	
경제 수준	하	20.9	7.0	9.3	7.0	2.3	2.3	7.0	2.3	2.3	16.3	14.0	9.3	100(43)	48.045**
	중	7.2	6.6	7.8	2.6	0.2	0.3	12.3	4.7	1.8	22.3	20.9	13.3	100(1779)	
	상	7.4	6.3	8.1	3.9	0.1	0.4	10.4	4.4	2.2	17.8	20.9	17.8	100(712)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30.6%,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13.9%,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10.8% 순

1)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분석에서의 유의도 수준을 $p < .05 = *$, $p < .01 = **$, $p < .001 = ***$ 으로 표기하였다

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남녀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여자 중·고등학생에게서 매우 높게 관찰되었다.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해서는 성적이 낮은 집단 일수록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표 III-2-3〉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1순위)(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괴롭힘을 당해서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학교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학교규율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	몸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음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7	7.4	8.7	2.3	0.6	0.9	13.9	8.7	6.7	30.6	10.8	6.6	100(6878)	
성별	남	3.6	4.3	9.6	2.8	0.8	1.0	14.1	9.5	7.7	25.5	11.6	9.5	100(3480)	293.645***
	여	1.7	10.6	7.7	1.9	0.5	0.8	13.7	8.0	5.7	35.8	9.9	3.8	100(3398)	
교급	중	3.5	8.1	9.7	2.1	0.5	0.9	14.3	8.4	5.4	27.3	11.6	8.1	100(3105)	86.722***
	고	2.0	6.7	7.8	2.5	0.8	0.9	13.6	9.1	7.7	33.3	10.1	5.4	100(3742)	
학업 성적	하	3.2	7.5	11.0	2.7	0.8	1.4	16.5	9.1	7.2	28.2	7.7	4.8	100(2369)	156.584***
	중	2.4	7.2	8.4	1.9	0.6	0.8	14.0	8.4	6.4	31.6	11.9	6.4	100(2671)	
	상	2.5	7.7	6.1	2.5	0.5	0.3	10.4	8.9	6.4	32.1	13.2	9.5	100(1824)	
가족 구성	양부모	2.7	7.3	9.0	2.2	0.5	0.7	13.6	8.9	6.7	30.6	10.7	7.0	100(5837)	63.078***
	한부모	3.0	7.7	6.1	2.5	1.3	2.1	16.3	7.3	7.3	30.4	11.7	4.4	100(866)	
	조손가정	2.3	10.5	10.5	1.2	3.5	0	11.6	9.3	2.3	29.1	14.0	5.8	100(86)	
경제 수준	하	2.9	8.6	8.0	3.3	3.9	3.1	13.5	7.2	8.0	28.8	10.0	2.5	100(511)	179.941***
	중	2.5	7.4	8.6	2.1	0.4	0.7	14.2	8.7	6.5	31.3	10.8	6.8	100(5762)	
	상	4.4	6.3	9.5	4.2	0.3	0.8	11.5	10.0	7.8	25.2	11.0	9.0	100(591)	

〈표 III-2-4〉 사교육 경험 유무 (초등학생)

(단위: %)

구 분		없다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0.2	79.8	100(2558)	
성별	남	22.7	77.3	100(1305)	10.423**
	여	17.6	82.4	100(1253)	
학업 성적	하	24.5	75.5	100(380)	7.237*
	중	20.5	79.5	100(1178)	

가족 구성	상	18.1	81.9	100(1002)	23.080 ***
	양부모	19.0	81.0	100(2324)	
	한부모	60.8	69.2	100(214)	
	조손가정	40.9	59.1	100(22)	
경제 수준	하	24.4	75.6	100(41)	2.939
	중	19.3	80.7	100(1793)	
	상	22.1	77.9	100(720)	

사교육의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표 III-2-4>)에서 전체 초등학생의 80%정도가 사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여자 초등학생이 남자 초등학생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교육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양부모가족의 초등학생들이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초등학생들보다 현저히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가정경제수준에 의한 집단간 비교에서는 차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2-5> 사교육 경험 유무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없다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6.5	63.5	100(6980)	
성별	남	40.3	59.7	100(3543)	45.506 ***
	여	32.6	67.4	100(3437)	
교급	중	25.6	74.4	100(3174)	303.315 ***
	고	45.8	54.2	100(3776)	
학업 성적	하	45.6	54.4	100(2406)	150.318 ***
	중	34.5	65.5	100(2715)	
	상	27.8	72.2	100(1841)	
가족 구성	양부모	33.5	66.5	100(5914)	145.558 ***
	한부모	52.5	47.5	100(885)	
	조손가정	61.1	38.9	100(90)	
경제 수준	하	60.9	39.1	100(516)	172.260 ***
	중	35.7	64.3	100(5844)	
	상	24.3	75.7	100(604)	

사교육의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표 III-2-5>)에서 전체 중·고등학생의 63.5%가 사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8%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급 간 비교에서 중학생 청소년의 사교육 경험율이 고등학생 청소년들보다 20%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기술한 중학생의 학교수업 외 평균학습시간이 고등학생보다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성적변인에 의한 비교에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험비율이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들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중·고등학생들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초등학생과는 달리 가정경제변인 의한 비교에서 상위집단과 중간집단, 그리고 하위집단 간 사교육 경험비율에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표 III-2-6> 사교육 효과성 (초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4	2.1	23.8	48.9	23.8	100(2026)	
성별	남	1.7	2.0	24.4	46.4	25.5	100(998)	6.255
	여	1.2	2.1	23.2	51.4	22.2	100(1028)	
학업 성적	하	2.8	4.2	38.5	41.7	12.7	100(283)	145.777***
	중	1.3	2.4	27.4	50.9	18.0	100(929)	
	상	1.1	1.0	14.5	49.3	34.2	100(816)	
가족 구성	양부모	1.4	2.0	23.2	49.6	23.8	100(1868)	10.111
	한부모	1.4	2.7	30.6	40.1	25.2	100(147)	
	조손가정	0	7.7	23.1	61.5	7.7	100(13)	
경제 수준	하	9.7	3.2	32.3	35.5	19.4	100(31)	63.217***
	중	1.3	2.1	25.5	51.2	20.0	100(1440)	
	상	1.4	2.0	18.5	44.0	34.1	100(552)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전체초등학생의 72%정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남녀 성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업성적 상위집단의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빈도가 중간이나 하위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유형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모든 가족구성 유형 집단에서 사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 경제수준에 의한 비교에서 중, 상위 집단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7> 사교육 효과성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6	5.3	28.8	46.0	17.3	100(4406)	
성별	남	3.5	5.2	29.0	44.0	18.4	100(2100)	18.851**
	여	1.8	5.4	28.7	27.8	16.3	100(2306)	
교급	중	3.0	5.4	28.	44.0	18.9	100(2346)	15.805**
	고	2.1	5.3	29.1	48.2	15.3	100(2035)	
학업 성적	하	4.7	8.9	38.1	38.5	9.8	100(1304)	316.819***
	중	1.6	4.2	29.3	49.9	15.0	100(1764)	
	상	1.8	3.3	19.0	48.0	27.9	100(1323)	
가족 구성	양부모	2.3	5.4	28.7	46.1	17.5	100(3912)	11.210
	한부모	4.5	4.5	29.9	45.2	15.8	100(418)	
	조손가정	5.7	8.6	28.6	40.0	17.1	100(35)	
경제 수준	하	9.0	4.0	27.0	42.0	18.0	100(200)	66.517***
	중	2.1	5.5	29.1	47.0	16.2	100(3739)	
	상	3.7	4.0	27.1	39.6	25.6	100(454)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63.3%가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남자 중·고등학생의 효과성에 대한 답변 비율이 여자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았다. 교급 간 비교에서 중학생 청소년과 고등학생 청소년 간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실제 뚜렷하게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학업성적 상위집단과 중간집단의 사교육 효과성에 대한 응답빈도는 하위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유형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수준에 의한 비교에서 각 집단 간 사교육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뚜렷한 차이로 관찰되지는 않았다.

<표 III-2-8>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 (초등학생)

(단위: %)

구 분		이해하기 가 매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든 편이다	이해하기 에 적당하다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이해하기 가 매우 쉽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0.4	5.0	47.1	29.6	17.9	100(2557)	
성별	남	0.5	4.6	43.3	31.3	20.2	100(1305)	21.462***
	여	0.2	5.4	51.1	27.8	15.5	100(1252)	
학업 성적	하	1.3	15.4	62.6	15.7	5.0	100(382)	477.855***
	중	0.3	4.7	57.7	27.3	10.0	100(1177)	
	상	0.1	1.4	28.7	37.5	32.2	100(999)	
가족 구성	양부모	0.1	4.7	46.5	30.7	18	100(2320)	66.066***
	한부모	2.8	7.9	53.0	19.5	16.7	100(215)	
	조손가정	4.3	13.0	52.2	8.7	21.7	100(23)	
경제 수준	하	2.4	19.0	52.4	19.0	7.1	100(42)	105.583***
	중	0.4	5.2	51.8	27.7	14.9	100(1797)	
	상	0.1	3.8	34.9	34.9	26.2	100(713)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은 학교수업이 이해하기 적당하거나 쉽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이해도의 정도는 성적상위집단으로 갈수록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이해하기 쉬운편이다’를 기준으로 성적상위집단의 관찰비율은 69.7%, 중간집단은 37.3%, 하위집단은 20.7%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유형별 비교에서도 집단 간 이해도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해하기 힘든편이다’를 기준으로 조손가정(17.3%)이나 한부모가정(10.6%)의 초등학생들이 양부모가정(4.8%)의 초등학생들보다 현저히 높은 빈도비율로 관찰되었다. 경제수준 별 비교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정경제수준 하위집단(21.4%)의 초등학생들이 중간집단(5.6%)과 상위집단(3.9%)의 초등학생들보다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가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들과 비교하여 학교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2-9>). 전체응답 중·고등학생의 26%가 학교수업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답변하고 있다.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I-2-9>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이해하기 가 매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든 편이다	이해하기 에 적당하다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이해하기 가 매우 쉽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1	22.9	57.1	12.7	4.1	100(6994)	
성별	남	3.9	22.8	53.3	14.6	5.4	100(3551)	82.821 ^{***}
	여	2.3	23.1	61.0	10.8	2.7	100(3443)	
교급	중	2.7	21.0	53.9	16.4	6.0	100(3181)	133.465 ^{***}
	고	3.5	24.5	59.8	9.6	2.6	100(3783)	
학업 성적	하	6.4	40.3	49.0	3.4	0.9	100(2418)	1653.082 ^{***}
	중	1.4	17.9	68.6	10.1	2.0	100(2714)	
	상	1.2	7.7	50.9	28.8	11.4	100(1844)	
가족 구성	양부모	2.6	22.2	57.7	13.2	4.2	100(5925)	39.146 ^{***}
	한부모	5.3	26.8	54.5	9.7	3.7	100(888)	
	조손가정	5.6	29.2	51.7	11.2	2.2	100(89)	
경제 수준	하	8.5	31.7	45.8	9.2	4.8	100(520)	219.052 ^{***}
	중	2.6	22.9	58.8	12.5	3.3	100(5854)	
	상	3.1	15.4	51.3	18.5	11.6	100(604)	

교급 간 비교에서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중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수업의 이해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업성적 변인에 의한 비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편이다’를 기준으로 성적 상위집단은 8.9%, 중간집단은 19.3%, 하위집단은 46.7%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유형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성적변인에 의한 차이보다는 작았다. ‘이해하기 힘든편이다’를 기준으로 조손가정(34.8%)이나 한부모가정(32.1%)의 중·고등학생들이 양부모가정(24.8%)의 중·고등학생들보다 높은 빈도비율로 관찰되었다. 경제수준 별 비교에서는 다소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정경제수준 하위집단(40.2%)의 중·고등학생들이 중간집단(25.5%)과 상위집단(18.5%)의 중·고등학생들보다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가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수준에 대해(<표 III-2-10>) 초등생들의 50%는 학업성적 중간정도, 30%정도는 중상위정도의 이해수준에 맞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

었으나 일정한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I-2-10> 학교수업진행 수준 (초등학생)

(단위: %)

구 분		상위권	중상위	중간권	중하위	최하위권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7.2	29.6	50.5	11.2	2.0	100(2561)	
성별	남	8.1	31.2	46.9	11.3	2.4	100(1308)	12.822 [*]
	여	6.3	28.0	53.2	11.0	1.5	100(1253)	
학업 성적	하	5.5	27.7	47.1	15.4	4.2	100(382)	150.897 ^{***}
	중	4.0	25.3	60.8	9.0	0.8	100(1177)	
	상	11.7	35.5	38.3	12.1	2.5	100(1004)	
가족 구성	양부모	6.9	30.0	50.3	10.9	1.9	100(2326)	15.119
	한부모	10.7	27.1	46.7	13.1	2.3	100(214)	
	조손가정	4.3	17.4	47.8	21.7	8.7	100(23)	
경제 수준	하	11.9	16.7	47.6	21.4	2.4	100(42)	45.876 ^{***}
	중	5.9	30.2	52.4	9.6	1.7	100(1794)	
	상	10.3	29.3	43.1	14.6	2.8	100(721)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수준에 대해(<표 III-2-11>) 중·고등학생들의 약 51%는 학업성적 중간정도, 24.6%는 중상위정도의 이해수준에 맞게 진행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성별 및 교급 변인에 의한 차이를 살펴보면(중간권을 기준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학교수업이 대체로 이해되기 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아동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적, 가족수성유형 및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었으나 일정한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I-2-11> 학교수업진행 수준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상위권	중상위	중간권	중하위	최하위권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0	24.6	50.9	16.7	3.8	100(7000)	
성별	남	5.3	23.5	47.9	18.5	4.9	100(3555)	80.711 ^{***}
	여	2.7	25.8	53.9	14.9	2.7	100(3445)	
교급	중	4.8	28.3	47.9	15.5	3.6	100(3182)	62.743 ^{***}

학업 성적	고	3.2	21.3	53.6	17.8	4.1	100(3788)	284.595 ^{***}
	하	3.9	22.2	45.9	20.7	7.3	100(2421)	
	중	2.3	24.5	58.7	13.2	1.3	100(2718)	
	상	6.6	27.9	45.8	16.5	3.2	100(1844)	
가족 구성	양부모	3.9	25.1	51.6	16.0	3.4	100(5930)	38.131 ^{***}
	한부모	4.1	22.1	46.5	21.3	6.1	100(888)	
	조손가정	4.4	18.9	50.0	21.1	5.6	100(90)	
경제 수준	하	4.8	21.0	42.2	23.5	8.5	100(519)	134.776 ^{***}
	중	3.3	24.5	52.5	16.4	3.3	100(5861)	
	상	9.4	28.6	42.6	13.7	5.6	100(605)	

학교수업에 대해(<표 III-2-12>) 중고등 학생의 55%정도는 보통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을 기준으로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빈도 비율이 비슷하였다. 여자보다는 남자의 만족정도가,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만족정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학업성적 상위집단 일수록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수준 상위 및 중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다소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가족구성유형에 따른 집단 간 만족도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2-12>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매우 불만족 이다	불만족 이다	보통이 다	만족한 다	매우 만족한 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2	18.9	54.9	19.6	2.4	100(6994)	
성별	남	5.4	17.4	52.5	21.4	3.4	100(3550)	79.397 ^{***}
	여	3.1	20.5	57.4	17.6	1.4	100(3444)	
교급	중	3.5	15.1	52.9	24.9	3.6	100(3181)	182.956 ^{***}
	고	4.9	22.2	56.6	15.0	1.3	100(3783)	
학업 성적	하	5.6	22.4	57.3	13.4	1.4	100(2422)	240.164 ^{***}
	중	3.0	16.9	58.9	19.2	2.0	100(2714)	
	상	4.3	17.1	46.0	28.4	4.2	100(1840)	
가족 구성	양부모	4.2	18.7	54.9	19.9	2.3	100(5924)	8.859
	한부모	4.7	19.9	56.0	17.6	1.8	100(888)	
	조손가정	3.3	18.9	52.2	20.0	5.6	100(90)	
경제	하	5.4	26.7	48.1	17.1	2.7	100(520)	67.115 ^{***}

수준	중	3.9	18.1	56.4	19.5	2.0	100(5854)	
	상	6.1	19.2	55.5	19.6	2.4	100(604)	

학교수업이외의 초등학생들의 평균학습시간에 대해 1~2시간, 2~3시간대에 응답한 비율이 각 23.7%로 나타났으며, 남녀 초등학생 간 통계상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성적에 따른 비교에서 성적 상위집단 일수록 평균학습시간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구성유형별 학습시간을 3~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양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이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초등학생들보다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마찬가지로 가정경제수준이 상위인 초등학생들이 중간이나 하위층에 있는 초등학생들보다 높은 빈도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13> 학교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초등학생)

(단위: %)

구 분		1시간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4.4	23.7	23.7	16.8	12.3	9.0	100(2562)	
성별	남	16.8	23.6	23.5	15.7	11.5	8.8	100(1308)	14.873 [*]
	여	11.8	23.8	23.9	18.0	13.2	9.3	100(1254)	
학업 성적	하	24.3	28.6	20.4	11.1	9.5	6.1	100(378)	105.986 ^{***}
	중	15.5	24.7	25.8	16.2	9.4	8.4	100(1182)	
	상	9.3	20.7	22.6	19.6	16.9	10.9	100(1004)	
가족 구성	양부모	13.7	23.5	23.6	17.3	12.7	9.2	100(2326)	19.011 [*]
	한부모	21.4	24.7	26.5	11.6	8.4	7.4	100(215)	
	조손가정	17.4	34.8	17.4	13.0	13.0	4.3	100(23)	
경제 수준	하	34.9	11.6	20.9	16.3	7.0	9.3	100(43)	43.460 ^{***}
	중	15.2	25.0	24.5	16.0	11.3	8.1	100(1795)	
	상	11.0	21.3	22.1	18.9	15.6	11.3	100(720)	

중·고등학생의 경우 하루평균학습시간에 대해(<표 III-2-14>)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록 성별변인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뚜렷히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학습시간 3~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각 셀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 변인에 의한 집단 간 비교에서 성적상위집단의 평균학습시간(3~4시간 이상)에 대한 관찰빈도가 중간 및 하위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이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중·고등학생보다, 가정의 경제수준 상위집단이 중간이나 하위집단 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표 III-2-14〉 학교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1시간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2.0	25.4	19.1	11.4	7.1	5.0	100(6980)	
성별	남	33.8	25.4	17.8	10.6	6.5	5.8	100(3543)	31.000***
	여	30.1	25.5	20.4	12.1	7.8	4.1	100(3437)	
교급	중	23.1	23.0	22.3	15.5	9.5	6.8	100(3171)	365.010***
	고	39.6	27.6	16.3	7.8	5.2	3.4	100(3779)	
학업 성적	하	44.8	25.9	15.8	7.1	4.1	2.3	100(2412)	457.179***
	중	27.8	26.5	20.9	13.0	7.5	4.4	100(2713)	
	상	21.6	23.2	20.7	14.6	10.6	9.3	100(1838)	
가족 구성	양부모	29.0	26.0	20.0	12.2	7.6	5.2	100(5916)	156.532***
	한부모	48.2	23.3	13.1	7.0	4.6	3.6	100(883)	
	조손가정	50.0	15.6	16.7	7.8	5.6	4.4	100(90)	
경제 수준	하	51.7	20.4	13.4	6.4	4.5	3.7	100(515)	209.442***
	중	31.6	25.9	19.7	11.5	6.9	4.4	100(5847)	
	상	19.2	25.0	18.1	13.9	12.1	11.6	100(603)	

2) 정서적 발달

정서적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은 정서발달환경과 정서안정영역이며, 각 세분관심영역은 다양한 개별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발달환경과 관련된 지표항목은 부모님과 대화빈도(아버지), 부모님과 대화빈도(어머니), 학교선생님과 대화빈도,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평균(하루기준),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지각, 휴일을 보내는 방법,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가정, 친구, 학교 생활영역별 만족도, 고민 상담 대상, 고민거리의 유형별 우선 순위 및 부모·자녀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서적 안정은 현재의 심리·정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들을 본 조사에 맞게 변형하여 제시되었다. 우울감, 학업스트레스,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고립감, 정서적 조절감, 낙관성 수준 등의 영역에서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표 III-2-15〉 부모님과 대화빈도(아버지)(초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7.2	11.8	24.0	33.3	23.6	100(2553)	
성별	남	87.6	11.6	25.3	30.6	24.0	100(1306)	14.877**
	여	5.9	12.1	22.7	36.0	23.3	100(1247)	
학업 성적	하	12.0	18.1	27.0	24.1	18.8	100(382)	73.751***
	중	7.5	12.1	25.7	33.6	21.1	100(1170)	
	상	5.0	9.3	20.8	36.6	28.3	100(1003)	
경제 수준	하	22.0	26.8	19.5	19.5	12.2	100(41)	92.282***
	중	6.6	12.6	26.1	35.0	19.7	100(1788)	
	상	7.8	9.0	19.0	30.0	34.2	100(720)	

아버지와의 대화정도에 대해 전체초등학생의 56.9%가 ‘자주한다’ 이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성별 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 일수록 아버지와의 대화빈도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수준 변인의 경우도 유사한 유형을 보여준다. 학업성적이 높고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초등학생 일수록 아버지와의 대화빈도가 높았다.

<표 III-2-16>부모님과과의 대화빈도(아버지)(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8.1	17.4	31.0	31.6	11.9	100(6971)	
성별	남	8.5	16.5	32.1	31.2	11.7	100(3545)	8.473
	여	7.6	18.4	29.9	32.1	12.0	100(3426)	
교급	중	7.1	15.1	27.8	35.0	15.1	100(3169)	119.071***
	고	8.9	19.5	33.8	28.7	9.1	100(3773)	
학업 성적	하	10.6	21.1	30.9	27.4	10.0	100(2408)	103.435***
	중	6.5	16.0	32.7	32.9	11.8	100(2705)	
	상	7.1	14.5	28.9	35.1	14.4	100(1841)	
경제 수준	하	22.1	23.0	26.8	20.5	7.6	100(512)	260.092***
	중	7.1	17.5	32.0	32.3	11.1	100(5840)	
	상	5.1	11.6	26.2	34.4	22.7	100(604)	

중·고등학생의 경우 아버지와의 대화정도에 대해 전체의 43.5%가 ‘자주한다’ 이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남녀 중·고등학생 성별 간 비슷한 응답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 일수록 아버지와의 대화빈도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중·고등학생 일수록 아버지와의 대화빈도가 높았다.

<표 III-2-17> 부모님과과의 대화빈도(어머니)(초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8	5.2	11.0	28.7	52.3	100(2536)	
성별	남	3.6	6.3	13.0	31.4	45.7	100(1294)	49.717***
	여	2.1	4.0	8.9	25.8	59.2	100(1242)	
학업 성적	하	6.8	9.4	14.2	28.3	41.2	100(381)	99.871***
	중	2.4	6.2	12.8	29.8	48.8	100(1164)	
	상	1.8	2.4	7.6	27.5	60.7	100(993)	
경제 수준	하	4.8	16.7	14.3	28.6	35.7	100(42)	33.069***
	중	2.6	5.2	11.6	30.5	50.1	100(1778)	
	상	3.2	4.5	9.3	24.0	59.0	100(712)	

어머니와의 대화정도에 대해(<표 III-2-17>) 전체초등학생의 81%가 ‘자주 한다’ 이상으로 아버지와의 대화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성별 간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학업성적 집단과 상관없이 어머니와 대화빈도는 모든 집단에서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지만, 성적상위 집단 일수록 어머니와의 대화빈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초등학생 일수록 어머니와의 대화빈도가 높았다.

<표 III-2-18>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어머니)(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2	5.3	16.3	41.5	33.7	100(6959)	
성별	남	4.1	6.0	18.6	44.4	26.9	100(3535)	161.689***
	여	2.3	4.6	13.9	38.4	40.8	100(3424)	
교급	중	3.1	5.0	14.7	39.0	38.3	100(3165)	56.803***
	고	3.3	5.6	17.6	43.6	29.8	100(3764)	
학업 성적	하	5.3	6.9	19.5	38.5	29.8	100(2408)	138.304***
	중	2.4	4.7	16.1	43.0	33.7	100(2698)	
	상	1.8	4.0	12.1	43.0	39.0	100(1836)	
가족 구성	양부모	1.4	4.6	15.1	43.1	35.7	100(5904)	585.304***
	한부모	12.2	8.7	22.4	32.8	24.0	100(876)	
	조손가정	26.7	15.6	22.2	22.2	13.3	100(90)	
경제 수준	하	9.9	7.6	2.1	34.0	24.3	100(514)	162.410***
	중	2.8	5.2	15.9	42.8	33.4	100(5829)	
	상	2.0	4.7	12.5	35.3	45.6	100(601)	

어머니와 대화정도에 대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75.2%가 ‘자주한다’ 이상으로 응답하고 있어 아버지와의 대화빈도와 비교할 때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성별 집단과 상관없이 어머니와 대화빈도는 남녀 모두에게서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지만, 여자 중·고등학생의 어머니와의 대화빈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학업성적이나 가정경제 수준에 상관없이 어머니와의 대화빈도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높게 관찰되고 있다.

〈표 III-2-19〉 학교선생님과의 대화빈도 (초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6.2	23.1	40.6	23.7	6.4	100(2530)	
성별	남	7.2	24.0	39.6	22.7	6.5	100(1286)	7.445
	여	5.1	22.2	41.6	24.7	6.4	100(1244)	
학업 성적	하	11.6	29.3	34.8	19.5	4.7	100(379)	85.192***
	중	5.7	26.2	42.6	20.0	5.5	100(1161)	
	상	4.6	17.1	40.4	29.6	8.2	100(992)	
가족 구성	양부모	6.0	23.4	40.4	23.8	6.4	100(2299)	8.005
	한부모	7.1	21.0	42.9	22.9	6.2	100(210)	
	조손가정	8.7	8.7	43.5	21.7	17.4	100(23)	
경제 수준	하	9.8	24.4	36.6	14.6	14.6	100(41)	49.126***
	중	5.7	24.7	41.8	23.2	4.5	100(1778)	
	상	6.9	19.0	37.9	25.5	10.7	100(707)	

선생님과의 대화정도에 대해 전체초등학생의 30.1%가 ‘자주한다’ 이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성별 간 비슷한 빈도비율로 관찰되었다.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 일수록 선생님과 대화빈도가 높았으며, 가족구성 유형별 비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정경제수준 별 집단 간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I-2-20〉 학교선생님과의 대화빈도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9.8	33.3	41.2	13.5	2.3	100(6952)	
성별	남	9.1	30.2	42.8	15.1	2.8	100(3530)	49.783***
	여	10.5	36.4	39.5	11.8	1.8	100(3422)	
교급	중	8.3	30.6	41.7	16.4	3.0	100(3157)	75.150***
	고	11.0	35.4	40.7	11.0	1.8	100(3766)	
학업 성적	하	12.2	36.1	39.7	10.1	1.9	100(2408)	114.242***
	중	9.1	33.2	42.9	12.5	2.3	100(2695)	

가족 구성	상	7.5	29.8	40.4	19.4	2.8	100(1832)	8.491
	양부모	9.7	33.3	41.1	13.5	2.4	100(5894)	
	한부모	9.1	33.0	43.2	13.2	1.5	100(878)	
	조손가정	14.4	30.0	35.6	17.8	2.2	100(90)	
경제 수준	하	15.6	35.6	33.7	13.2	1.9	100(514)	46.502***
	중	9.3	33.5	42.0	13.1	2.2	100(5822)	
	상	9.0	29.5	40.3	17.3	4.0	100(601)	

선생님과의 대화정도에 대해(<표 III-2-20>) 전체 중·고등학생의 15.8%가 ‘자주한다’ 이상으로 답변하고 있어 초등학생에 비해 선생님과 대화의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생 성별 간 비교에서 남학생의 빈도비율이 교급 간 비교에서 중학생 청소년의 빈도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 일수록 선생님과 대화빈도가 높았으며, 가족구성 유형별 비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정경제수준 별 집단 간 비교에서 상위집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중간집단과 하위집단 간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I-2-21>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평균 (하루기준)(초등학생)

(단위: %)

구 분		1시간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6.2	28.1	25.5	14.8	7.3	8.1	100(2330)	
성별	남	16.7	27.0	24.7	14.8	6.8	10.0	100(1178)	14.133*
	여	15.7	29.3	26.2	14.8	7.9	6.1	100(1152)	
학업 성적	하	12.7	27.1	22.3	14.4	10.7	12.7	100(354)	28.770**
	중	16.1	27.1	27.4	14.3	7.1	8.0	100(1069)	
	상	17.8	29.6	24.4	15.5	6.3	6.4	100(908)	
가족 구성	양부모	16.6	28.5	25.3	14.8	7.0	7.8	100(2113)	14.149
	한부모	11.7	25.0	29.1	14.3	9.7	10.2	100(196)	
	조손가정	18.2	18.2	13.6	18.2	18.2	13.6	100(22)	
경제 수준	하	20.0	31.4	20.0	11.4	8.6	8.6	100(35)	18.011
	중	15.2	26.9	26.2	15.5	8.4	7.9	100(1650)	
	상	18.4	31.1	24.1	13.3	4.7	8.4	100(640)	

하루에 활용가능 한 여가시간에 대해(<표 Ⅲ-2-21>) 평균 1~2시간 정도 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의 비율(28.1%)이 가장 높았으며, 2~3시간은 25.5%였다. 남녀 간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학업성적 수준에 따른 비교에서 성적하위집단의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가족구성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보다는 한부모가정이 한부모보다는 조손가정 초등학생의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빈도가 높았다. 경제수준 변인별 비교에서 집단 간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Ⅲ-2-22>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평균(하루 기준)(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1시간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9.8	27.1	21.9	12.4	8.9	9.9	100(6594)	
성별	남	19.3	26.3	22.3	12.9	8.8	10.5	100(3311)	6.056
	여	20.3	28.0	21.6	12.0	8.9	9.3	100(3283)	
교급	중	12.4	25.5	25.7	14.8	10.8	10.9	100(2927)	236.971***
	고	25.9	28.4	18.8	10.6	7.3	9.1	100(3639)	
학업 성적	하	16.8	22.8	22.3	13.3	10.9	13.9	100(2297)	140.040***
	중	19.2	29.0	22.5	12.5	8.3	8.5	100(2552)	
	상	24.6	29.9	20.8	11.2	6.9	6.6	100(1730)	
가족 구성	양부모	20.8	28.3	22.0	12.1	8.0	8.7	100(5566)	109.901***
	한부모	14.8	21.1	20.4	14.4	13.5	15.7	100(852)	
	조손가정	9.1	21.6	29.5	9.1	14.8	15.9	100(88)	
경제 수준	하	19.0	20.0	21.0	15.1	9.4	15.5	100(510)	35.367***
	중	19.7	27.9	21.8	12.2	8.9	9.5	100(5513)	
	상	20.8	26.3	24.2	12.5	8.1	8.1	100(558)	

하루에 활용가능 한 여가시간에 대해 평균 1~2시간 정도 된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의 비율(27.1%)이 가장 높았으며, 2~3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1.9%였다. 남녀 간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학업성적 수준에 따른 비교에서 성적하위집단의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가족구성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보다는 한부모가정이 한부모보다는 조손가정 중·고등학생의 활용가능한 여가시간 빈도가 높았다. 경제수준 변인

별 비교에서 집단 간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I-2-23>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지각(초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7.8	11.4	23.1	30.3	27.4	100(2553)	
성별	남	10.6	11.1	20.6	29.1	28.6	100(1306)	35.942***
	여	5.0	11.6	25.8	31.5	26.1	100(1247)	
학업 성적	하	10.4	14.8	20.6	26.0	28.1	100(384)	20.042*
	중	6.78	9.8	23.5	33.2	26.6	100(1170)	
	상	8.0	11.8	23.8	28.5	28.0	100(1001)	
가족 구성	양부모	7.8	11.5	23.8	29.9	27.0	100(2321)	15.475
	한부모	8.1	10.1	18.5	34.6	28.9	100(211)	
	조손가정	4.3	13.0	0	30.4	52.3	100(23)	
경제 수준	하	18.6	16.3	20.9	27.9	16.3	100(43)	31.375***
	중	7.5	11.3	24.9	31.1	25.3	100(1792)	
	상	8.0	11.2	18.9	28.4	33.5	100(714)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 ‘그렇다’ 이상을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의 비율은 57.7%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지만 성별 및 학업성적 변인에 의한 집단 간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가족구성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보다 조손가정 초등학생의 여가시간이 충분 하다고 응답한 빈도비율이 높았다. 경제수준 변인별 비교에서 상위 및 중간집단이 하위집단 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표 III-2-24>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지각(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5.3	25.0	29.0	19.4	11.2	100(6987)	
성별	남	15.5	22.9	29.3	19.9	12.5	100(3546)	24.940***
	여	15.2	27.2	28.8	19.0	9.9	100(3441)	

교급	중	10.7	20.3	30.6	23.5	14.9	100(3174)	260.760 ^{***}
	고	19.3	28.9	27.8	16.0	8.0	100(3783)	
학업 성적	하	15.7	25.3	27.8	18.3	12.8	100(2416)	31.669 ^{***}
	중	13.7	24.9	31.5	19.6	10.3	100(2712)	
	상	17.3	24.7	26.8	20.7	10.4	100(1841)	
가족 구성	양부모	15.8	25.6	29.2	19.1	10.4	100(5919)	35.849 ^{***}
	한부모	12.6	21.3	28.9	21.6	15.6	100(886)	
	조손가정	11.1	25.6	25.6	21.1	16.7	100(90)	
경제 수준	하	20.5	23.6	24.4	16.4	15.1	100(517)	34.882 ^{***}
	중	14.8	25.5	29.5	19.6	10.6	100(5852)	
	상	16.4	21.3	27.9	20.6	13.8	100(602)	

중·고등학생의 경우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표 III-2-24>) ‘그렇다’ 이상을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의 비율은 30.6%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지만 성별, 학업성적 변인 및 가정구성 유형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는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교급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청소년의 여가시간의 충분성에 대한 빈도비율이 높았다. 경제수준 변인별 비교에서 상위집단이 중간집단이나 하위집단 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어떻게 휴일을 보내는지에 대해(<표 III-2-25>) 전체 초등학생의 20.6%가 게임하기, 친구와 놀기 17.2%, 15.1%는 TV시청으로 응답했다. 남녀 초등학생 간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남자의 경우 게임에 대한 응답비율이 31.2%로 여자(9.6%)보다 매우 높은 빈도를 보였다. 운동의 경우도 남자는 12.1%로 여자의 4.3%보다 매우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학업성적 상위 집단의 경우 공부와 독서의 경우 중간 및 하위집단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게임의 경우 가족구성 유형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양부모에 비해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초등학생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5〉 휴일을 보내는 방법(1순위)(초등학생)

(단위: %)

구 분		공부	독서	TV 시청	게임(인터넷 게임 포함)	인터넷(정보 검색과 숙제)	친구와 놀기	음악, 화화 등 취미 활동	문화, 예술 행사 관람(영화, 음악회 등)	운동	휴대폰으로 대화하기	쇼핑	집에서 휴식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8.8	6.5	15.1	20.6	2.2	17.2	5.3	2.0	8.3	1.6	1.7	8.6	2.1	100(2491)	
성별	남	8.9	4.4	12.2	31.2	1.6	16.2	2.6	1.6	12.1	0.9	0.4	6.2	1.8	100(1273)	316.184***
	여	8.8	8.7	18.1	9.6	2.9	18.2	8.1	2.5	4.3	2.5	3.1	10.8	2.5	100(1218)	
학업 성적	하	6.8	4.9	18.6	22.2	0.5	17.3	3.5	2.7	9.2	3.2	0.5	8.4	2.2	100(370)	78.881***
	중	8.0	4.9	14.0	21.8	1.8	20.6	5.8	1.3	8.6	1.3	1.7	8.6	1.7	100(1143)	
	상	10.7	9.0	15.1	18.7	3.4	13.2	5.4	2.6	7.6	1.4	2.2	8.3	2.6	100(980)	
가족 구성	양부모	9.0	6.7	15.7	19.9	2.4	17.3	5.3	1.9	8.4	1.6	1.7	8.4	1.9	100(2266)	28.971
	한부모	7.8	5.4	9.8	27.8	1.0	16.6	5.9	2.4	6.8	2.0	2.0	8.8	3.9	100(205)	
	조손가정	4.5	0	9.1	31.8	0	13.6	4.5	4.5	9.1	0	4.5	9.1	9.1	100(22)	
경제 수준	하	14.6	4.9	12.2	19.5	0	12.2	7.3	0	19.5	0	0	9.8	0	100(41)	69.922***
	중	8.0	6.5	16.7	20.9	2.5	18.0	5.0	1.5	6.7	1.9	1.3	9.1	1.8	100(1749)	
	상	10.8	6.7	11.3	19.9	1.9	15.4	5.9	3.3	11.3	1.0	2.9	6.5	3.2	100(697)	

어떻게 휴일을 보내는지에 대해(<표 III-2-26>) 전체 중·고등학생의 25.5%가 게임하기, 19.9%는 TV시청, 친구와 놀기 13.3%로 나타났다. 남녀 초등학생 간 서로 다른 유형의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남자의 경우 게임에 대한 응답비율이 40.8%로 여자(9.8%)보다 매우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운동의 경우도 남자는 5.7%로 여자의 0.6%보다 매우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교급 간 유사한 유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업성적 상위 집단의 경우 공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간 및 하위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게임의 경우 가족구성 유형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양부모에 비해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중·고등학생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6>휴일을 보내는 방법 (1순위)(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공부	독서	TV 시청	게임(인터넷 게임 포함)	인터넷(정보 검색과 숙제)	친구와 놀기	음악, 회화 등 취미 활동	문화, 예술 행사 관람(영화, 음악회 등)	운동	휴대폰으로 대화하기	쇼핑	집에서 휴식	기타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7.5	2.6	19.9	25.5	6.2	13.3	5.6	1.4	3.2	3.0	1.1	9.2	1.5	100(6854)	
성별	남	7.9	2.5	11.5	40.8	3.5	14.4	4.1	0.9	5.7	1.2	0.4	5.7	1.3	100(3467)	1365.437***
	여	7.1	2.7	28.4	9.8	8.9	12.2	7.2	1.9	0.6	4.8	1.9	12.7	1.7	100(3387)	
교급	중	6.2	3.3	19.2	29.0	4.2	12.7	5.6	1.4	3.4	3.3	1.3	8.8	1.6	100(3085)	92.696***
	고	8.6	2.0	20.5	22.7	7.8	13.7	5.6	1.4	3.0	2.6	1.0	9.4	1.5	100(3740)	
학업 성적	하	4.6	2.3	18.9	26.1	5.7	17.3	5.8	1.3	3.2	4.1	1.2	7.9	1.7	100(2359)	152.354***
	중	7.3	2.2	21.1	25.6	6.3	11.9	5.5	1.4	3.6	2.7	0.9	9.8	1.6	100(2663)	
	상	11.6	3.4	19.3	24.8	6.6	10.2	5.6	1.4	2.6	2.1	1.4	9.7	1.3	100(1816)	
가족 구성	양부모	7.9	2.5	20.6	24.7	6.1	13.2	5.5	1.3	3.4	3.0	1.2	9.3	1.5	100(5809)	52.972**
	한부모	5.6	2.6	16.3	29.5	6.6	13.8	7.1	1.6	2.2	3.0	0.9	8.9	1.8	100(870)	
	조손가정	4.7	5.8	14.0	38.4	3.5	11.6	1.2	0.0	4.7	1.2	3.5	8.1	3.5	100(86)	
경제 수준	하	7.0	2.9	17.1	30.5	5.8	13.6	4.3	1.0	2.9	3.1	1.0	8.0	2.7	100(514)	80.163***
	중	7.1	2.5	20.6	25.3	6.4	13.2	5.7	1.4	3.0	3.0	1.0	9.3	1.4	100(5744)	
	상	12.0	3.1	15.1	23.5	4.1	12.9	5.8	1.4	5.8	3.3	2.9	8.9	1.0	100(582)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해(<표 III-2-27>)전체 초등학생의 39.4%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주변의 여가시설이 충분하다(그렇다를 기준으로)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녀 초등학생 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여가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가정경제수준이 어려울 수록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초등학생과는 달리 중·고등학생의 경우(<표 III-2-28>)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주변의 여가시설이 충분하다(그렇다를 기준으로)는 빈도비율(11.4%)로 나타났다. 남녀 중·고등학생 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교급변인과 학업성적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었으나, 실제로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수준 변인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여가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27〉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초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8.4	18.2	34.1	25.0	14.4	100(2545)	
성별	남	8.6	16.3	33.8	24.7	16.6	100(1297)	14.252**
	여	8.2	20.2	34.4	25.2	12.1	100(1248)	
학업 성적	하	10.3	18.0	33.6	22.8	15.3	100(378)	15.297
	중	7.8	19.0	35.2	26.1	11.9	100(1171)	
	상	8.3	17.3	33.0	24.4	16.9	100(998)	
가족 구성	양부모	8.3	17.8	34.2	25.4	14.3	100(2311)	11.247
	한부모	9.4	21.1	32.9	22.1	14.6	100(213)	
	조손가정	4.3	34.8	34.8	4.3	21.7	100(23)	
경제 수준	하	25.6	27.9	16.3	11.6	18.6	100(43)	88.730***
	중	8.4	19.5	36.3	24.8	10.9	100(1781)	
	상	7.1	14.5	29.7	26.1	22.6	100(717)	

〈표 III-2-28〉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2.2	36.8	29.6	8.7	2.7	100(6969)	
성별	남	20.2	34.0	32.3	10.1	3.4	100(3532)	71.913***
	여	24.2	39.6	36.9	7.2	2.1	100(3437)	
교급	중	17.2	34.4	34.9	10.6	2.9	100(3162)	158.193***
	고	26.5	38.7	25.2	7.0	2.6	100(3777)	
학업 성적	하	22.7	36.1	31.1	7.4	2.7	100(2410)	37.907***
	중	20.7	36.2	31.5	9.2	2.3	100(2703)	
	상	23.7	38.6	24.8	9.5	3.4	100(1838)	
가족 구성	양부모	22.2	36.5	29.8	8.7	2.8	100(5907)	6.874
	한부모	23.0	39.0	27.6	8.4	2.0	100(884)	
	조손가정	19.3	34.1	34.1	8.0	4.5	100(88)	
경제 수준	하	32.4	37.8	19.5	6.8	3.5	100(518)	112.649***
	중	21.6	37.4	30.5	8.1	2.4	100(5836)	
	상	19.5	38.5	29.9	16.0	5.0	100(599)	

다음으로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29>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가정)(초등학생)

(단위: %)

구 분		매우 불만족이 다	불만족이 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9	3.7	18.6	30.7	45.4	100(2573)	
성별	남	2.4	2.6	20.2	29.9	44.9	100(1319)	16.472**
	여	1.4	4.8	17.0	31.5	45.4	100(1254)	
학업 성적	하	6.0	6.74	24.4	26.4	36.5	100(386)	92.379***
	중	1.1	3.4	21.1	30.6	43.8	100(1185)	
	상	1.3	2.8	13.4	32.4	20.1	100(1004)	
가족 구성	양부모	1.7	3.3	18.1	31.0	45.9	100(2337)	27.717**
	한부모	4.2	7.4	22.8	28.8	36.7	100(215)	
	조손가정	4.3	8.7	26.1	13.0	47.8	100(23)	
경제 수준	하	14.0	16.3	23.3	27.9	18.6	100(43)	194.196***
	중	1.8	3.9	22.1	33.6	38.6	100(1803)	
	상	1.5	2.2	9.5	23.5	63.2	100(723)	

<표 III-2-30>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가정)(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매우 불만족이 다	불만족이 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2	9.4	29.6	38.0	19.8	100(6996)	
성별	남	3.4	8.5	29.4	38.0	20.8	100(3552)	11.609*
	여	3.1	10.5	29.8	37.9	18.7	100(3444)	
교급	중	3.3	8.0	29.2	36.0	23.6	100(3183)	61.044***
	고	3.2	10.7	29.9	39.6	16.6	100(3783)	
학업 성적	하	5.2	11.9	34.4	32.8	15.8	100(2417)	188.576***
	중	1.9	8.0	29.7	40.6	19.7	100(2719)	
	상	2.4	8.4	23.0	41.0	25.2	100(1843)	
가족 구성	양부모	2.7	8.3	28.6	39.2	21.2	100(5928)	161.364***
	한부모	5.4	15.0	35.5	32.0	12.1	100(887)	
	조손가정	11.2	24.7	31.5	24.7	7.9	100(89)	
경제 수준	하	14.5	24.9	29.9	21.8	8.9	100(518)	586.237***
	중	2.3	8.5	30.5	40.0	18.8	100(5859)	
	상	2.3	5.3	20.5	32.8	39.1	100(604)	

먼저, ‘만족한다’ 이상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76.1%였으며, 성별과 학업성적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가족구성유형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이 한부모나 조손가정보다 다소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여주었다. 가정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는데,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표 III-2-29>).

중·고등학교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만족한다 이상을 기준으로)는 57.8%였으며, 성별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교급 간 비교에서 중학생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만족도 수준이 고등학교 청소년보다 높았다.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비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는데,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가족구성유형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이 한부모나 조손가정보다 다소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여주었다(<표 III-2-30>).

<표 III-2-31>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친구)(초등학교)

(단위: %)

구 분		매우 불만족이다	불만족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5	4.8	21.9	32.5	38.4	100(2562)	
성별	남	2.8	3.7	21.6	30.7	41.2	100(1312)	17.251**
	여	2.1	6.1	22.1	34.3	35.4	100(1250)	
학업 성적	하	4.9	6.8	26.3	29.4	32.6	100(384)	66.138***
	중	2.2	5.0	25.9	31.2	35.7	100(1180)	
	상	1.8	3.9	15.3	35.1	43.9	100(1000)	
가족 구성	양부모	2.4	4.6	21.2	33.0	38.9	100(2326)	16.037*
	한부모	3.3	6.5	27.4	28.8	34.0	100(215)	
	조손가정	4.3	13.0	34.8	13.0	34.8	100(23)	
경제 수준	하	4.8	16.7	26.2	31.0	21.4	100(42)	125.452***
	중	2.4	5.0	25.5	34.4	32.6	100(1797)	
	상	2.4	3.6	12.7	27.5	53.8	100(719)	

초등학생의 친구 만족도(만족한다 이상을 기준으로)는 70.7%였으며, 성별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있었지만, 그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았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상위집단과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친구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가족구성유형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이 한부모 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보다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여주었다(<표 III-2-31>).

<표 III-2-32>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친구)(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매우 불만족이다	불만족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6	4.3	27.3	44.8	22.0	100(6991)	
성별	남	1.7	3.3	25.6	44.3	25.0	100(3549)	54.653***
	여	1.5	5.3	29.1	45.3	18.9	100(3442)	
교급	중	2.0	4.1	25.6	41.9	26.4	100(3182)	76.256***
	고	1.2	4.5	28.8	47.1	18.3	100(3779)	
학업 성적	하	2.6	5.7	30.6	39.7	21.4	100(2413)	94.741***
	중	1.2	3.3	27.6	46.4	21.5	100(2717)	
	상	0.9	3.8	22.5	49.0	23.9	100(1844)	
가족 구성	양부모	1.4	4.3	26.6	45.4	22.3	100(5925)	29.578***
	한부모	2.5	4.0	31.4	41.5	20.7	100(886)	
	조손가정	4.5	9.0	34.8	34.8	16.9	100(89)	
경제 수준	하	5.0	8.7	33.3	35.2	17.8	100(517)	190.554***
	중	1.3	4.0	27.7	46.2	20.8	100(5855)	
	상	1.8	3.0	18.2	39.1	37.9	100(604)	

중·고등학생의 친구 만족도(만족한다 이상을 기준으로)는 64.8%였으며, 성별과 교급 변인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있었지만,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았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상위집단과 중간집단이 하위집단 보다 친구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가족구성유형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이 한부모 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표 III-2-32>).

〈표 III-2-33〉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학교)(초등학생)

(단위: %)

구 분		매우 불만족이 다	불만족이 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6	5.5	29.1	34.6	28.2	100(2567)	
성별	남	3.1	6.0	29.9	32.6	28.3	100(1314)	7.860
	여	2.0	4.9	28.3	36.6	28.2	100(1253)	
학업 성적	하	6.0	10.4	38.3	26.0	19.3	100(384)	127.728***
	중	1.7	4.9	33.4	34.6	25.4	100(1182)	
	상	2.3	4.3	20.5	37.8	35.1	100(1003)	
가족 구성	양부모	2.3	5.5	28.7	35.0	28.6	100(2331)	20.186*
	한부모	4.7	6.0	34.0	30.7	24.7	100(215)	
	조손가정	13.0	0	30.41	26.1	30.4	100(23)	
경제 수준	하	7.1	23.8	28.6	33.3	7.1	100(42)	125.965***
	중	2.6	5.2	32.9	35.8	23.6	100(1801)	
	상	2.4	5.3	19.6	31.7	41.1	100(2563)	

만족한다 이상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62.8%였으며, 성별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변인에 따른 집단 간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가족구성유형별 비교에서 집단 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III-2-34〉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학교)(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매우 불만족 이다	불만족 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5.3	11.2	38.4	35.0	10.2	100(6994)	
성별	남	6.6	10.1	36.7	35.2	11.4	100(3550)	47.844***
	여	3.9	12.4	40.1	34.7	8.9	100(3444)	
교급	중	5.4	9.1	35.7	36.3	13.5	100(3182)	101.867***
	고	5.2	13.0	40.7	33.9	7.3	100(3782)	
학업 성적	하	7.9	14.0	43.3	27.6	7.2	100(2414)	226.861***
	중	3.8	10.1	38.9	36.9	10.3	100(2719)	
	상	4.1	9.1	31.2	41.8	13.9	100(1844)	

가족 구성	양부모	5.1	11.0	37.7	35.7	10.5	100(5927)	27.468**
	한부모	6.8	12.1	42.5	31.1	7.6	100(887)	
	조손가정	6.7	16.9	41.6	23.6	11.2	100(89)	
경제 수준	하	11.4	14.5	45.8	21.4	6.9	100(518)	186.184***
	중	4.6	11.2	39.1	35.7	9.4	100(5856)	
	상	6.1	7.9	26.0	39.8	20.2	100(605)	

청소년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만족한다 이상을 기준으로)는 45.2%였으며, 성별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교급 간 비교에서 중학생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비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는데,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가족구성유형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이 한부모 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보다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여주었다(<표 III-2-34>).

고민상담 대상에 대해(<표 III-2-35>) 전체 초등학생의 43.5%가 어머니라고 응답했으며, 그 뒤로 동성친구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자매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3%에 달했다. 남녀 간 비교에서 여자초등학생의 경우는 어머니로 남자초등학생의 경우는 아버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낮을 수록 상담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 유사한 유형의 패턴이 관찰되었다.

<표 III-2-35> 고민 상담 대상(초등학생)

(단위: %)

구 분		아버지	어머니	동성친구	이성친구	선생님	상담사	형제자매	채팅상대나 메일친구	기타	상담대상이 없음	고민이 없음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7	43.5	14.0	1.7	1.0	0.7	3.9	1.7	2.3	13.0	13.6	100(2475)	
성별	남	6.9	40.2	8.5	1.4	0.6	0.6	2.8	1.3	2.7	15.8	19.1	100(1270)	181.338***
	여	2.3	47.0	19.8	1.9	1.3	0.8	5.0	2.1	2.0	10.0	7.8	100(1205)	
학업 성적	하	4.6	34.2	13.7	2.7	1.1	1.3	4.9	3.5	2.7	19.7	11.6	100(371)	53.632***
	중	4.5	44.0	14.2	1.7	0.9	1.0	3.8	1.5	2.8	12.2	13.5	100(1144)	

가족 구성	상	5.0	46.5	13.8	1.1	1.0	0.1	3.6	1.1	1.7	11.3	14.7	100(962)	60.057***
	양부모	4.5	44.1	14.7	1.5	0.8	0.7	3.7	1.5	2.2	12.5	13.8	100(2246)	
	한부모	6.6	39.6	7.1	2.8	2.4	1.4	5.7	3.8	2.4	17.5	10.8	100(212)	
	조손가정	10.5	15.8	5.3	5.3	0	0	0	0	15.8	15.8	31.9	100(19)	
경제 수준	하	2.6	41.0	10.3	2.6	5.1	0	0	0	5.1	28.2	5.1	100(39)	37.793**
	중	4.2	42.8	15.2	1.7	0.8	0.7	4.0	1.7	2.3	13.6	13.1	100(1746)	
	상	6.0	45.6	11.2	1.6	1.2	0.7	3.9	1.7	2.2	10.3	15.6	100(687)	

<표 III-2-36> 고민 상담 대상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아버지	어머니	동성 친구	이성 친구	선생님	상담사	형제, 자매	채팅 상대나 메일 친구	기타	상담 대상이 없음	고민이 없음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0	20.8	40.2	3.5	1.3	0.6	4.5	1.0	1.5	13.9	9.6	100(6704)	
성별	남	4.8	20.4	28.8	4.7	2.1	0.7	3.9	1.2	1.8	16.6	15.0	100(3438)	633.260***
	여	1.1	21.2	52.2	2.3	0.5	0.5	5.2	0.8	1.3	11.1	3.8	100(3266)	
교급	중	3.3	23.2	35.0	2.5	1.3	0.8	4.1	1.7	1.5	14.3	12.4	100(3063)	149.986***
	고	2.8	18.8	44.6	4.4	1.4	0.4	4.9	0.5	1.5	13.5	7.2	100(3614)	
학업 성적	하	3.5	16.0	42.8	4.7	1.1	0.9	4.8	1.0	1.7	14.0	9.6	100(2313)	92.235***
	중	2.2	21.8	40.0	3.0	1.3	0.6	4.3	1.0	1.7	14.0	10.1	100(2605)	
	상	3.5	25.5	37.1	2.6	1.7	0.3	4.5	1.1	1.1	13.7	8.6	100(1775)	
가족 구성	양부모	2.9	21.7	40.2	3.4	1.3	0.6	4.8	1.0	1.3	13.4	9.6	100(5671)	60.148***
	한부모	3.7	17.5	39.3	4.4	1.6	0.6	2.7	1.5	2.7	16.9	9.0	100(857)	
	조손가정	4.5	6.8	40.9	4.5	1.1	1.1	5.7	0	5.7	18.2	11.4	100(88)	
경제 수준	하	3.0	13.9	34.9	6.5	1.4	0.8	4.4	1.2	2.2	23.6	7.9	100(495)	119.676***
	중	2.8	21.1	41.5	3.2	1.2	0.6	4.6	1.0	1.5	13.4	9.3	100(5617)	
	상	5.0	24.3	32.2	4.0	2.9	0.9	4.3	1.4	1.4	10.2	13.4	100(580)	

고민상담 대상에 대해(<표 III-2-36>) 전체 중·고등학생의 40.2%가 동성친구라고 응답했으며,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20.8%, 그 뒤로 형제자매, 이성친구의 순으로 따르고 있다. 상담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3.9%에 달했다. 남녀 간 비교에서 여자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동성친구로 응답한 빈도가 압도적으로 관찰되었으며, 남자초등학생의 경우는 동성친구와 어머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급 간 비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동성친구에 대한 응답률이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 상위층으로 갈수록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Ⅲ-2-37> 고민거리 유형별 우선순위(1순위)(초등학생)

(단위: %)

구 분		공부 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 문제로	운동 할 시간 이 없어서	제대 로 밥을 먹을 시간 이 없어서	여가 시간을 따분하게 보내서	부모 님이 자주 안게서서	성차 별 때문에	외모 나 신체 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정 편이 어려 워서	몸이 아파서	가족 끼리 사이 가 좋지 않아서	용돈 이 적어서	특별 한 고민 이 없음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2.8	8.5	3.8	0.7	9.6	3.9	1.3	3.6	0.8	1.3	2.1	4.9	12.5	4.3	100(2512)	
성별	남	43.2	6.3	4.6	0.86	9.6	3.6	1.6	2.1	0.6	1.3	2.4	7.2	13.4	3.5	100(1287)	76.174 ^{***}
	여	42.4	10.8	2.9	0.8	9.6	4.2	1.0	5.2	1.1	1.2	1.7	2.4	11.7	5.1	100(1225)	
학업 성적	하	49.9	8.3	2.1	1.6	7.8	4.0	1.1	3.5	1.6	1.1	1.6	3.8	8.6	5.1	100(373)	44.665 [*]
	중	42.7	9.7	3.6	0.7	8.7	4.3	1.3	3.2	0.8	1.4	2.5	5.1	12.3	3.6	100(1151)	
	상	40.2	7.1	4.5	0.4	11.3	3.3	1.3	4.1	0.6	1.2	1.7	5.1	14.3	4.7	100(990)	
가족 구성	양부모	43.5	8.7	3.7	0.78	9.7	3.4	1.4	3.7	0.6	1.2	1.8	5.1	12.5	4.1	100(2287)	69.352 ^{***}
	한부모	34.6	5.4	4.9	1.0	9.3	8.3	0.5	2.9	3.4	2.0	5.4	2.9	13.2	6.3	100(205)	
	조손가정	45.5	13.6	0	0	4.5	13.6	0	0	4.5	0	0	0	13.6	4.5	100(22)	
경제 수준	하	54.8	7.1	0	2.4	7.1	0	0	2.4	7.1	0	.4	4.8	7.1	4.8	100(42)	69.292 ^{***}
	중	43.1	9.3	3.2	0.9	9.9	3.7	0.9	3.8	1.0	1.1	2.3	4.7	12.3	3.8	100(1759)	
	상	41.2	6.5	5.5	0.1	9.1	4.5	2.3	3.3	0	1.7	1.4	5.4	13.7	5.4	100(707)	

고민거리 유형별 우선순위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고민거리에 대한 응답 중 전체의 42.8%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뒤로 여가시간에 대한 부분이 9.6%, 친구문제로 인한 고민이 8.5%였다. 남녀 초등학생 간 고민유형별 응답순위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성적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 하위집단에서 상위집단으로 갈수록 공부로 인한 고민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경제수준이 어려운 초등학생일수록 보다 많은 관찰빈도를 보여준다.

<표 Ⅲ-2-38> 고민거리 유형별 우선순위(1순위)(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 문제로	운동 할 시간 이 없어서	제대 로 밥을 먹을 시간 이 없어서	여가 시간을 따분하게 보내서	부모 님이 자주 안게서서	성차 별 때문에	외모 나 신체 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정 편이 있어 서	질병 이 있어서	가족 끼리 사이 가 좋지 않아서	용돈 이 적어서	특별 한 고민 이 없음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63.0	8.7	2.	0.5	4.1	0.8	0.6	5.6	1.9	0.7	2.9	3.4	3.6	1.9	100(6888)	
성별	남	62.5	6.7	3.3	0.7	5.4	0.8	0.7	3.8	2.0	1.0	2.6	4.0	4.6	1.9	100(3485)	190.589 ^{***}
	여	63.6	10.9	1.1	0.3	2.7	0.7	0.5	7.4	1.9	0.4	3.3	2.7	2.6	1.9	100(3403)	

교급	중	60.4	9.8	2.2	0.5	5.0	1.0	0.5	5.6	1.5	0.6	3.1	3.2	5.1	1.6	100(3111)	78.779 ^{***}
	고	65.2	7.8	2.3	0.5	3.4	0.6	0.7	5.6	2.3	0.9	2.8	3.5	2.3	2.1	100(3748)	
학업 성적	하	56.4	9.7	2.5	0.8	4.0	1.0	0.8	6.4	2.6	0.8	4.2	5.0	3.7	2.3	100(2376)	117.671 ^{***}
	중	66.6	8.4	1.8	0.3	4.0	0.6	0.4	5.2	1.5	0.6	2.6	3.0	3.4	1.7	100(2677)	
	상	66.6	8.0	2.6	0.5	4.3	0.6	0.7	5.1	1.8	0.9	1.6	2.0	3.6	1.6	100(1820)	
가족 구성	양부모	65.3	8.7	2.3	0.4	4.1	0.5	0.5	5.2	1.3	0.7	2.5	3.2	3.6	1.8	100(5843)	218.403 ^{***}
	한부모	51.5	9.2	1.8	1.1	3.6	2.1	1.1	7.6	6.1	1.1	5.1	4.6	2.9	2.2	100(870)	
	조손가정	41.9	12.8	3.5	1.2	3.5	3.5	0	9.3	4.7	2.3	5.8	2.3	7.0	2.3	100(86)	
경제 수준	하	41.1	11.0	3.3	1.0	2.5	1.6	1.2	7.0	15.3	1.0	6.7	4.3	1.4	2.7	100(511)	630.280 ^{***}
	중	64.9	8.7	2.0	0.5	4.1	0.7	0.5	5.4	1.0	0.7	2.6	3.5	3.6	1.8	100(5771)	
	상	64.2	7.3	3.9	0.7	5.2	0.5	1.0	5.7	0	0.5	2.7	1.5	4.9	1.9	100(592)	

중·고등학생의 고민거리에 대한 응답 중 전체 중·고등학생의 63.8%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뒤로 친구문제로 인한 고민이 8.7%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 중·고등학생 간 고민유형별 응답순위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학업성적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 하위집단에서 응답비율이 중간 및 상위집단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경제수준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일수록 보다 중간층이나 상위층의 중·고등학생들보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관찰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9> 부모자녀관계 (초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6.73	1.37	-1.431	-
	여	6.80	1.29		
학업 성적	하	6.27	1.55	37.965 ^{***}	1<2,3 2<3
	중	6.72	1.29		
	상	6.98	1.24		
경제 수준	하	5.62	1.86	35.931 ^{***}	1<2,3 2<3
	중	6.68	1.29		
	상	7.06	1.31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에서(<표 III-2-39>) 남녀 초등학생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업성적과 가정경제 수준 별 집단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공부를 잘하고 집안이 잘 살수록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정도가 높았다.

<표 III-2-40> 부모자녀관계 (중·고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6.14	1.38	1.994 [*]	-
	여	6.07	1.36		
교급	중	6.12	1.42	.842	-
	고	6.0	1.33		
학업 성적	하	5.90	1.44	46.807 ^{***}	1<2,3 2<3
	중	6.16	1.31		
	상	6.30	1.33		
경제 수준	하	5.64	1.64	48.789 ^{***}	1<2,3 2<3
	중	6.12	1.32		
	상	6.45	1.49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남녀 중·고등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남자 중·고등학생의 긍정적 관계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급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중·고등학생 일수록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정도가 높았다.

<표 III-2-41> 우울감 (초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5.39	3.09	-8.372 ^{***}	-
	여	6.51	3.66		
학업 성적	하	6.87	3.73	17.468 ^{***}	1>2,3
	중	5.84	3.35		
	상	5.69	3.33		
가족 구성	양부모	5.87	3.40	5.609 ^{**}	1<2
	한부모	6.50	3.55		
	조손가정	7.43	4.05		
경제 수준	하	8.09	3.86	19.331 ^{***}	1>2,3 2>3
	중	6.09	3.41		
	상	5.41	3.33		

초등학생의 우울감 조사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초등학생이 남자초등학생보다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비교에

서도 상위, 중간 및 하위집단 간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하위집단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 초등학생의 우울감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한부모, 조손가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I-2-41>).

중·고등학생의 우울감(<표 III-2-42>)은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었다. 교급 간 비교에서 중학생 청소년에 비해 고등학생 청소년의 우울수준이 높았으며, 학업성적에 따른 비교에서 성적 하위집단의 우울수준이 상위 및 중간 집단보다 높았다.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비교에서도 상위, 중간 및 하위집단 간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중간집단, 하위집단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이 양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 보다 유의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42> 우울감 (중·고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7.25	3.46	-27.939***	-
	여	9.55	3.42		
교급	중	7.70	3.67	-14.570***	*
	고	8.95	3.49		
학업 성적	하	8.66	3.65	11.272***	1>2,3
	중	8.26	3.58		
	상	8.38	3.63		
가족 구성	양부모	8.34	3.61	3.419*	1<2
	한부모	8.68	3.70		
	조손가정	8.40	3.95		
경제 수준	하	9.41	3.76	32.954***	1>2,3 2>3
	중	8.36	3.58		
	상	7.66	3.77		

<표 III-2-43> 학업스트레스 (초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5.64	2.75	-4.250***	-

	여	6.01	2.67		
학업 성적	하	6.99	2.72	53.709 ^{***}	1>2,3 2>3
	중	5.94	2.60		
	상	5.34	2.72		
가족 구성	양부모	5.84	2.72	1.295	-
	한부모	6.02	2.75		
	조손가정	6.61	2.78		
경제 수준	하	6.79	2.81	13.879 ^{***}	1,2>3
	중	6.00	2.65		
	상	5.44	2.83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남녀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초등학생이 남자초등학생보다 유의수준에서 높았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각 변인에 대해 하위, 중간 및 상위집단 순으로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낮았으며, 한부모, 조손가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I-2-43>).

<표 III-2-44> 학업스트레스 (중·고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10.77	3.47	-15.745 ^{***}	-
	여	12.00	3.02		
교급	중	10.91	3.46	-10.824 ^{***}	-
	고	11.76	3.14		
학업 성적	하	11.59	3.39	17.200 ^{***}	1,2>3
	중	11.43	3.18		
	상	11.00	3.39		
가족 구성	양부모	11.45	3.25	8.369 ^{***}	1>2
	한부모	11.03	3.60		
	조손가정	10.63	3.73		
경제 수준	하	11.35	3.50	12.772 ^{***}	1,2>3
	중	11.44	3.26		
	상	10.72	3.62		

중·고등학생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성별변인에 의한 차이가 확

인되었는데 여자 중·고등학생이 남자 중·고등학생보다 높았다. 교급 간 비교에서 중학생 청소년에 비해 고등학생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학업성적에 따른 비교에서 학업스트레스 정도는 하위, 중간, 상위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비교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하위집단, 중간집단, 상위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과 달리 양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 조손가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45> 전반적인 행복감 (초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7.96	2.14	-.571	-
	여	8.01	2.08		
학업 성적	하	7.03	2.45	63.492***	1<2,3 2<3
	중	7.92	2.08		
	상	8.41	1.86		
가족 구성	양부모	8.02	2.08	5.829**	1>2
	한부모	7.65	2.28		
	조손가정	6.96	2.80		
경제 수준	하	6.02	2.82	56.897***	1<2,3 2<3
	중	7.79	2.10		
	상	8.58	1.92		

초등학생의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감에 대해 성별변인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수준 변인에 따라 상위집단, 중간집단, 하위집단의 순으로 행복감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구성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확인되었다.

<표 III-2-46> 전반적인 행복감 (중·고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6.72	2.14	6.453***	-
	여	6.40	2.05		

교급	중	6.86	2.14	11.179***	-
	고	6.30	2.03		
학업 성적	하	6.16	2.17	79.632***	1<2,3 2<3
	중	6.66	1.98		
	상	6.95	2.10		
가족 구성	양부모	6.61	2.09	11.197***	1>2,3
	한부모	6.32	2.13		
	조손가정	5.94	2.30		
경제 수준	하	5.54	2.21	96.727***	1<2,3 2<3
	중	6.58	2.04		
	상	7.26	2.24		

중·고등학생의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감에 대해(<표 III-2-46>) 성별변인과 교급 변인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여자에 비해 남자 중·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청소년에 비해 중학생 청소년의 행복감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은 중·고등학생 집단의 행복감 수준은 중간집단과 하위집단 보다 높았으며, 가족구성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확인되었는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중·고등학생의 행복감보다 높았다.

<표 III-2-47> 자아존중감 (초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10.33	2.87	-1.654	-
	여	10.51	2.66		
학업 성적	하	8.82	2.96	163.009***	1<2,3 2<3
	중	10.05	2.55		
	상	11.46	2.54		
가족 구성	양부모	10.53	2.73	23.619***	1>2
	한부모	9.20	2.89		
	조손가정	10.00	3.30		
경제 수준	하	8.33	3.18	68.935***	1<2,3 2<3
	중	10.09	2.65		
	상	11.35	2.79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각각의 변인에서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자존감

수준을 보여주었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은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초등학생보다 높은 자존감을 보였다.

<표 III-2-48> 자아존중감 (중·고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10.27	2.44	3.811 ***	-
	여	10.05	2.32		
교급	중	10.06	2.47	-3.351 **	-
	고	10.25	2.31		
학업 성적	하	9.59	2.41	152.801 ***	1<2,3 2<3
	중	10.20	2.22		
	상	10.85	2.38		
가족 구성	양부모	10.20	2.36	8.215 ***	1,2>3
	한부모	10.01	2.41		
	조손가정	9.32	2.89		
경제 수준	하	9.57	2.79	40.868 ***	1<2,3 2<3
	중	10.15	2.30		
	상	10.84	2.61		

중·고등학생 자아존중감 수준에서 성별 및 교급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고등학생 청소년이 중학생 청소년보다 높았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각각의 변인에서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보여주었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은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중·고등학생보다 높은 자존감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효능감 수준에서(<표 III-2-49>) 성별변인 의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변인에 집단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는데, 각각의 변인에서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여주었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은 한부모나 조손가정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았다.

<표 III-2-49> 자기효능감 (초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7.43	1.96	-2.263 [*]	-
	여	7.60	1.88		
학업 성적	하	6.54	2.24	116.129 ^{***}	1<2,3 2<3
	중	7.31	1.81		
	상	8.12	1.70		
가족 구성	양부모	7.57	1.89	12.538 ^{***}	1>2,3 2>3
	한부모	6.99	2.02		
	조손가정	6.48	2.71		
경제 수준	하	6.26	2.11	48.896 ^{***}	1<2,3 2<3
	중	7.32	1.87		
	상	8.06	1.92		

<표 III-2-50> 자기효능감 (중·고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7.29	1.77	2.899 ^{**}	-
	여	7.17	1.71		
교급	중	7.13	1.79	-4.491 ^{***}	-
	고	7.31	1.69		
학업 성적	하	6.83	1.79	132.089 ^{***}	1<2,3 2<3
	중	7.27	1.62		
	상	7.69	1.71		
가족 구성	양부모	7.25	1.73	1.981	-
	한부모	7.15	1.77		
	조손가정	7.00	2.00		
경제 수준	하	6.99	2.03	26.443 ^{***}	1<2,3 2<3
	중	7.21	1.69		
	상	7.69	1.87		

중·고등학생 자기효능감 수준에서(<표 III-2-50>) 성별 및 교급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고등학생 청소년이 중학생 청소년 보다 높았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각각의 변인에서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

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보여주었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은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중·고등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1〉 정서적 고립감 (초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4.92	2.82	-2.93**	-
	여	5.26	3.00		
학업 성적	하	6.19	3.56	41.324***	1>2,3 2>3
	중	5.14	2.88		
	상	4.62	2.55		
가족 구성	양부모	5.00	2.82	12.469***	1<2,3
	한부모	5.79	3.53		
	조손가정	7.04	4.53		
경제 수준	하	7.74	4.04	39.419***	1>2,3 2>3
	중	5.28	2.96		
	상	4.46	2.54		

초등학생이 느끼는 정서적 고립감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초등학생이 남자초등학생보다 높았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각 변인의 상위, 중간 및 하위집단 순으로 높은 수준의 고립감을 보여주었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 초등학생의 정서적 고립감이 가장 낮았으며, 한부모, 조손가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이 느끼는 정서적 고립감(〈표 III-2-52〉)은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성별변인에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여자 중·고등학생이 남자 중·고등학생보다 높았다. 교급 간 비교에서 중학생 청소년에 비해 고등학생 청소년의 정서적 고립감 수준이 높았으며, 학업성적에 따른 비교에서 하위, 중간, 상위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비교에서도 상위, 중간 및 하위집단 간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하위집단, 중간집단, 상위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2〉 정서적 고립감 (중·고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5.91	2.92	-12.121 ^{***}	-
	여	6.79	3.11		
교급	중	6.04	3.05	-7.655 ^{***}	-
	고	6.60	3.03		
학업 성적	하	6.74	3.20	35.575 ^{***}	1>2,3 2>3
	중	6.22	2.97		
	상	5.99	2.90		
가족 구성	양부모	6.29	3.01	5.576 ^{**}	1<2
	한부모	6.57	3.18		
	조손가정	7.01	3.67		
경제 수준	하	7.44	3.46	52.450 ^{***}	1>2,3 2>3
	중	6.31	2.98		
	상	5.60	3.02		

〈표 III-2-53〉 정서적 조절감 (초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7.16	1.95	-.966	-
	여	7.24	1.87		
학업 성적	하	6.59	2.09	55.566 ^{***}	1<2,3 2<3
	중	7.01	1.88		
	상	7.65	1.77		
가족 구성	양부모	7.25	1.87	11.510 ^{***}	1<2,3
	한부모	6.70	2.14		
	조손가정	6.22	2.54		
경제 수준	하	5.79	2.24	39.576 ^{***}	1<2,3 2<3
	중	7.05	1.86		
	상	7.66	1.92		

초등학생의 경우 정서조절감에 있어 성별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

데, 각각의 변인에서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정서조절능력을 보여주었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은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초등학생보다 정서조절감이 높았다(<표 III-2-53>).

<표 III-2-54> 정서적 조절감 (중·고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6.98	1.80	6.243***	-
	여	6.71	1.79		
교급	중	6.94	1.77	4.048***	-
	고	6.77	1.82		
학업 성적	하	6.68	1.85	17.336***	1<2,3
	중	6.89	1.71		
	상	7.00	1.85		
가족 구성	양부모	6.86	1.79	1.834	-
	한부모	6.74	1.84		
	조손가정	6.90	1.97		
경제 수준	하	6.56	2.00	15.093***	1<2,3 2<3
	중	6.84	1.75		
	상	7.15	2.00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및 교급 변인에 따른 정서조절감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 청소년이 고등학생 청소년 보다 높았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차이도 유의하게 확인되었는데, 각각의 변인에서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정서조절능력을 보여주었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표 III-2-54>).

다음으로 낙관성 수준에 대한 분석은 <표 III-2-55>과<표 III-2-56>에 제시되어 있다. 낙관성에 있어 초등학생의 경우, 남녀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못했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차이가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었는데 각각의 변인에서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낙관성을 보여주었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은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초등학생보다 낙관성이 높았다.

<표 III-2-55> 낙관성 수준 (초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6.93	2.03	-1.879	-
	여	7.08	1.91		
학업 성적	하	6.12	2.25	87.401 ^{***}	1<2,3 2<3
	중	6.82	1.88		
	상	7.56	1.81		
가족 구성	양부모	7.05	1.95	7.793 ^{***}	1>2
	한부모	6.54	2.12		
	조손가정	6.32	2.57		
경제 수준	하	5.81	2.07	44.574 ^{***}	1<2,3 2<3
	중	6.81	1.92		
	상	7.55	1.98		

<표 III-2-56> 낙관성 수준 (중·고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6.77	1.81	3.402 ^{**}	-
	여	6.62	1.74		
교급	중	6.65	1.81	-2.148 [*]	-
	고	6.74	1.75		
학업 성적	하	6.36	1.80	89.311 ^{***}	1<2,3 2<3
	중	6.74	1.67		
	상	7.08	1.82		
가족 구성	양부모	6.72	1.77	4.212 [*]	1>2
	한부모	6.55	1.84		
	조손가정	6.46	1.94		
경제 수준	하	6.37	2.00	35.659 ^{***}	1<2,3 2<3
	중	6.67	1.73		
	상	7.22	1.87		

한편, 중·고등학생 낙관성 수준에서 성별 및 교급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고등학생 청소년이 중학생 청소년 보다 높았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각각의 변인에서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낙관성을 보여주었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

정의 중·고등학생은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중·고등학생보다 낙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3) 사회적 발달

사회적 발달을 구성하는 세부관심영역은 사회성 발달 기회와 사회성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성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아동·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성 발달정도 혹은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전략을 묻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발달지표 중 아동들이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와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문항은 제외되었다.

먼저 아동 청소년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에 대해 1~2명 혹은 3~4명 정도 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 집단 간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친구 수에 대한 남자 초등학생의 응답비율이 높게 관찰되었다. 가족 구성유형과 경제수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데 양부모가정이고 집안이 잘 살수록 많은 수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2-57>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초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6.5	29.7	31.5	16.6	15.7	100(2523)	
성별	남	8.0	26.6	28.8	16.5	20.2	100(1282)	56.137***
	여	5.0	33.0	34.2	16.7	11.1	100(1241)	
학업 성적	하	9.7	32.2	33.0	13.1	12.1	100(373)	19.705*
	중	6.6	30.6	30.6	16.6	15.6	100(1158)	

가족 구성	상	5.1	27.9	31.9	17.9	17.2	100(994)	36.672 ^{***}
	양부모	6.0	29.0	32.3	16.8	15.8	100(2293)	
	한부모	9.5	39.0	21.4	15.2	14.8	100(210)	
	조손가정	27.3	13.6	36.4	4.5	18.2	100(22)	
경제 수준	하	14.3	31.0	35.7	9.5	9.5	100(42)	66.352 ^{***}
	중	6.8	31.8	32.2	16.8	12.3	100(1770)	
	상	5.2	24.6	29.3	16.4	24.5	100(707)	

<표 III-2-58>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8	29.1	40.4	17.9	8.7	100(6989)	
성별	남	4.3	24.2	38.7	20.2	12.6	100(3547)	215.690 ^{***}
	여	3.2	34.2	42.2	15.6	4.7	100(3442)	
교급	중	4.6	26.7	37.6	18.5	12.5	100(3180)	128.707 ^{***}
	고	3.1	31.2	42.7	17.4	5.6	100(3779)	
학업 성적	하	4.6	29.7	39.1	18.1	8.6	100(2421)	17.280 [*]
	중	3.0	29.8	41.5	17.6	8.1	100(2711)	
	상	3.6	27.6	40.7	18.2	9.9	100(1840)	
가족 구성	양부모	3.7	28.6	40.6	18.1	8.9	100(5924)	11.242
	한부모	3.8	32.0	38.5	17.5	8.1	100(884)	
	조손가정	1.1	36.0	44.9	10.1	7.9	100(89)	
경제 수준	하	6.8	34.0	38.6	12.9	7.07	100(518)	165.529 ^{***}
	중	3.5	29.5	41.5	17.9	7.6	100(5853)	
	상	3.3	21.4	32.7	21.7	20.9	100(603)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에 대해 3~4명 정도 된다고 답변한 비율(40.4%)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 집단 간 다소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5명 이상을 기준으로 남자초등학생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급 간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교급이 올라갈수록 친구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유형과 경제수준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데, 양부모가정이고 집안이 잘 살수록 많은 수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2-59>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88.1	8.4	3.4	100(6989)	
성별	남	86.8	8.8	4.4	100(3550)	23.517***
	여	89.5	8.1	2.4	100(3439)	
교급	중	87.3	8.5	4.2	100(3179)	11.718**
	고	88.8	8.5	2.7	100(3780)	
학업 성적	하	88.9	7.9	3.1	100(2418)	9.672*
	중	88.8	8.0	3.2	100(2714)	
	상	86.1	9.8	4.0	100(1841)	
가족 구성	양부모	88.1	8.5	3.4	100(5920)	2.034
	한부모	88.2	8.1	3.7	100(887)	
	조손가정	88.9	10.0	1.1	100(90)	
경제 수준	하	86.4	10.0	3.6	100(521)	7.858
	중	88.6	8.2	3.2	100(5852)	
	상	85.5	9.6	4.8	100(602)	

청소년단체에 가입유무 및 활동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청소년의 88.1%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가입비율이 여자청소년보다 3.2%정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비록 교급, 학업성적 변인 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었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는 항목에 대한 빈도비율상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가족구성유형 및 경제수준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의 정도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2배정도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표 III-2-59>).

<표 III-2-60> 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중·고등학생)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8.62	2.82	-10.22***	-
	여	9.29	2.48		

교급	중	8.87	2.75	-2.23 [*]	-
	고	9.02	2.62		
학업 성적	하	8.68	2.67	20.21 ^{***}	1<2,3
	중	9.04	2.58		
	상	9.19	2.78		
가족 구성	양부모	8.99	2.67	1.61	-
	한부모	8.81	2.65		
	조손가정	9.04	2.81		
경제 수준	하	8.66	2.94	4.53 [*]	1<2
	중	8.90	2.62		
	상	8.81	2.96		

청소년 활동의 효능성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남녀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 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교급변인, 가족구성변인,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도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었지만, 실제 집단 간 큰 평균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I-2-61>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다중응답)(초등학생)

(단위: %)

구 분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76.0	7.9	16.1	100(2566)	
성별	남	80.5	6.5	12.9	100(1314)	30.288 ^{***}
	여	71.2	9.3	19.4	100(1252)	
학업 성적	하	78.1	8.6	13.3	100(383)	15.847 ^{**}
	중	78.4	7.6	14.0	100(1177)	
	상	72.3	8.1	19.5	100(1008)	
가족 구성	양부모	75.2	8.2	16.6	100(2331)	9.301
	한부모	84.1	5.6	10.3	100(214)	
	조손가정	82.6	4.3	13.0	100(23)	
경제 수준	하	79.1	4.7	16.3	100(43)	21.507 ^{***}
	중	77.2	8.7	14.1	100(1797)	
	상	72.7	6.2	21.1	100(722)	

동아리 가입 및 활동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표 III-2-61>) 전체 초등학생의 76%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비록 성적, 학업변인, 가족구성

및 경제수준 변인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실제로 뚜렷한 집단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동아리 가입 및 활동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표 III-2-62>) 전체 중·고등학생의 55.3%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성적, 학업변인, 가족구성 및 경제수준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I-2-62>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다중응답)(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활동하고 있지 않다	학교 내 동아리	학교 밖 동아리(사이 버가 아닌 오프라인 현실 동아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동아리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55.3	36.4	4.8	5.8	100(6773)	
성별	남	54.5	36.4	5.4	6.1	100(3452)	
	여	56.2	36.5	4.2	5.5	100(3321)	
교급	중	57.2	31.6	5.3	8.6	100(3078)	
	고	53.6	40.7	4.4	3.5	100(3667)	
학업 성적	하	56.7	35.0	5.1	5.0	100(2358)	
	중	56.8	35.7	4.4	5.7	100(2630)	
	상	51.1	39.5	5.1	7.2	100(1768)	
가족 구성	양부모	55.3	36.5	4.8	52.9	100(5731)	
	한부모	55.0	36.0	5.7	5.9	100(867)	
	조손가정	54.7	38.4	4.7	3.5	100(86)	
경제 수준	하	51.7	36.8	9.3	6.6	100(497)	
	중	55.9	36.5	4.2	5.6	100(5680)	
	상	52.5	36.0	6.9	7.4	100(581)	

<표 III-2-63> 갈등해결전략(협력전략)(초등학생)

(단위: %)

구 분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6.1	21.7	36.0	21.9	14.3	100(2558)	
성별	남	7.9	22.6	36.7	20.1	12.7	100(1311)	23.158***
	여	4.3	20.8	35.4	23.7	16.0	100(1247)	

학업 성적	하	11.3	27.9	37.4	14.7	8.7	100(380)	136.701 ^{***}
	중	6.5	24.9	38.8	18.6	11.1	100(1175)	
	상	3.7	15.5	32.4	28.3	20.1	100(1005)	
가족 구성	양부모	5.6	21.0	36.5	22.0	14.9	100(2323)	33.239 ^{***}
	한부모	10.3	29.0	31.8	21.5	7.5	100(214)	
	조손가정	21.7	21.7	30.4	8.7	17.4	100(23)	
경제 수준	하	16.7	16.7	45.2	16.7	4.8	100(42)	82.248 ^{***}
	중	5.5	24.1	38.6	20.1	11.8	100(1794)	
	상	6.8	16.2	29.4	26.5	21.2	100(718)	

갈등해결방식 중 협력전략을 묻는 질문(대체로 그렇다를 기준으로)에 대해 전체 초등학생의 72.2%가 이를 대처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상대적으로 남자초등학생에 비해 여자초등학생의 응답율이 높았으며,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초등학생들의 관찰빈도가 높았다(<표 III-2-63>).

<표 III-2-64> 갈등해결전략(협력전략)(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9	18.3	44.8	22.9	10.0	100(6988)	
성별	남	4.9	18.6	43.4	22.9	10.2	100(3550)	21.224 ^{***}
	여	2.9	18.1	46.2	22.8	9.9	100(3438)	
교급	중	4.2	19.0	43.9	22.3	10.6	100(3179)	6.018
	고	3.7	17.8	45.6	23.3	9.6	100(3779)	
학업 성적	하	5.9	20.5	44.8	20.2	8.6	100(2415)	136.912 ^{***}
	중	3.2	18.5	47.8	21.7	8.8	100(2712)	
	상	2.4	15.1	40.5	28.2	13.8	100(1844)	
가족 구성	양부모	3.5	18.0	45.3	23.2	10.0	100(5921)	33.484 ^{***}
	한부모	5.9	19.9	42.9	21.0	10.3	100(885)	
	조손가정	12.2	17.8	35.6	22.2	12.2	100(90)	
경제 수준	하	5.2	21.0	39.5	22.5	11.8	100(519)	33.782 ^{***}
	중	3.7	18.	45.8	22.6	9.5	100(5850)	
	상	4.8	15.4	39.9	25.5	14.4	100(604)	

갈등해결방식 중 협력전략을 묻는 질문(대체로 그렇다를 기준으로)에 대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77.7%가 이를 갈등해결을 위한 대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비록 유의하게 확인 되었으나 성별 간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며, 교급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상기 대처전략의 사용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빈도비율이 높았다.

<표 III-2-65> 갈등해결전략(양보전략)(초등학생)

(단위: %)

구 분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0.6	31.7	32.6	17.1	8.0	100(2557)	
성별	남	12.1	30.8	33.1	17.0	7.0	100(1310)	10.189*
	여	9.0	32.6	32.2	17.2	9.1	100(1247)	
학업 성적	하	13.1	35.1	29.8	15.2	6.8	100(382)	37.543***
	중	12.2	30.4	35.5	15.6	6.4	100(1175)	
	상	7.8	131.9	30.3	19.6	10.4	100(1002)	
가족 구성	양부모	10.0	32.1	32.8	17.1	8.0	100(2322)	11.308
	한부모	15.9	278.6	31.3	16.8	8.4	100(214)	
	조손가정	21.7	30.4	26.1	17.4	4.3	100(23)	
경제 수준	하	14.0	41.9	30.2	11.6	2.3	100(43)	56.879***
	중	11.1	33.8	33.2	15.8	6.1	100(1792)	
	상	9.1	25.9	31.2	20.6	13.2	100(718)	

갈등해결방식 중 양보전략을 묻는 질문(대체로 그렇다를 기준으로)에 대해 전체 초등학생의 57.7%가 상기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비록 유의하게 확인 되었으나 성별, 학업성적 별 집단 간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는데, 상위집단으로 갈수록 상기전략을 사용하려는 빈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표 III-2-66> 갈등해결전략(양보전략)(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1.2	35.4	36.7	13.1	3.6	100(6982)	
성별	남	10.3	32.9	39.6	13.7	3.5	100(3547)	35.443***
	여	12.1	37.9	33.7	12.6	3.7	100(3435)	
교급	중	10.2	34.2	38.1	13.2	4.3	100(3172)	16.664**
	고	11.9	36.3	35.6	13.2	3.0	100(3780)	
학업 성적	하	12.2	35.0	37.2	12.0	3.7	100(2414)	11.072
	중	11.0	35.0	37.0	13.6	3.4	100(2709)	
	상	9.9	36.4	35.9	14.0	3.9	100(1842)	
가족 구성	양부모	10.9	35.8	36.4	13.3	3.6	100(5915)	6.353
	한부모	12.4	32.8	38.3	13.1	3.4	100(885)	
	조손가정	8.9	34.4	40.0	11.1	5.6	100(90)	
경제 수준	하	10.8	31.8	38.5	14.1	4.8	100(519)	12.995
	중	11.1	36.0	36.7	12.9	3.4	100(5844)	
	상	11.9	32.3	35.9	15.1	4.8	100(604)	

갈등해결방식 중 양보전략을 묻는 질문(대체로 그렇다를 기준으로)에 대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53.4%가 상기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록 유의하게 확인되었으나 교급, 성적집단 별 집단 간 간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III-2-66>).

<표 III-2-67> 갈등해결전략(회피전략)(초등학생)

(단위: %)

구 분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5.9	25.6	31.5	15.8	11.2	100(2532)	
성별	남	16.0	26.1	31.5	14.5	11.9	100(1293)	4.370
	여	15.8	25.1	31.6	17.1	10.4	100(1239)	
학업 성적	하	16.4	30.8	29.0	15.8	8.0	100(373)	42.296***
	중	17.7	26.9	32.8	13.2	9.4	100(1166)	
	상	13.8	22.1	31.0	18.8	14.4	100(995)	

가족 구성	양부모	15.7	25.1	32.3	15.4	11.4	100(2299)	14.269
	한부모	17.5	31.6	23.6	18.9	8.5	100(212)	
	조손가정	21.7	21.7	21.7	26.1	8.7	100(23)	
경제 수준	하	21.4	23.8	28.6	16.7	9.5	100(42)	51.637***
	중	14.5	27.5	33.3	15.8	8.9	100(1777)	
	상	19.2	21.0	27.2	15.8	16.9	100(710)	

갈등해결방식 중 회피전략을 묻는 질문(대체로 그렇다를 기준으로)에 대해 전체 초등학생의 58.5%가 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성별 차이없이 남녀 초등학생 간 유사한 유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록 유의하게 확인 되었으나 학업성적 별 집단 간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데, 상위집단의 초등학생이 중간이나 하위집단의 초등학생보다 상기전략의 사용 빈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표 III-2-68> 갈등해결전략(회피전략)(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3.9	26.9	36.6	16.2	6.4	100(6970)	
성별	남	12.5	25.5	37.9	16.9	7.1	100(3537)	27.158***
	여	15.4	28.3	35.3	15.4	5.7	100(3433)	
교급	중	13.3	26.4	37.6	15.8	6.9	100(3165)	5.833
	고	14.4	27.3	35.9	16.4	6.0	100(3775)	
학업 성적	하	15.1	27.9	37.1	13.9	6.1	100(2409)	32.402***
	중	13.6	27.0	37.2	16.4	5.8	100(2705)	
	상	12.9	25.2	35.2	18.9	7.8	100(1839)	
가족 구성	양부모	13.7	26.7	36.9	16.1	6.5	100(5905)	6.761
	한부모	14.6	28.0	38.0	16.4	6.0	100(883)	
	조손가정	21.1	23.3	31.1	16.7	7.8	100(90)	
경제 수준	하	16.8	26.0	34.7	17.1	5.4	100(519)	22.482**
	중	13.4	27.1	37.4	15.9	6.2	100(5833)	
	상	16.1	25.4	31.2	18.6	8.8	100(603)	

갈등해결방식 중 회피전략을 묻는 질문(대체로 그렇다를 기준으로)에 대

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59.2%가 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비록 유의하게 관찰되었으나 성별 간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며, 교급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록 유의하게 확인되었으나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별 집단 간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I-2-69> 갈등해결전략(지배전략)(초등학생)

(단위: %)

구 분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5.2	36.8	17.9	6.9	3.2	100(2511)	
성별	남	31.8	34.7	20.9	8.8	3.9	100(1285)	41.958***
	여	38.7	39.0	14.8	4.9	2.5	100(1226)	
학업 성적	하	35.1	37.8	16.6	6.3	4.3	100(368)	9.306
	중	35.7	37.1	18.6	6.4	2.3	100(1155)	
	상	34.6	36.1	17.6	7.8	3.9	100(990)	
가족 구성	양부모	35.4	37.1	17.6	6.7	3.2	100(2282)	18.666*
	한부모	35.6	31.7	20.7	9.6	2.4	100(208)	
	조손가정	8.7	52.2	21.7	4.3	13.0	100(23)	
경제 수준	하	28.2	38.5	23.1	10.3	0	100(39)	33.145***
	중	34.0	39.3	17.8	6.5	2.4	100(1764)	
	상	38.4	30.5	17.7	7.8	5.5	100(705)	

갈등해결방식 중 지배전략을 묻는 질문(대체로 그렇다를 기준으로)에 대해 전체 초등학생의 28%가 상기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남자 초등학생의 사용 비율이 여자 초등학생 보다 높게 관찰되었으며, 학업 성적 별 집단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비록 유의하게 확인 되었지만 가정경제변인에 의한 집단 간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구성 유형별 비교에서 조손가정 초등학생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갈등해결방식 중 지배전략을 묻는 질문(대체로 그렇다를 기준으로)에 대해(<표 III-2-70>) 전체의 29.5%가 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남학생의 사용 비율이 여학생 보다 높은 빈도 비율로 관찰되었으며, 교급 별 집단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록 유의하

게 확인 되었지만 학업성적과 가정경제변인에 의한 집단 간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70> 갈등해결전략(지배전략)(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0.5	40.1	21.9	5.8	1.8	100(6956)	
성별	남	25.9	37.7	62.8	7.2	2.4	100(3527)	178.209***
	여	35.2	42.5	16.8	4.3	1.2	100(3429)	
교급	중	31.4	39.7	21.5	5.3	2.1	100(3151)	7.922
	고	29.6	40.5	22.3	6.1	1.5	100(3775)	
학업 성적	하	33.8	37.5	21.4	5.2	2.1	100(2406)	35.865***
	중	30.4	40.7	21.8	5.5	1.4	100(2697)	
	상	26.2	42.6	22.6	6.8	1.9	100(1837)	
가족 구성	양부모	30.7	40.4	21.5	5.8	1.7	100(5894)	6.767
	한부모	29.1	39.5	24.0	5.4	2.0	100(881)	
	조손가정	30.0	38.9	18.9	8.9	3.3	100(90)	
경제 수준	하	32.0	36.0	22.5	6.9	2.5	100(519)	35.584***
	중	30.6	40.6	21.9	5.4	1.5	100(5820)	
	상	27.9	38.1	21.6	8.5	4.0	100(603)	

4) 직업적 발달

직업적 발달은 진로준비기회와 직업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세부 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교육경험유무 및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후자는 진로직업태도와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적 발달의 경우 초등용으로는 아직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설문문항을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표 III-2-71〉 진로준비행동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6.96	1.92	-17.283 ^{***}	-
	여	7.74	1.71		
교급	중	6.93	1.98	-16.870 ^{***}	-
	고	7.70	1.67		
학업 성적	하	7.01	1.95	79.771 ^{***}	1<2,3 2<3
	중	7.38	1.77		
	상	7.75	1.77		
가족 구성	양부모	7.39	1.84	10.901 ^{***}	1>2,3
	한부모	7.16	1.93		
	조손가정	6.70	2.10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비교에서 성별 및 교급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학업성적 및 가족구성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 성적상위 집단이 중간집단 보다 중간집단이 하위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와 조손가정 보다 높았다.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2-72〉 진로교육경험유무

(단위: %)

구 분		예	아니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59.0	41.0	100(6985)	
성별	남	55.1	44.9	100(3548)	44.917 ^{***}
	여	63.0	37.0	100(3437)	
교급	중	54.3	45.7	100(3174)	49.499 ^{***}
	고	62.7	37.3	100(3781)	

진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고등학생의 59%가 받아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8%정도 높았으며, 중학생(54.3%)에 비해 고등학생(62.7%)의 비율도 높았다.

〈표 III-2-73〉 진로교육만족정도

(단위: %)

구 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0.3	22.2	41.2	22.7	3.5	100(4003)	
성별	남	11.3	20.3	41.6	23.2	3.6	100(1905)	9.763*
	여	9.5	24.0	0.9	22.2	3.4	100(2098)	

진로교육의 만족정도에 대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26.2%(그렇다를 기준으로)가 만족 한다고 하였다. 성별 변인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확인 되었지만 실제로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성적수준, 교급, 가족구성유형 및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도 수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표 III-2-74〉 진로직업태도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교급	중	10.20	2.65	-4.098***	-
	고	10.47	2.67		
학업 성적	하	10.00	2.78	52.467***	1<2,3 2<3
	중	10.31	2.51		
	상	10.87	2.66		
가족 구성	양부모	10.38	2.64	3.964*	-
	한부모	10.15	2.83		
	조손가정	9.88	2.81		
경제 수준	하	9.93	2.93	31.256***	1<2,3 2<3
	중	10.31	2.62		
	상	11.13	2.74		

진로 성숙도 지수로 표현되는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남녀 간 성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교급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학업성적, 가족구성유형 및 경제수준에 의한 집단 간 유의한 차가 확인되었다.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이 중간집단 보다, 중간집단이 하위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와 조손가정 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표 III-2-75> 중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단위: %)

구 분		자율형 사립고 외고나 과학고 포함)에 진학할 계획이다	보통의 인문계 고등학교 에 진학할 계획이다	전문계 고등학교 에 진학할 계획이다	취직할 계획이다	상황을 봐서 나중에 결정하겠 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5.1	45.5	9.3	1.3	28.8	100(3166)	
성별	남	17.2	41.2	10.4	1.8	29.6	100(1650)	35.658***
	여	12.9	50.3	8.1	0.7	28.0	100(1516)	
학업 성적	하	5.1	36.3	16.1	2.5	40.1	100(1040)	481.042***
	중	11.3	52.5	8.4	0.9	26.9	100(1228)	
	상	32.1	46.7	2.6	0.3	18.3	100(891)	
가족 구성	양부모	15.8	46.7	8.5	1.2	27.7	100(2765)	29.782***
	한부모	10.2	38.8	12.9	1.5	36.6	100(325)	
	조손가정	13.2	31.6	15.8	2.6	36.8	100(38)	
경제 수준	하	10.1	33.8	16.9	2.7	36.5	100(148)	99.989***
	중	13.2	47.7	9.1	1.1	28.9	100(2627)	
	상	30.2	35.2	8.1	1.6	24.9	100(381)	

졸업 후 진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 중학생의 45.5%는 인문계 진학, 추후결정이 28.8%, 자율형사립고 진학이 15.1%, 전문계 진학이 9.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계진학이 여자에게서 9%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 고교 진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4.3%정도 높았다.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변인에 따른 집단 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율형고교 진학의 경우 성적 및 가정경제변인 상위집단이 중간이나 하위집단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반대로 전문계고교 진학의 경우 성적 및 가정경제변인 하위집단 이나 중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가족구성유형에 의한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보다 인문계고교진학에 대한 항목에서 빈도비율이 높았으며 전문계고교 진학의 경우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표 III-2-75>).

〈표 III-2-76〉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단위: %)

구 분		상위권(4 년제)에 진학할 계획이다	보통수준 의 대학(4년 제)에 진학할 계획이다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다	취직할 계획이다	상황을 봐서 나중에 결정하겠 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3.1	33.4	7.2	6.4	19.9	100(3778)	
학업 성적	하	16.2	36.4	10.3	8.6	28.5	100(1359)	560.782 ^{***}
	중	30.6	39.6	6.2	5.7	17.8	100(1468)	
	상	61.1	19.4	4.2	4.3	10.9	100(943)	
가족 구성	양부모	35.3	33.8	6.8	5.1	19.0	100(3121)	86.106 ^{***}
	한부모	22.7	33.3	8.5	12.4	23.1	100(555)	
	조손가정	20.0	24.0	10.0	18.0	28.0	100(50)	
경제 수준	하	21.9	27.0	9.0	12.0	30.1	100(366)	88.136 ^{***}
	중	33.2	34.5	7.2	5.9	19.3	100(3188)	
	상	49.3	28.1	4.5	5.4	12.7	100(221)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3.4%는 보통수준의 대학진학, 상위권 대학진학은 33.1%로 나타나 전체 66.5%의 고등학생이 졸업 후 대학진학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결정은 19.9%, 2년제 대학진학은 7.2%로 나타났으며, 취직을 고려한다는 비율은 6.4%에 불과했다. 성별에 따른 남녀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위권4년제 대학진학은 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이 중간이나 하위집단보다 매우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반대로 2년제 대학진학과 졸업 후 취직의 경우 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하위집단 이나 중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구성유형에 의한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보다 상위권4년제 대학진학에 대해 높은 빈도 비율이 보였으며, 2년제 대학진학이나 졸업 후 취직은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5) 신체적 발달

마지막으로 신체적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신체발달 기회가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운동실천 여부, 평일 평균수면시간,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이미 언급 했듯이 인지능력과 신체적 능력 세부관심영역 지표는 중복 가능성과 행정통계지표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기에 제외되었다.

〈표 III-2-77〉 정기적인 운동실천 여부 (초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하지 않고 있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4회 이상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8.6	3.2	11.5	32.9	43.8	100(2565)	
성별	남	7.5	2.7	8.2	25.8	55.8	100(1310)	160.182***
	여	9.7	3.7	15.1	40.2	31.3	100(1255)	
학업 성적	하	11.2	4.4	12.0	31.6	40.7	100(383)	14.657
	중	9.3	3.2	11.9	33.4	42.3	100(1178)	
	상	6.8	2.7	10.9	32.8	46.8	100(1006)	
가족 구성	양부모	8.3	3.3	11.4	33.0	44.1	100(2329)	5.958
	한부모	10.7	2.3	12.1	32.1	42.8	100(215)	
	조손가정	17.4	4.3	17.4	30.4	30.4	100(23)	
경제 수준	하	18.6	2.3	11.6	23.3	44.2	100(43)	37.266***
	중	9.0	3.1	12.9	34.3	40.7	100(1798)	
	상	6.9	3.5	7.9	30.0	51.7	100(720)	

정기적인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초등학생의 43.8%가 일주일에 3~4회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비율에 있어 남자 초등학생과 여자 초등학생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주일에 1~2회 정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남자 초등학생 25.8%, 여자 초등학생 40.2%, 일주일에 3~4회 정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남자 초등학생 55.8%, 여자 초등학생 31.3%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및 가족구성 유형 별 운동실천 정도에 대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

았지만 가정경제수준 별 초등학생집단 간 차이는 관찰되었다. 가정경제 수준이 상위집단인 초등학생의 경우 일주일에 1~2회 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81.7%, 중간집단은 75%, 하위집단은 67.5%로 나타났다.

〈표 III-2-78〉 정기적인 운동실천 여부(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4회 이상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7.0	7.2	18.5	28.0	19.3	100(6996)	
성별	남	17.6	4.9	15.7	34.2	27.6	100(3552)	678.411***
	여	36.7	9.6	21.3	21.7	10.7	100(3444)	
교급	중	20.2	7.1	19.6	30.9	22.2	100(3181)	146.842***
	고	32.7	7.4	17.5	25.6	16.8	100(3785)	
학업 성적	하	27.2	7.7	16.9	27.7	20.5	100(2417)	9.459
	중	27.2	7.0	19.1	28.0	18.7	100(2717)	
	상	26.3	6.9	19.5	28.7	18.6	100(1845)	
가족 구성	양부모	26.5	7.2	18.7	28.5	19.2	100(5927)	11.584
	한부모	29.2	7.7	18.0	26.6	18.5	100(887)	
	조손가정	34.4	8.9	14.4	17.8	24.4	100(90)	
경제 수준	하	32.7	5.6	14.2	26.5	21.0	100(520)	88.529***
	중	27.5	7.6	19.2	27.7	18.1	100(5856)	
	상	17.2	4.6	15.9	33.1	29.3	100(605)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19.3%가 일주일에 3~4회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28%였다. 성별변인 간 차이에서 여자에 비해 남자 중·고등학생의 정기적인 운동실천정도가 각 셀에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교급 간 비교에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운동실천비율이 높았으며, 학업성적 및 가족구성 유형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정경제수준변인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 상위 집단의 중·고등학생들이 중간이나 하위집단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표 III-2-79> 평일 평균수면시간 (초등학생)

(단위: %)

구 분		5시간 이하	5~6시간 정도	6~7시간 정도	7~8시간 정도	8~9시간 정도	9시간 이상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8	4.9	16.4	33.0	31.7	10.3	100(2562)	
성별	남	4.0	5.9	17.5	31.8	30.8	10.1	100(1310)	9.554
	여	3.6	3.8	15.3	34.2	32.7	10.5	100(1252)	
학업 성적	하	6.6	6.3	18.6	28.6	31.0	8.9	100(381)	28.793**
	중	4.0	4.8	17.9	33.0	29.9	10.4	100(1182)	
	상	2.5	4.4	13.7	34.7	34.2	10.9	100(1001)	
가족 구성	양부모	3.4	4.8	16.0	33.4	31.9	10.5	100(2326)	26.831**
	한부모	7.9	1.4	20.9	28.8	29.3	8.4	100(215)	
	조손가정	8.7	17.4	8.7	30.4	30.4	4.3	100(23)	
경제 수준	하	11.9	7.1	19.0	33.3	23.8	4.8	100(42)	21.719*
	중	3.5	4.8	16.2	34.7	31.3	9.4	100(1797)	
	상	3.9	4.7	16.6	28.8	33.5	12.5	100(719)	

<표 III-2-80> 평일 평균수면시간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5시간 이하	5~6시간 정도	6~7시간 정도	7~8시간 정도	8~9시간 정도	9시간 이상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0.6	31.6	30.2	18.6	6.8	2.1	100(6998)	
성별	남	9.7	28.4	30.1	20.8	8.3	2.7	100(3557)	80.618***
	여	11.6	34.9	30.3	16.3	5.3	1.6	100(3441)	
교급	중	4.1	15.5	34.5	30.8	12.1	3.0	100(3184)	1491.771***
	고	16.1	45.2	26.7	8.2	2.4	1.3	100(3784)	
학업 성적	하	10.7	30.9	29.2	18.4	8.1	2.6	100(2420)	23.642**
	중	10.6	31.5	29.9	19.2	6.5	2.3	100(2717)	
	상	10.4	32.6	31.9	18.1	5.8	1.2	100(1844)	
경제 수준	하	13.6	34.7	29.8	12.1	6.0	3.8	100(521)	41.803***
	중	10.2	31.8	30.3	19.0	6.9	1.9	100(5857)	
	상	12.2	26.6	29.4	20.8	7.6	3.3	100(605)	

초등학생의 일일평균 수면시간의 경우 7~8시간(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는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남자

초등학생들에 비해 여자 초등학생들의 평균수면시간이 다소 높았지만 통계적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비율에서 성적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성적수준이 높은 초등학생들의 평균수면 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7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초등학생들이 가정경제수준이 중, 상 이상의 초등학생들보다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검증되었다(<표 III-2-79>).

중·고등학생의 경우(<표 III-2-80>) 일일 평균 수면시간을 5~6시간으로 답변한 비율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6~7시는 30.2%로 그 뒤를 따랐다. 남녀 및 교급 간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취하는 평균수면시간이 낮게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수면 비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7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학생은 45.9%인데 반해 고등학생의 비율은 11.9%에 불과했다. 경제수준에 따른 비교에서도 가정경제수준이 중간층 이상인 중·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81>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초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관심이 많다	매우 관심이 많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4	3.7	43.4	33.9	17.5	100(2569)	
성별	남	2.1	4.3	41.8	32.2	19.6	100(1313)	21.276***
	여	0.7	3.2	45.0	35.7	15.4	100(1256)	
학업 성적	하	2.1	5.8	50.0	26.7	15.4	100(382)	43.239***
	중	1.5	3.7	46.4	33.0	15.4	100(1186)	
	상	1.1	3.0	37.3	37.9	20.7	100(1003)	
가족 구성	양부모	1.4	3.5	43.4	34.2	17.5	100(2334)	6.629
	한부모	1.9	6.1	42.5	31.8	17.8	100(214)	
	조손가정	0	8.7	47.8	26.1	17.4	100(23)	
경제 수준	하	2.3	9.3	30.2	34.9	23.3	100(43)	110.779***
	중	1.1	3.8	48.8	33.0	13.3	100(1800)	
	상	2.1	3.3	30.6	36.4	27.6	100(722)	

초등학생의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는 남녀 간 유의한 차이는 보였지만 ‘관심이 많다’와 ‘매우 관심이 많다’를 합산한 비율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

지 않고 있다. 학업성적에 따른 비교에서 학업성적 상위집단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중간집단도 하위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가족구성 유형별 비교에서도 양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이,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보다,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이 조손가정의 초등학생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대한 비율을 비교한 결과 가정경제상위집단에 속한 초등학생이 중간집단 초등학생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표 III-2-81>).

<표 III-2-82>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관심이 많다	매우 관심이 많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7	9.0	50.6	28.5	10.2	100(7003)	
성별	남	1.9	7.8	44.9	32.1	13.3	100(3559)	161.689***
	여	1.4	10.3	56.4	24.8	7.1	100(3444)	
교급	중	1.7	8.5	50.4	28.6	10.8	100(3186)	3.362
	고	1.6	9.4	50.7	28.5	9.7	100(3787)	
학업 성적	하	2.4	10.7	51.3	25.9	7.9	100(2421)	71.113***
	중	1.2	8.0	53.7	27.7	9.4	100(2719)	
	상	1.4	8.3	44.9	33.2	12.2	100(1845)	
가족 구성	양부모	1.6	8.7	50.8	28.6	10.3	100(5933)	4.153
	한부모	1.8	10.6	49.0	28.5	10.1	100(888)	
	조손가정	2.2	7.8	50.0	30.0	10.0	100(90)	
경제 수준	하	3.5	12.3	43.4	28.8	12.1	100(521)	87.120***
	중	1.4	9.1	52.2	27.9	9.4	100(5861)	
	상	2.8	5.1	41.7	34.0	16.4	100(605)	

중·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여자 중·고등학생의 비율(56.4%)이 남자 중·고등학생(44.9%)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이 많다’와 ‘매우 관심이 많다’를 합산 한 비율에서는 남자 중·고등학생의 관찰비율(45.4%)이 여자 중·고등학생(31.9%)보다 높게 나타나 남자 중·고등학생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교급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각 셀에 대한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여준다. 학업성적에 따른 비교에서 성적상위집단으로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면 하위집단의 경우 ‘관심이 많다’와 ‘매우 관심이 많다’를 합산 한 비율에서 가장 낮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가정경제상위집단에 속한 중·고등학생이 중간집단 중·고등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되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중간집단과 하위집단간의 차이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83〉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초등학생)

(단위: %)

구 분		매우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1	4.1	25.0	47.8	22.0	100(2567)	
성별	남	1.1	5.1	25.6	45.4	22.9	100(1315)	11.862 [*]
	여	1.2	3.0	24.4	50.3	21.1	100(1252)	
학업 성적	하	2.1	7.6	29.7	39.9	20.7	100(381)	60.255 ^{***}
	중	0.8	3.4	28.7	47.6	19.4	100(1183)	
	상	1.1	3.5	18.8	51.0	25.6	100(1005)	
가족 구성	양부모	1.1	3.7	24.5	48.5	22.3	100(2331)	16.533 [*]
	한부모	1.9	6.5	30.7	41.9	19.1	100(215)	
	조손가정	0	13.0	26.1	34.8	26.1	100(23)	
경제 수준	하	0	9.3	37.2	39.5	14.0	100(43)	102.882 ^{***}
	중	1.0	4.3	28.2	48.9	17.6	100(1799)	
	상	1.5	3.1	16.2	45.5	33.7	100(721)	

초등학생들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에서 남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각 셀 간 비교에서 실제 관찰비율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 성적수준에 따라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이 성적집단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성적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건강한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를 합산한 비율에서 성적상위집단(55.4%)이 가장 높은 관찰비율을 보였으며, 중간집단(47.6%)과 하위집단(46.6%)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가족구성 유형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이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의 초등학생들 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다 양호하게 평가하였으며, 가정경제수준 별 비교에서도 상위집단에 속한 초등학생이 중간집단 및 하위집단에 속한 초등학생들 보다 자신의 건강을 양호하게 평가하였다.

〈표 III-2-84〉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매우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4	12.1	37.2	39.5	9.8	100(6998)	
성별	남	1.5	11.8	35.5	39.9	11.2	100(3556)	20.630 ***
	여	1.2	12.4	38.9	39.0	8.5	100(342)	
교급	중	1.4	8.8	35.1	42.8	11.9	100(3184)	102.857 ***
	고	1.4	14.9	39.0	36.6	8.1	100(3784)	
학업 성적	하	1.7	13.2	38.4	37.0	9.6	100(2418)	53.149 ***
	중	1.1	11.2	40.1	38.6	9.0	100(2719)	
	상	1.4	11.9	31.3	43.9	11.5	100(1843)	
가족 구성	양부모	1.3	11.7	36.9	40.0	10.1	100(5927)	29.768 ***
	한부모	1.5	13.9	39.8	36.9	7.9	100(889)	
	조손가정	5.6	16.7	36.7	26.7	14.4	100(90)	
경제 수준	하	3.7	20.6	35.8	32.5	7.5	100(520)	161.084 ***
	중	1.1	11.5	38.6	39.8	9.1	100(5858)	
	상	2.6	10.4	25.2	42.4	19.4	100(604)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에서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각 셀 간 비교에서 실제 관찰비율에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교급 간 비교에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지각하려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업성적 변인의 경우 성적수준에 따라 지각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적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즉 ‘건강한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셀 간 비교에서 성적상위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관찰되었다. 중간집단과 하위집단 간 비교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가족구성 유형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이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의 중·고등학생들 보다 자신의 건강을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자신의 건강평가(‘건강한편이다’ 이상)에 대한 가정경제 변인 별 비교에서 상위집단(61.8%)에 속한 학생들이 중간집단(48.9%) 및 하위집단(40%)에 속한 학생들 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으며, 중간집단, 하위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3. 아동·청소년 참여권 실태

1)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보호

(1) 종교 결정권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종교행사에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중·고등학생의 38.9%가 ‘그렇다’(‘그렇다’ 27.2%, ‘매우 그렇다’ 11.7%)고 응답하여 학교에서 의무적인 종교행사 참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 경험(중·고등학생)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¹⁾ (빈도)	카이제곱값 ²⁾
전 체		33.9	27.2	27.2	11.7	100(6967)	
성별	남	33.7	25.2	28.3	12.8	100(3545)	22.371***
	여	34.1	29.4	25.9	10.6	100(3422)	
교급	중	27.7	27.5	32.1	12.6	100(3171)	127.715***
	고	39.3	27.2	22.9	10.7	100(3766)	
학업 성적 ³⁾	하	27.9	29.5	29.7	12.9	100(2408)	115.683***
	중	32.9	27.7	28.3	11.1	100(2708)	
	상	43.2	23.8	22.0	11.0	100(1835)	
가족 구성	양부모	34.5	27.0	27.0	11.5	100(59.3)	8.831
	한부모	29.9	29.1	27.7	13.3	100(883)	
	조손가정	30.5	27.4	28.4	13.7	100(95)	
경제 수준 ⁴⁾	하	35.7	28.9	22.5	13.0	100(518)	17.212**
	중	33.4	27.5	27.8	11.3	100(5835)	
	상	37.3	23.4	2.2	14.1	100(603)	

1)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응답항목에 대한 전체 빈도수이며, 결측치로 인해 전체 빈도수와 변인별 전체 빈도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분석에서의 유의도 수준을 $p < .05 = *$, $p < .01 = **$, $p < .001 = ***$ 으로 표기하였다.

3) 학업성적변인은 5개의 급간을 (매우 못하는 수준=1, 중간=3, 매우 잘하는 수준=5) 3개 급간 (하위집단, 중간집단, 상위집단)으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인별로는 성별, 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41.1%)이 여학생(36.5%)보다, 중학생(44.7%)이 고등학생(33.6%)보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하 42.6%, 중 39.4%, 상 33.0%),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간층(39.1%)인 경우 하위층(35.5%)과 상위층(16.3%)보다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더 많이 보였다.

(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80.9%(‘그렇다’ 45.2%, ‘매우 그렇다’ 35.7%), 중·고등학생의 72.5%(‘그렇다’ 58.4%, ‘매우 그렇다’ 14.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에 있어 초등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네 개 변인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84.0%)이 남학생(78.4%)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84.7%, 중 80.8%, 하 71.8%),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양부모 81.7%, 한부모 78.0%, 조손가정 60.0%),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82.6%, 중 81.1%, 하 55.0%)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초등학생과 유사한 변인별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73.6%)이 남학생(71.2%)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77.9%, 중 74.9%, 하 65.4%),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양부모 73.1%, 한부모 69.4%, 조손가정 60.6%),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80.5%, 중 73.2%, 하 25.1%) 그리고 중학생(73.6%)이 고등학생(71.6%)보다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4) 가정경제수준변인은 7개의 급간을 (‘매우 못 산다’=1 부터 ‘매우 잘 산다’=7) 3개 집단 (하=1, 2/ 중=3, 4, 5/ 상=6, 7)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표 III-3-2〉가정 중요사 결정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5.7	13.1	45.2	35.7	100(2565)	
성별	남	7.5	14.1	43.9	34.5	100(1315)	19.464**
	여	3.8	12.2	47.0	37.0	100(1250)	
학업 성적	하	8.7	19.5	42.4	29.4	100(344)	37.272***
	중	5.4	13.8	47.5	33.3	100(1178)	
	상	4.8	10.5	44.3	40.4	100(1000)	
가족 구성	양부모	5.5	12.8	45.4	36.3	100(2328)	17.483*
	한부모	5.5	16.5	46.5	31.5	100(200)	
	조손가정	25.0	15.0	35.0	25.0	100(20)	
경제 수준	하	20.0	25.0	32.5	22.5	100(40)	65.897***
	중	5.2	13.7	49.0	32.1	100(1789)	
	상	6.2	11.1	37.4	45.2	100(721)	

〈표 III-3-3〉 가정 중요사 결정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9	22.7	58.4	14.1	100(6984)	
성별	남	5.4	23.3	58.1	13.1	100(3546)	11.015*
	여	4.2	22.1	58.6	15.0	100(3448)	
교급	중	5.2	21.4	57.4	16.0	100(3177)	22.365***
	고	4.6	23.7	59.2	12.4	100(3788)	
학업 성적	하	7.0	27.6	54.8	10.6	100(2413)	151.385***
	중	3.8	21.3	61.6	13.3	100(2715)	
	상	3.6	18.5	58.1	19.8	100(1842)	
가족 구성	양부모	4.4	22.5	58.9	14.2	100(5918)	24.146***
	한부모	6.4	24.2	55.5	13.9	100(886)	
	조손가정	12.8	26.6	51.0	9.6	100(94)	
경제 수준	하	15.0	30.0	16.3	8.8	100(514)	236.652***
	중	4.0	22.8	59.9	13.3	100(5852)	
	상	4.1	15.4	54.3	26.2	100(604)	

(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님이 자녀의견을 존중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

과, 초등학생의 82.9%가 ‘그렇다’(‘그렇다’ 44.3%, ‘매우 그렇다’ 38.6%)고 응답하여 부모가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 학업성적, 가족구성,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84.3%)이 남학생(81.6%)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87.6%, 중 82.6%, 하 71.0%),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양부모 83.5%, 한부모 79.4%, 조손가정 50.0%),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90.9%, 중 83.0%, 하 60.0%)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4>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5.5	11.6	44.3	38.6	100(2579)	
성별	남	5.9	12.6	44.4	37.2	100(1310)	4.398
	여	5.0	10.6	44.2	40.1	100(1251)	
학업 성적	하	10.5	18.4	41.2	29.8	100(342)	67.966***
	중	5.0	12.4	46.7	35.9	100(1177)	
	상	4.1	8.2	42.4	45.2	100(999)	
가족 구성	양부모	5.5	11.0	44.2	39.3	100(2325)	21.950**
	한부모	4.5	16.1	46.2	33.2	100(199)	
	조손가정	15.0	35.0	25.0	25.0	100(20)	
경제 수준	하	20.0	20.0	30.0	30.0	100(40)	48.731***
	중	5.0	12.0	47.2	35.8	100(1787)	
	상	5.4	11.6	44.3	46.6	100(719)	

중·고등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님이 자녀의견을 존중해 주는 지에 대해 77.0%가 ‘그렇다’(‘그렇다’ 59.3%, ‘매우 그렇다’ 17.7%)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 차이는 가족구성 형태를 제외하고 모두 초등학생과 유사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77.9%)이 남학생(76.2%)보다, 고등학생(77.6%)이 중학생(76.2%)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84.1%, 중 79.6%, 하 59.3%),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을 경우(양부모 67.8%, 한부모 73.7%, 조손가정 75.9%),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84.6%, 중 77.7%, 하 61.6%)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5〉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2	18.7	59.3	17.7	100(6981)	
성별	남	4.8	19.2	59.9	16.3	100(3542)	14.911 **
	여	3.7	18.4	58.7	19.2	100(3439)	
교급	중	4.7	19.0	58.4	17.8	100(3179)	4.494
	고	3.8	18.6	60.0	17.6	100(3772)	
학업 성적	하	6.4	24.7	56.3	3.0	100(2409)	253.964 ***
	중	3.0	17.4	63.2	16.4	100(2715)	
	상	3.1	12.8	57.5	26.6	100(1841)	
가족 구성	양부모	4.0	18.2	59.7	18.1	100(5917)	19.515 **
	한부모	5.2	21.1	58.3	15.4	100(885)	
	조손가정	8.6	24.5	59.9	16.0	100(94)	
경제 수준	하	12.3	26.1	48.8	12.8	100(514)	207.868 ***
	중	3.5	18.8	60.9	16.8	100(5849)	
	상	4.0	11.4	53.1	31.5	100(604)	

진로선택 시 부모님이 자녀의견을 존중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초·고·고·대학생의 87.9%가 ‘그렇다’(‘그렇다’ 35.3%, ‘매우 그렇다’ 52.6%)고 응답하여 진로선택 시 부모님이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90%)이 남학생(86%)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90.3%, 중 88.1%, 하 80.4%),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89.6%, 중 88.9%, 하 62.5%)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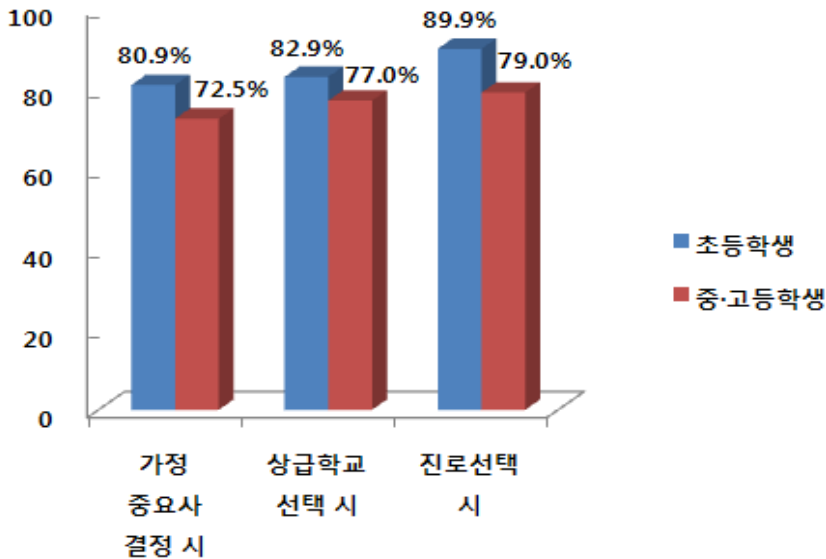
중·고·고·대학생의 경우 진로선택 시 부모님이 자녀의견을 존중해 주는지에 대해 79.0%가 ‘그렇다’(‘그렇다’ 56.8%, ‘매우 그렇다’ 22.2%)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 모든 경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80.6%)이 남학생(77.3%)보다, 고·고·고·대학생(80.1%)이 중·고·고·대학생(77.5%)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83%, 중 82.2%, 하 72.3%),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양부모 79.8%, 한부모 74.7%, 조손가정 70.2%),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83.9%, 중 79.6%, 하 66.4%)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6〉 진로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2	7.9	35.3	52.6	100(2559)	
성별	남	5.6	8.5	36.9	49.1	100(1308)	21.774 ***
	여	2.7	7.3	33.7	56.3	100(1251)	
학업 성적	하	7.6	12.0	35.4	45.0	100(342)	29.791 ***
	중	4.2	7.7	36.6	51.5	100(1176)	
	상	3.0	6.7	33.9	56.4	100(998)	
가족 구성	양부모	4.0	7.8	35.3	52.9	100(2323)	6.972
	한부모	5.5	9.5	33.2	51.8	100(199)	
	조손가정	10.0	10.0	50.0	30.0	100(20)	
경제 수준	하	20.0	17.5	32.5	30.0	100(40)	54.419 ***
	중	3.5	8.6	37.3	50.6	100(1785)	
	상	4.7	5.7	30.5	59.1	100(719)	

〈표 III-3-7〉 진로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3	16.7	56.8	22.2	100(6965)	
성별	남	5.1	17.6	57.2	20.1	100(3534)	26.273 ***
	여	3.6	15.8	56.3	24.3	100(3431)	
교급	중	4.8	17.6	54.8	22.7	100(3167)	11.110 *
	고	3.9	16.0	58.5	21.6	100(3768)	
학업 성적	하	6.9	20.8	55.5	16.8	100(2404)	197.116 ***
	중	2.8	15.0	60.7	21.5	100(2708)	
	상	3.0	13.9	52.7	30.3	100(1837)	
가족 구성	양부모	4.2	16.0	57.3	22.5	100(5904)	21.633 **
	한부모	4.6	20.6	55.2	19.5	100(882)	
	조손가정	7.4	22.3	43.6	26.6	100(94)	
경제 수준	하	10.5	23.1	51.7	14.7	100(516)	148.634 ***
	중	3.6	16.7	58.1	21.5	100(5833)	
	상	5.1	11.0	48.7	35.2	100(602)	



[그림 III-3-1]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4)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내지 못했더라도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 초등학생의 59.8%가 ‘그렇다’(‘그렇다’ 34.9%, ‘매우 그렇다’ 24.9%)고 응답하여 40.2%의 학교가 교육비 미납시 정보공개를 하고 있었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63.0%가 ‘그렇다’(‘그렇다’ 45.7%, ‘매우 그렇다’ 17.3%)고 응답하여 37.0%의 학교가 교육비 미납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59.9%)이 남학생(59.7%)보다, 성적이 중상일수록(중 60.6%, 상 60.4%, 하 56.4%), 한부모가정일 경우(한부모 62.6%, 양부모 59.8%, 조손가정 50.0%),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64.8%, 중 58.1%, 하 55%)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아 사적 정보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덜 받고 있었다.

〈표 III-3-8〉 교육비 미납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6.4	23.8	34.9	24.9	100(2557)	
성별	남	18.2	22.1	33.9	25.8	100(1308)	10.056 [*]
	여	14.5	25.5	35.9	24.0	100(1249)	
학업 성적	하	17.4	26.2	36.3	20.1	100(344)	21.061 ^{**}
	중	15.3	24.1	38.0	22.6	100(1168)	
	상	16.9	22.7	31.6	28.8	100(1002)	
가족 구성	양부모	16.4	23.9	34.7	25.1	100(2323)	4.235
	한부모	15.7	21.7	40.4	22.2	100(198)	
	조손가정	25.0	25.0	25.0	25.0	100(20)	
경제 수준	하	27.5	17.5	35.0	20.0	100(40)	66.414 ^{***}
	중	15.7	26.2	37.1	21.0	100(1785)	
	상	17.4	17.7	30.1	34.7	100(717)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등록금이나 급식비 등 교육비 미납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 초등학생과 유사한 변인별 차이를 보였는데, 단 가족구성방식에 있어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변인별로 보면 여학생(65.1%)이 남학생(61%)보다, 중학생(67.3%)이 고등학생(59.5%)보다, 성적이 낮을수록(상 61.5%, 중 63.5%, 하 63.7%),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양부모 64.2%, 한부모 56.7%, 조손가정 61.1%),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68.0%, 중 63.5%, 하 51.5%)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아 사적 정보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덜 받고 있었다.

〈표 III-3-9〉 교육비 미납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4.0	23.0	45.7	17.3	100(6995)	
성별	남	15.9	23.1	42.8	18.2	100(3551)	35.282***
	여	12.0	22.9	48.7	16.4	100(3444)	
교급	중	11.8	20.9	47.9	19.4	100(3179)	51.296***
	고	15.8	24.7	43.9	15.6	100(3786)	
학업 성적	하	14.6	21.7	45.9	17.8	100(2418)	31.429***
	중	12.1	24.3	47.9	15.6	100(2717)	
	상	15.8	22.7	42.3	19.2	100(1844)	
가족 구성	양부모	13.6	22.3	46.7	17.5	100(5928)	22.179**
	한부모	15.2	28.1	40.1	16.6	100(886)	
	조손가정	12.6	26.3	41.1	20.0	100(95)	
경제 수준	하	19.1	29.4	35.6	15.9	100(517)	74.815***
	중	13.3	23.2	46.9	16.6	100(5861)	
	상	16.1	15.9	42.8	25.2	100(603)	

‘학생이 잘못된 일로 징계(벌)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학교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 초등학생의 85.4%가 ‘그렇다’(‘그렇다’ 44.3%, ‘매우 그렇다’ 41.1%)고 응답하여 14.5% 정도가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87.5%)이 남학생(83.6%)보다, 성적이 높은 경우(상 87.9%, 중 84.1%, 하 84.2%), 한부모 가족일 경우(양부모 85.5%, 한부모 86.8%, 조손가정 80.0%),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류층일 경우(상 85.1%, 중 86.4%, 하 60%)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학교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 58.9%가 ‘그렇다’(‘그렇다’ 46.9%, ‘매우 그렇다’ 12.0%)고 응답하여 41.2%의 학생이 개인 징계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고 답했다.

변인별 경향도 초등학생과 다르게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60.4%)이 여학생(57.1%)보다, 중학생(63.4%)이 고등학생(55.2%)보다, 성적이 중위권일 경우(상 56.5%, 중 89.7%, 하 59.5%),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양부모 59.4%, 한부

모 56.0%, 조손가정 43.7%),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63%, 중 58.8%, 하 53.4%)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Ⅲ-3-10〉 징계 대상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6.4	8.1	44.3	41.1	100(2555)	
성별	남	7.0	9.4	42.8	40.8	100(1307)	8.703 [*]
	여	5.7	6.8	46.0	41.5	100(1248)	
학업 성적	하	5.3	10.5	46.5	37.7	100(342)	37.314 ^{***}
	중	7.4	8.5	47.9	36.2	100(1170)	
	상	5.2	6.9	39.8	48.1	100(1000)	
가족 구성	양부모	6.5	8.0	44.3	41.2	100(2322)	6.647
	한부모	3.6	9.6	47.2	39.6	100(197)	
	조손가정	15.0	5.0	35.0	45.0	100(20)	
경제 수준	하	20.0	20.0	30.0	30.0	100(40)	83.958 ^{***}
	중	6.1	7.6	49.4	37.0	100(1783)	
	상	6.4	8.5	32.8	52.3	100(717)	

〈표 Ⅲ-3-11〉 징계 대상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7.6	23.6	46.9	12.0	100(6985)	
성별	남	16.2	23.3	46.8	13.6	100(3546)	24.935 ^{***}
	여	19.0	23.9	46.9	10.2	100(3439)	
교급	중	15.0	21.6	48.7	14.7	100(3173)	70.712 ^{***}
	고	19.8	25.1	45.5	9.7	100(3782)	
학업 성적	하	16.6	23.9	47.7	11.8	100(2415)	31.960 ^{***}
	중	16.6	23.7	79.0	10.7	100(2713)	
	상	20.4	23.1	42.5	14.0	100(1841)	
가족 구성	양부모	17.5	23.1	47.7	11.7	100(5919)	12.705
	한부모	17.9	26.2	42.4	13.6	100(885)	
	조손가정	16.8	29.5	40.0	13.7	100(95)	
경제 수준	하	20.1	26.5	39.7	13.7	100(517)	32.241 ^{***}
	중	17.4	23.7	47.6	11.2	100(5854)	
	상	16.8	20.2	45.7	17.3	100(600)	

개인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은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생의 74.2%가 ‘공개하지 않는다’(‘그렇다’ 35.3%, ‘매우 그렇다’ 52.6%)고 응답하여 25.9% 정도는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78.2%)이 남학생(70.1%)보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76%, 중 73.6%, 하 65%)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교생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성적공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0.3%만이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그렇다’ 30.7%, ‘매우 그렇다’ 9.6%)고 응답하였고 59.8%가 성적을 공개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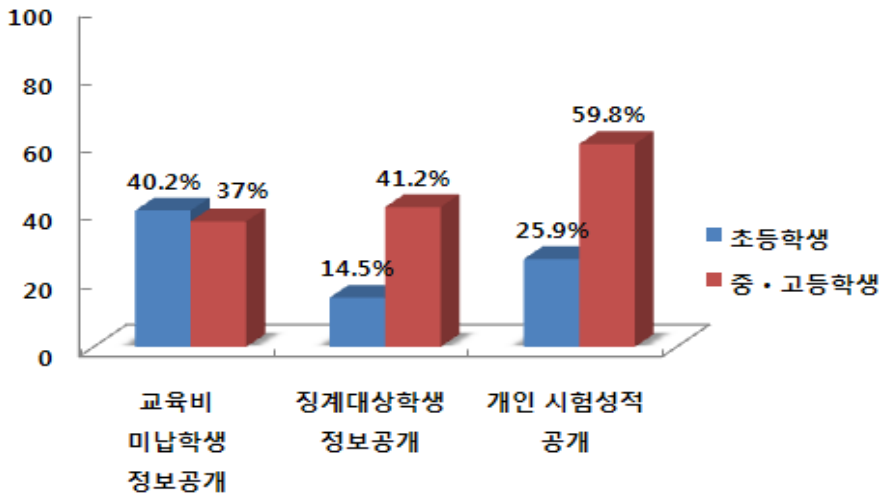
변인별로 보면 남학생(41.8%)이 여학생(38.6%)보다, 중학생(48.4%)이 고등학생(33.7%)보다, 성적이 낮을수록(상 35.3%, 중 41.7%, 하 42.3%),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44.4%, 중 40.3%, 하 35.4%) ‘공개하지 않는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12> 개인 시험성적 공개하지 않음(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7.9	18.0	41.3	32.9	100(2557)	
성별	남	9.6	20.2	39.1	31.0	100(1308)	22.695***
	여	6.2	15.6	43.5	34.7	100(1249)	
학업 성적	하	9.9	16.3	40.4	33.4	100(344)	14.569
	중	6.9	17.2	44.7	31.2	100(1170)	
	상	8.2	19.6	37.5	33.4	100(1000)	
가족 구성	양부모	7.9	17.9	41.5	32.8	100(2323)	9.144
	한부모	6.1	19.2	41.4	33.3	100(198)	
	조손가정	25.0	15.0	35.0	25.0	100(20)	
경제 수준	하	12.5	22.5	27.5	37.5	100(40)	40.290***
	중	7.5	18.9	44.1	29.5	100(1784)	
	상	8.6	15.3	34.8	41.2	100(718)	

〈표 Ⅲ-3-13〉 개인 시험성적 공개하지 않음(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6.8	33.0	30.7	9.6	100(6983)	
성별	남	26.1	32.1	31.1	10.7	100(3545)	12.920**
	여	27.5	33.9	30.2	8.4	100(3440)	
교급	중	22.7	28.9	34.7	13.7	100(3172)	200.965***
	고	30.3	36.3	27.3	6.4	100(3781)	
학업 성적	하	26.7	31.0	31.5	10.8	100(2411)	32.361***
	중	25.1	33.2	32.4	9.3	100(2717)	
	상	29.5	35.2	27.0	8.3	100(1839)	
가족 구성	양부모	36.9	32.6	30.8	9.6	100(5918)	7.377
	한부모	25.2	35.7	29.8	9.3	100(884)	
	조손가정	30.5	25.3	30.5	13.7	100(95)	
경제 수준	하	28.7	35.9	27.5	7.9	100(516)	43.850***
	중	26.1	33.6	31.1	9.2	100(5851)	
	상	31.4	24.3	29.6	14.8	100(602)	



[그림 Ⅲ-3-2]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학교에서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소지품 검사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33.6%가 ‘경험이 있다’(‘가끔’ 28.1%, ‘자주’ 5.5%)고 응답하여 1/3 정도의 학교에서 개인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는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상 33.3%, 중 33.6%, 하 45.4%) 소지품 검사 경험이 많다(‘가끔’과 ‘자주’)고 응답하였다.

〈표 III-3-14〉 학교에서 개인소지품 검사경험(초등학생)

구 분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	자주 경험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66.3	28.1	5.5	100(2511)	
성별	남	66.9	27.3	5.8	100(1283)	1.218
	여	65.8	29.0	5.2	100(1228)	
학업 성적	하	64.2	31.3	4.5	100(335)	9.146
	중	69.2	25.3	5.4	100(1156)	
	상	64.0	30.2	5.8	100(981)	
가족 구성	양부모	66.9	27.9	5.3	100(2280)	6.529
	한부모	60.0	31.8	8.2	100(195)	
	조손가정	55.0	35.0	10.0	100(20)	
경제 수준	하	55.6	36.1	8.3	100(36)	9.730*
	중	66.4	28.8	4.8	100(1760)	
	상	66.7	25.9	7.4	100(703)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끔 경험’ 32.9%, ‘자주 경험’ 12.7%로 초등학생보다는 개인소지품 검사 경험이 높은 것(전체 경험자 45.6%)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보면 여학생(47%)이 남학생(44.2%)보다, 고등학생(53.2%)이 중학생(36.9%)보다, 성적이 낮을수록(상 46.1%, 중 43.6%, 하 47.3%), 한부모가족일 경우(양부모 44.5%, 한부모 52.0%, 조손가정 42.7%),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상 39.6%, 중 45.3%, 하 55%)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15〉 학교에서 개인소지품 검사경험(중·고등학생)

구 분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	자주 경험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54.4	32.9	12.7	100(6915)	
성별	남	55.7	31.0	13.2	100(3499)	11.156 ^{**}
	여	23.0	34.8	12.2	100(3416)	
교급	중	63.1	27.9	9.0	100(3137)	192.035 ^{***}
	고	46.9	37.3	15.9	100(3748)	
학업 성적	하	52.6	33.3	14.0	100(2381)	10.580 [*]
	중	56.3	32.2	11.4	100(2691)	
	상	53.9	33.3	12.8	100(1829)	
가족 구성	양부모	55.4	32.4	12.1	100(5867)	22.392 ^{***}
	한부모	48.0	36.0	16.0	100(873)	
	조손가정	57.3	25.8	16.9	100(89)	
경제 수준	하	45.0	34.5	20.5	100(507)	55.309 ^{***}
	중	54.7	33.5	11.8	100(5805)	
	상	60.4	24.7	14.9	100(591)	

학교에서 개인소지품 검사시 학생들의 대응태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52.9%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조치에 따른다’고 응답했으며 47.1%가 ‘부당하다’(‘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항의하지 않음’)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10.6%에 불과했다.

변인별로는 학업성적, 가족구성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성적이 중위권일 경우(상 38.4%, 중 54.1%, 하 49.5%), 조손가정일 경우(양부모 47%, 한부모 48.2%, 조손가정 50%)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16〉 학교에서 개인소지품 검사 대응태도(초등학생)

구 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항의하지 않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않아 조치에 따름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0.6	36.5	52.9	100(682)	
성별	남	9.9	35.8	54.3	100(335)	.639
	여	11.2	37.2	51.6	100(347)	
학업 성적	하	9.5	40.0	50.5	100(95)	14.920**
	중	12.6	41.5	45.9	100(270)	
	상	8.3	30.1	61.6	100(302)	
가족 구성	양부모	10.4	36.6	53.0	100(617)	.282*
	한부모	10.7	37.5	51.8	100(56)	
	조손가정	16.7	33.3	50.0	100(6)	
경제 수준	하	35.7	21.4	42.9	100(14)	13.150
	중	8.6	37.7	53.7	100(475)	
	상	13.3	34.0	52.7	100(188)	

중·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중·고등학생의 22.9%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조치에 따른다’고 응답했으며 77.1%가 ‘부당하다’(‘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항의하지 않음’)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13.1%에 불과했다.

변인별로 보면 여학생(79.5%)이 남학생(74.7%)보다, 고등학생(78.6%)이 중학생(74.7%)보다, 성적이 낮을수록(상 74%, 중 76.7%, 하 79.8%),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80.2%, 중 77.3%, 하 73.4%) ‘부당하다’(‘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항의하지 않음’)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17〉 학교에서 개인소지품 검사 대응태도(중·고등학생)

구 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항의하지 않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않아 조치에 따름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3.1	64.0	22.9	100(3040)	
성별	남	14.6	60.1	25.3	100(1489)	19.355***
	여	11.7	67.8	20.6	100(1551)	
교급	중	14.9	59.8	25.3	100(1119)	13.856**
	고	12.1	66.5	21.4	100(1918)	
학업 성적	하	16.6	63.2	20.2	100(1087)	23.032***
	중	11.8	64.9	23.3	100(1125)	
	상	10.3	63.7	25.9	100(822)	
가족 구성	양부모	12.5	64.5	23.0	100(2527)	5.601
	한부모	15.3	62.6	22.1	100(430)	
	조손가정	14.3	52.4	33.3	100(42)	
경제 수준	하	14.1	59.3	27.5	100(276)	14.561**
	중	12.4	64.9	22.7	100(2533)	
	상	19.7	60.5	19.7	100(223)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가 허용되는지의 여부로서 ‘등교 후 선생님께 휴대폰을 제출하고 방과 후에 돌려받는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의 45.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로는 성별에 따른 차이만 있었는데, 여학생(45.6%)이 남학생(38.4%)보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등교 후 학교에 휴대폰을 제출한다는 응답이 62.1%로 초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인별로 보면 여학생(68.2%)이 남학생(26.3%)보다, 중학생(79.6%)이 고등학생(47.3%)보다,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양부모 63.6%, 한부모 54%, 조손가정 56.8%),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67.3%, 중 62.3%, 하 54.4%)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18〉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 - 등교 후 휴대폰
제출(초등학생)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5.1	41.9	12.9	100(2530)	
성별	남	45.5	38.4	16.1	100(1289)	27.894***
	여	44.7	45.6	9.7	100(1241)	
학업 성적	하	43.4	44.5	12.1	100(339)	9.054
	중	45.1	40.1	14.8	100(1152)	
	상	46.0	43.2	10.8	100(996)	
가족 구성	양부모	45.5	41.7	12.8	100(2300)	4.118
	한부모	39.2	45.9	14.9	100(194)	
	조손가정	50.0	45.0	5.0	100(20)	
경제 수준	하	42.1	31.6	26.3	100(38)	7.561
	중	45.1	41.8	13.1	100(1772)	
	상	45.3	43.1	11.6	100(706)	

〈표 III-3-19〉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 - 등교 후 휴대폰
제출(중·고등학생)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62.1	32.6	5.3	100(6976)	
성별	남	26.3	36.2	7.6	100(3538)	138.922***
	여	68.2	28.9	2.9	100(3438)	
교급	중	79.6	15.2	5.1	100(3168)	833.074***
	고	47.3	47.3	5.4	100(3778)	
학업 성적	하	61.9	32.9	5.2	100(2411)	7.257
	중	61.5	32.5	6.0	100(2712)	
	상	63.4	32.4	4.2	100(1837)	
가족 구성	양부모	63.6	31.3	5.2	100(5913)	34.116***
	한부모	54.0	40.8	5.2	100(882)	
	조손가정	56.8	36.8	6.3	100(95)	
경제 수준	하	54.4	38.6	6.9	100(518)	24.594***
	중	62.3	32.7	5.0	100(5844)	
	상	67.3	26.5	6.2	100(600)	

2) 표현의 자유

(1) 사적 취향의 표현

학교에서 두발 등 용모규제 경험에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15.1%만이 ‘경험했다’(‘가끔 경험’ 12.8%, ‘자주 경험’ 2.3%)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두발 등 용모규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19.5%)이 남학생(10.8%)보다 두발 등 용모규제 경험이 ‘있다’(‘가끔 경험’, ‘자주 경험’)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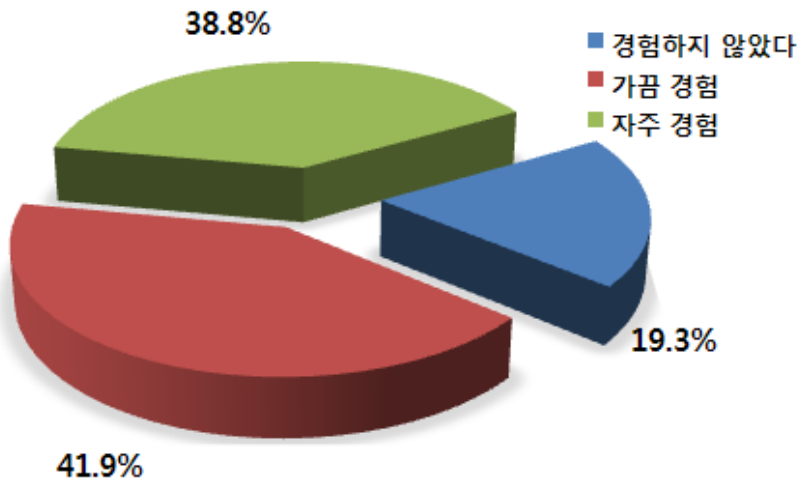
<표 III-3-20> 학교에서 두발 등 용모규제 경험(초등학생)

구 분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	자주 경험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84.9	12.8	2.3	100(2513)	
성별	남	89.2	9.0	1.8	100(1282)	37.329***
	여	80.5	16.7	2.8	100(1231)	
학업 성적	하	81.5	14.6	3.9	100(336)	6.975
	중	84.9	12.7	2.4	100(1157)	
	상	86.3	11.9	1.7	100(980)	
가족 구성	양부모	85.0	12.8	2.2	100(2280)	1.121
	한부모	84.7	12.2	3.1	100(196)	
	조손가정	85.0	15.0	0.0	100(20)	
경제 수준	하	81.6	15.8	2.6	100(38)	8.645
	중	84.3	13.7	2.0	100(1759)	
	상	86.8	10.1	3.1	100(703)	

중·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두발 등 용모규제 경험이 ‘있다(80.7%)’(‘가끔 경험’ 41.9%, ‘자주 경험’ 38.8%)는 응답이 높았다. 변인별로 보면 여학생(83.9%)이 남학생(77.7%)보다, 고등학생(86.9%)이 중학생(73.6%)보다, 그리고 성적이 낮은 경우(상 81.1%, 중 79.9%, 하 81.4%) 두발 등 용모규제 경험이 ‘있다’(‘가끔 경험’, ‘자주 경험’)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Ⅲ-3-21〉 학교에서 두발 등 용모규제 경험(중·고등학생)

구 분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	자주 경험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9.3	41.9	38.8	100(6928)	
성별	남	22.3	37.1	40.6	100(3506)	81.087***
	여	16.1	46.9	37.0	100(3422)	
교급	중	26.3	41.4	32.2	100(3144)	222.262***
	고	13.2	42.3	44.6	100(3754)	
학업 성적	하	18.6	43.6	37.8	100(2385)	10.340*
	중	20.1	42.0	37.9	100(2699)	
	상	18.9	39.6	41.5	100(1830)	
가족 구성	양부모	19.2	41.7	39.1	100(5877)	2.564
	한부모	20.0	42.6	37.4	100(875)	
	조손가정	21.7	45.7	32.6	100(92)	
경제 수준	하	15.9	40.1	44.0	100(511)	10.360*
	중	19.3	42.3	38.4	100(5814)	
	상	21.8	39.5	38.7	100(592)	



[그림 Ⅲ-3-3] 학교에서의 두발 등 용모규제 경험(중·고등학생)

학교에서 두발 등 용모규제에 대한 대응 태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53.4%가 ‘부당하다’(‘인권침해라 이의제기’ 8.6%, ‘부당하나 항의하지 않음’

44.8%)고 응답했다.

변인별로는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상 44.7%, 중 55.2%, 하 68.5%),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54.2%, 중 53.3%, 하 50%) ‘부당하다’(‘인권침해라 이의제기’, ‘부당하나 항의하지 않음’)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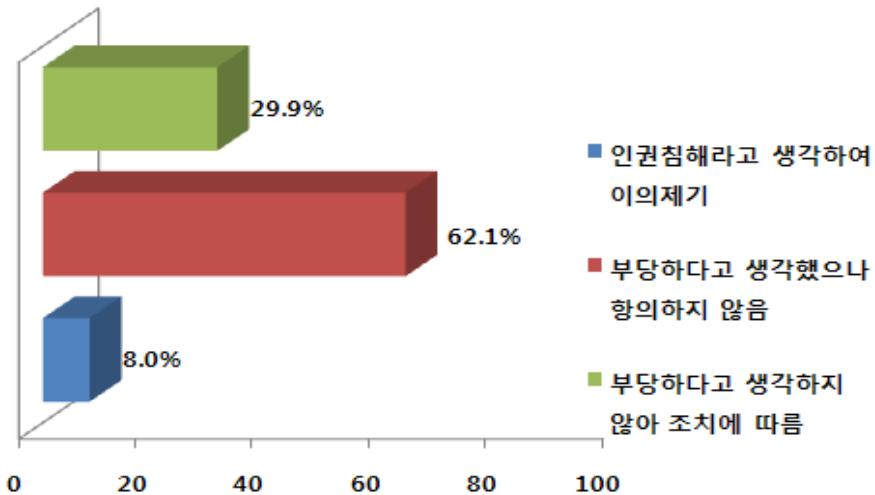
〈표 III-3-22〉 학교에서 두발 등 용모규제 대응태도(초등학생)

구 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항의하지 않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조치에 따름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8.6	44.8	46.6	100(123)	
성별	남	11.4	43.1	45.5	100(216)	1.984
	여	6.9	45.8	47.2	100(339)	
학업 성적	하	14.8	53.7	31.5	100(54)	10.567 [*]
	중	8.3	46.9	44.8	100(145)	
	상	6.1	38.6	55.3	100(132)	
가족 구성	양부모	8.4	44.7	46.9	100(311)	4.956
	한부모	8.7	43.5	47.8	100(23)	
	조손가정	50.0	50.0	0.0	100(2)	
경제 수준	하	12.5	37.5	50.0	100(8)	13.817 ^{**}
	중	5.3	48.0	46.7	100(244)	
	상	18.1	36.1	45.8	100(83)	

중·고등학생(70.1%)의 경우 초등학생(53.4%)보다 두발 등 용모규제에 대해 ‘부당하다’(‘인권침해라 이의제기’ 8.0%, ‘부당하나 항의하지 않음’ 62.1%)는 응답이 높았다. 변인별로 보면 남학생(73.1%)이 여학생(67.2%)보다, 고등학생(71.5%)이 중학생(68.3%)보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상 65.8%, 중 70.7%, 하 72.6%)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71.4%, 중 70.1%, 하 69.1%) ‘부당하다’(‘인권침해라 이의제기’, ‘부당하나 항의하지 않음’)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Ⅲ-3-23〉 학교에서 두발 등 용모규제 대응태도(중·고등학생)

구 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항의하지 않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조치에 따름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8.0	62.1	29.9	100(5428)	
성별	남	10.0	63.1	26.8	100(2641)	42.627***
	여	6.1	61.1	32.8	100(2787)	
교급	중	9.2	59.1	31.7	100(2227)	15.342***
	고	7.3	64.2	28.6	100(3183)	
학업 성적	하	10.6	62.0	27.4	100(1870)	40.764***
	중	6.4	64.3	29.3	100(2084)	
	상	7.1	58.7	34.2	100(1464)	
가족 구성	양부모	7.9	62.3	29.7	100(4618)	.936
	한부모	8.1	60.5	31.4	100(669)	
	조손가정	8.7	62.3	29.0	100(69)	
경제 수준	하	9.3	59.8	30.9	100(418)	18.959**
	중	7.4	62.7	29.9	100(4546)	
	상	13.0	58.4	28.6	100(454)	



[그림 Ⅲ-3-4] 학교에서 두발 등 용모규제 대응태도(중·고등학생)

학교에서 복장규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10.8%만이 ‘경험했다’(‘가끔 경험’ 7.9%, ‘자주 경험’ 2.9%)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복장규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가족구성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조손가정일 경우(양부모 7.2%, 한부모 17%, 조손가정 25%) 복장규제 경험이 ‘있다’(‘가끔 경험’, ‘자주 경험’)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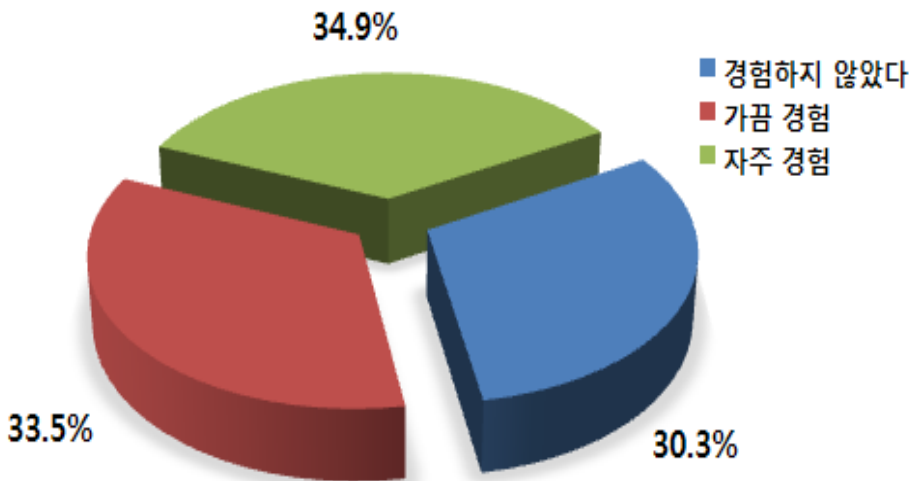
중·고등학생(68.4%)의 경우 초등학생(10.8%)보다 복장규제 경험이 ‘있다’(‘가끔 경험’ 33.5%, ‘자주 경험’ 34.9%)는 응답이 높았다. 변인별로 보면 여학생(82.7%)이 남학생(54.6%)보다, 고등학생(72.6%)이 중학생(63.4%)보다, 성적이 중위권 경우(상 68.5%, 중 68.8%, 하 68%),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양부모 68.7%, 한부모 65.9%, 조손가정 67.7%),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류층인 경우(상 64.2%, 중 68.9%, 하 67.8%) 복장규제 경험이 ‘있다’(‘가끔 경험’, ‘자주 경험’)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24> 학교에서 복장규제 경험(초등학생)

구 분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	자주 경험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89.2	7.9	2.9	100(2511)	
성별	남	89.5	7.6	2.9	100(1281)	455
	여	88.8	8.3	2.9	100(1230)	
학업 성적	하	87.5	9.0	3.6	100(335)	4.372
	중	88.5	8.1	3.4	100(1154)	
	상	90.5	7.2	2.2	100(983)	
가족 구성	양부모	89.8	4.6	2.6	100(2280)	19.268**
	한부모	83.1	10.8	6.2	100(195)	
	조손가정	75.0	25.0	0.0	100(20)	
경제 수준	하	88.9	5.6	5.6	100(36)	7.453
	중	89.0	8.5	2.4	100(1760)	
	상	89.7	6.4	3.8	100(702)	

〈표 III-3-25〉 학교에서 복장규제 경험(중·고등학생)

구 분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	자주 경험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0.3	33.5	34.9	100(7007)	
성별	남	43.7	27.3	27.3	100(3560)	640.175***
	여	16.4	39.9	42.8	100(3447)	
교급	중	34.9	33.2	30.2	100(3189)	88.018***
	고	26.4	33.6	39.0	100(3788)	
학업 성적	하	30.3	34.2	33.8	100(2424)	19.282**
	중	30.3	34.8	34.0	100(2720)	
	상	30.4	30.6	37.9	100(1845)	
가족 구성	양부모	30.2	33.3	35.4	100(5936)	20.159**
	한부모	31.7	33.3	32.6	100(889)	
	조손가정	28.1	39.6	28.1	100(96)	
경제 수준	하	29.9	31.3	36.5	100(521)	27.914***
	중	30.1	34.2	34.7	100(5865)	
	상	33.1	28.3	35.9	100(605)	



[그림 III-3-5] 학교에서 복장규제 경험(중·고등학생)

학교의 복장규제에 대한 대응 태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60.7%가 ‘부당하다’(‘인권침해라 이의제기’ 17.7%, ‘부당하나 항의하지 않음’ 43%)고 응답했다. 변인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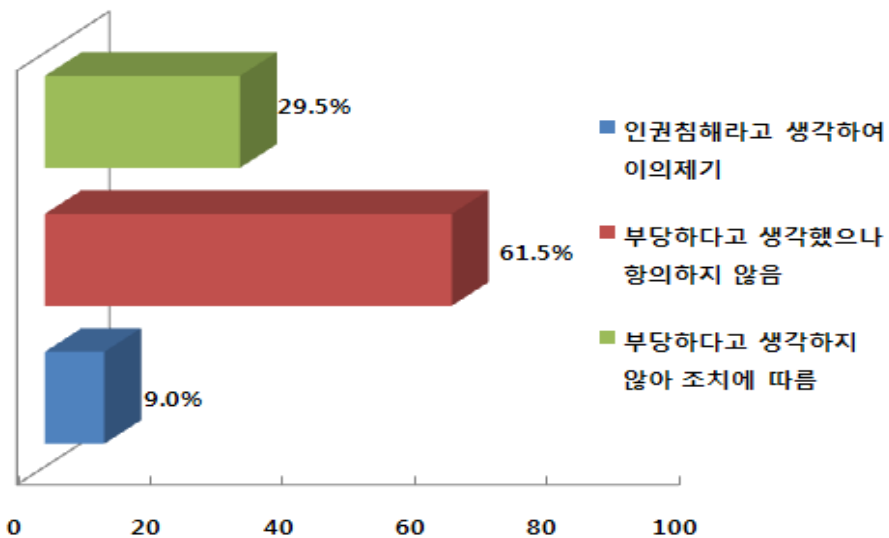
<표 III-3-26> 학교에서 복장규제 대응태도(초등학생)

구 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항의하지 않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조치에 따름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7.7	43.0	39.2	100(237)	
성별	남	16.9	41.5	41.5	100(118)	5.17
	여	18.5	44.5	37.0	100(119)	
학업 성적	하	22.9	37.1	40.0	100(35)	3.164
	중	15.9	48.6	35.5	100(107)	
	상	16.7	38.9	44.4	100(90)	
가족 구성	양부모	16.0	43.2	40.8	100(206)	7.551
	한부모	30.8	38.5	30.8	100(26)	
	조손가정	0.0	100.0	0.0	100(3)	
경제 수준	하	16.7	16.7	66.7	100(6)	7.405
	중	15.8	40.6	43.6	100(165)	
	상	20.6	52.4	27.0	100(63)	

중·고등학생(70.5%)의 경우 초등학생(60.7%)보다 복장규제에 대해 ‘부당하다’(‘인권침해라 이의제기’ 9.0%, ‘부당하나 항의하지 않음’ 61.5%)는 응답이 높았다. 변인별로 보면 남학생(71.8%)이 여학생(69.6%)보다, 고등학생(73.3%)이 중학생(67%)보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상 64.7%, 중 71.6%, 하 73.8%)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74.3%, 중 70.5%, 하 70.2%) ‘부당하다’(‘인권침해라 이의제기’, ‘부당하나 항의하지 않음’)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27〉 학교에서 복장규제 대응태도(중·고등학생)

구 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항의하지 않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조치에 따름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9.0	61.5	29.5	100(1897)	
성별	남	10.7	61.1	28.1	100(2757)	12.544 ^{**}
	여	7.8	61.8	30.4	100(4654)	
교급	중	10.3	56.7	33.0	100(1948)	34.032 ^{***}
	고	8.1	65.2	26.7	100(2684)	
학업 성적	하	11.4	62.4	26.2	100(1590)	43.071 ^{***}
	중	7.9	63.7	28.4	100(1806)	
	상	7.5	57.2	35.3	100(1248)	
가족 구성	양부모	8.6	62.0	29.4	100(3958)	3.269
	한부모	10.5	59.6	30.0	100(574)	
	조손가정	11.5	57.4	31.1	100(61)	
경제 수준	하	13.2	57.0	29.8	100(349)	17.278 ^{**}
	중	8.2	62.3	29.4	100(3917)	
	상	12.7	61.6	29.3	100(379)	



[그림 III-3-6] 학교에서 복장규제 대응태도(중·고등학생)

(2) 학교에서의 의견표현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의 자율권이 보장되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60.6%(‘그렇다’ 44.1%, ‘매우 그렇다’ 16.5%), 중·고등학생의 48.9%(‘그렇다’ 42.6%, ‘매우 그렇다’ 6.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의 자율권 보장에 있어 초등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61%)이 여학생(60.1%)보다, 성적이 중간정도일 경우(상 58.6%, 중 62.8%, 하 58.7%),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상 66.4%, 중 58.4%, 하 62.5%) ‘보장된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Ⅲ-3-28〉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의 자율권 보장 정도(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0.7	28.7	44.1	16.5	100(2558)	
성별	남	11.8	27.2	43.3	17.7	100(1308)	8.034 *
	여	9.6	30.3	45.0	15.1	100(1250)	
학업 성적	하	10.8	30.5	45.9	12.8	100(346)	28.109 ***
	중	8.8	28.3	48.0	14.8	100(1172)	
	상	12.4	28.9	39.0	19.6	100(999)	
가족 구성	양부모	10.5	28.8	44.0	16.7	100(2324)	3.470
	한부모	13.6	28.8	43.0	13.6	100(198)	
	조손가정	5.0	30.0	45.0	20.0	100(20)	
경제 수준	하	12.5	25.0	50.0	12.5	100(40)	65.328 ***
	중	10.0	31.7	45.1	13.3	100(1786)	
	상	12.4	21.2	41.7	24.7	100(717)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초등학생과 유사한 변인별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50.2%)이 남학생(47.8%)보다, 성적이 중간정도일 경우(중 50.6%, 상 48.0%, 하 47.8%),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상 50.7%, 중 49.4%, 하 42.1%) ‘자율권이 보장된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29〉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의 자율권 보장
정도(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9.1	32.0	42.6	6.3	100(6979)	
성별	남	21.0	31.2	40.5	7.3	100(3544)	33.353 ***
	여	17.0	32.8	44.8	5.4	100(3435)	
교급	중	18.7	33.3	41.7	6.3	100(3177)	4.018
	고	19.4	31.1	43.2	6.3	100(3773)	
학업 성적	하	20.2	31.9	41.6	6.2	100(2405)	33.342 *
	중	17.4	32.0	44.8	5.8	100(2717)	
	상	19.9	32.0	40.7	7.3	100(1841)	
가족 구성	양부모	18.8	31.9	43.1	6.2	100(5913)	8.627
	한부모	20.1	33.5	40.0	6.4	100(886)	
	조손가정	17.9	34.7	35.8	11.6	100(95)	
경제 수준	하	22.4	35.5	35.3	6.8	100(513)	40.368 ***
	중	18.4	32.2	43.5	5.9	100(5847)	
	상	22.1	27.1	40.3	10.4	100(605)	

징계대상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34.9%, 중·고등학생의 10.7%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소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잘 모르겠다’(초등학생 48.3%, 중·고등학생 64.8%)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35.5%)이 남학생(34.4%)보다,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상 40.8%, 중 31.1%, 하 31.8%),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상 34.8%, 중 32.8%, 하 31.6%) ‘소명권이 부여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12.3%)이 여학생(9.1%)보다, 중학생(12.0%)이 고등학생(9.1%)보다, 성적이 낮은 경우(하 12.0%, 상 10.5%, 중 9.7%), 조손가정인 경우(조손가정 18.1%, 양부모 10.4%, 한부모 11.3%),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상 13.8%, 중 10.2%, 하 12.9%) ‘소명권이 부여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30〉 징계(벌)대상 학생에게 입장표명 기회부여(초등학생)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4.9	16.8	48.3	100(2523)	
성별	남	34.4	19.6	46.0	100(1286)	15.580***
	여	35.5	13.8	50.7	100(1237)	
학업 성적	하	31.8	16.0	52.2	100(343)	34.295***
	중	31.1	15.8	53.1	100(1151)	
	상	40.8	18.0	41.1	100(987)	
가족 구성	양부모	35.5	16.7	47.8	100(2293)	3.769
	한부모	29.5	17.6	52.8	100(193)	
	조손가정	25.0	20.0	55.0	100(20)	
경제 수준	하	31.6	26.3	42.1	100(38)	31.378***
	중	32.8	15.3	51.9	100(1786)	
	상	34.8	20.1	40.0	100(702)	

〈표 III-3-31〉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0.7	24.5	64.8	100(6989)	
성별	남	12.3	25.6	62.1	100(3547)	28.406***
	여	9.1	23.4	67.5	100(3442)	
교급	중	12.0	20.5	67.6	100(3177)	57.188***
	고	9.5	28.0	62.4	100(3783)	
학업 성적	하	12.0	27.2	60.8	100(2415)	26.038***
	중	9.7	23.1	67.2	100(2716)	
	상	10.5	23.1	66.5	100(1843)	
가족 구성	양부모	10.4	24.2	65.4	100(5924)	11.504*
	한부모	11.3	27.5	61.5	100(885)	
	조손가정	18.1	22.3	59.6	100(94)	
경제 수준	하	12.9	28.2	58.9	100(518)	25.539***
	중	10.2	23.8	66.0	100(5856)	
	상	13.8	28.3	57.9	100(601)	

학교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제시가 가능한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77.2%(‘그렇다’ 45.9%, ‘매우 그렇다’ 31.3%), 중·고등학생의 51.5%(‘그렇다’ 42.9%, ‘매우 그렇다’ 8.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79.2%)이 남학생(75.1%)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79.1%, 중 77%, 하 71.8%),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79.9%, 중 76.6%, 하 57.5%)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32〉 학교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제시 가능여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6.6	16.4	45.9	31.3	100(2559)	
성별	남	8.2	16.7	44.2	30.9	100(1249)	13.649**
	여	4.8	16.0	47.8	31.4	100(1249)	
학업 성적	하	6.7	21.5	46.8	25.0	100(334)	31.062***
	중	5.7	17.2	48.6	28.4	100(1174)	
	상	7.4	13.5	43.2	35.9	100(998)	
가족 구성	양부모	6.3	16.2	46.1	31.4	100(2326)	3.667
	한부모	8.7	18.9	44.8	27.6	100(196)	
	조손가정	10.0	15.0	45.0	30.0	100(20)	
경제 수준	하	15.0	27.5	30.0	27.5	100(40)	54.663***
	중	5.9	17.6	48.9	27.7	100(1789)	
	상	7.4	12.7	39.6	40.3	100(715)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여학생(51.2%)이 남학생(46.8%)보다, 중학생(54.7%)이 고등학생(45.5%)보다, 성적이 낮을수록(하 53%, 중 50.1%, 상 45.4%),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54.5%, 중 49.6%, 하 48%)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33> 학교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제시 가능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9.7	30.4	42.9	8.6	100(6984)	
성별	남	21.2	28.6	41.5	5.3	100(3550)	45.128***
	여	18.2	32.2	44.2	7.0	100(3434)	
교급	중	17.0	28.3	45.9	8.8	100(3181)	75.343***
	고	22.2	32.2	40.2	5.3	100(3774)	
학업 성적	하	18.4	28.6	45.2	7.8	100(2414)	37.466***
	중	19.0	30.8	44.2	5.9	100(2710)	
	상	22.7	31.9	37.9	7.5	100(1844)	
가족 구성	양부모	19.8	30.2	43.1	6.9	100(5918)	8.969
	한부모	19.3	31.7	41.6	7.4	100(886)	
	조손가정	14.7	31.6	40.0	13.7	100(95)	
경제 수준	하	22.9	29.1	41.6	6.4	100(515)	33.177***
	중	19.4	31.0	43.1	6.5	100(5850)	
	상	20.7	25.3	42.0	12.5	100(605)	

(3)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지난 1년간 인터넷에 게시글 작성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30.9%(‘가끔 있다’ 23.6%, ‘자주 있다’ 7.3%), 중·고등학생의 68.7%(‘가끔 있다’ 38%, ‘자주 있다’ 30.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시글 작성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네 개 변인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32.2%)이 여학생(29.5%)보다, 성적이 낮은 경우(하 36.1%, 상 30.4%, 중 29.8%),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37.5%, 중 31.5%, 상 29.0%) ‘경험이 있다’(‘가끔 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75.5%)이 남학생(62.1%)보다, 고등학생(70.8%)이 중학생(66.2%)보다, 그리고 성적이 중위권일 경우(중 70.2%, 상 69.9%, 하 66%) ‘경험이 있다’(‘가끔 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34〉 지난 1년간 인터넷에 게시글 작성 경험(초등학생)

구 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7.2	32.0	23.6	7.3	100(2563)	
성별	남	35.7	32.1	23.4	8.8	100(1312)	9.978*
	여	38.7	31.8	23.8	5.7	100(1251)	
학업 성적	하	31.1	32.8	25.6	10.5	100(344)	42.113***
	중	34.4	35.8	24.4	5.4	100(1176)	
	상	42.9	26.8	22.1	8.3	100(1001)	
가족 구성	양부모	37.6	31.5	23.8	7.1	100(2327)	5.224
	한부모	34.0	35.0	22.5	8.5	100(200)	
	조손가정	31.6	47.4	10.5	10.5	100(19)	
경제 수준	하	37.5	25.0	25.0	12.5	100(40)	38.400***
	중	34.4	34.1	25.1	6.4	100(1791)	
	상	44.7	26.3	19.8	9.2	100(718)	

〈표 III-3-35〉 지난 1년간 인터넷에 게시글 작성 경험(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3.0	18.2	38.0	30.7	100(6985)	
성별	남	15.9	21.9	37.5	24.6	100(3544)	188.510***
	여	10.1	14.4	38.5	37.0	100(3441)	
교급	중	15.0	18.9	35.6	30.6	100(3174)	27.237***
	고	11.5	17.7	40.2	30.6	100(3781)	
학업 성적	하	14.6	19.4	36.8	29.2	100(2414)	18.610**
	중	12.3	17.5	39.8	30.4	100(2716)	
	상	12.1	17.9	36.8	33.1	100(1840)	
가족 구성	양부모	13.1	18.1	38.3	30.4	100(5919)	9.273
	한부모	12.0	18.5	36.3	30.4	100(885)	
	조손가정	18.9	22.1	28.4	30.5	100(95)	
경제 수준	하	13.1	16.4	36.4	34.1	100(519)	10.607
	중	13.1	18.1	38.5	30.3	100(5853)	
	상	12.3	21.7	34.3	31.7	100(600)	

지난 1년간 인터넷에 댓글 작성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29.5%(‘가끔 있다’ 22.4%, ‘자주 있다’ 7.1%), 중·고등학생의 35.5%(‘가끔 있

다' 24.6%, '자주 있다' 10.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인터넷 댓글 작성 경험이 중고등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적이 낮을수록(하 33.3%, 중 30.1%, 상 27.4%),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38.5%, 중 29.7%, 상 28.1%) '경험이 있다'('가끔 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생(36.1%)이 고등학생(34.9%)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40.3%, 중 35.9%, 하 31.3%),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상 40.1%, 중 34.7%, 하 39.8%) '경험이 있다'('가끔 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36〉 지난 1년간 인터넷에서 댓글 작성 경험(초등학생)

구 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9.2	31.3	22.4	7.1	100(2541)	
성별	남	37.8	31.5	23.0	7.6	100(1303)	2.778
	여	40.6	31.1	21.7	6.5	100(1238)	
학업 성적	하	34.7	32.1	25.9	7.4	100(340)	32.663***
	중	35.5	34.3	23.9	6.2	100(1165)	
	상	45.0	27.6	19.3	8.1	100(997)	
가족 구성	양부모	40.0	30.9	22.1	7.0	100(2307)	7.163
	한부모	30.5	35.0	25.0	8.1	100(197)	
	조손가정	40.0	30.0	25.0	5.0	100(20)	
경제 수준	하	35.9	25.6	28.2	10.3	100(39)	29.990***
	중	36.9	33.4	23.5	6.2	100(1779)	
	상	45.8	26.2	19.2	8.9	100(710)	

〈표 III-3-37〉 지난 1년간 인터넷에서 댓글 작성 경험(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3.3	31.2	24.6	10.9	100(6956)	
성별	남	32.7	30.4	25.7	11.2	100(3534)	6.578
	여	34.0	31.9	23.5	10.5	100(3422)	
교급	중	34.2	29.7	24.1	12.0	100(3161)	13.746**
	고	32.7	32.4	25.1	9.8	100(3765)	
학업 성적	하	36.6	32.1	21.7	9.6	100(2404)	440.837***
	중	32.2	31.9	25.1	10.8	100(2708)	
	상	30.8	28.9	27.7	12.6	100(1829)	
가족 구성	양부모	33.8	31.0	24.5	10.8	100(5896)	3.215
	한부모	31.1	33.0	24.5	11.4	100(880)	
	조손가정	32.6	29.5	27.4	10.5	100(95)	
경제 수준	하	30.8	29.4	26.5	13.3	100(513)	14.047*
	중	33.7	31.7	24.3	10.4	100(5831)	
	상	31.9	28.0	26.7	13.4	100(599)	

(4)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을 대할 때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의 46.3%(‘그렇다’ 35.9%, ‘매우 그렇다’ 10.4%), 중·고등학생의 73%(‘그렇다’ 53.8%, ‘매우 그렇다’ 19.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중·고등학생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높은 경우(상 50%, 중 43.8%, 하 46.1%),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류층일 경우(중 46.9%, 상 46%, 하 40%)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78.3%)이 남학생(67.9%)보다, 고등학생(78.3%)이 중학생(66.4%)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76.1%, 중 72.4%, 하 71.4%),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류층일 경우(중 72.1%, 하 69.7%, 상 68.1%) ‘그렇다’(‘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38〉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9.3	34.3	35.9	10.4	100(2565)	
성별	남	19.4	34.7	34.3	11.7	100(1312)	5.910
	여	19.2	34.0	37.7	9.2	100(1253)	
학업 성적	하	18.7	35.3	34.7	11.4	100(343)	13.646*
	중	18.6	37.6	34.4	9.4	100(1179)	
	상	19.6	30.4	38.4	11.6	100(1002)	
가족 구성	양부모	19.2	34.8	35.9	10.1	100(2328)	4.901
	한부모	19.5	30.0	37.5	13.0	100(200)	
	조손가정	25.0	20.0	45.0	10.0	100(20)	
경제 수준	하	17.5	42.5	22.5	17.5	100(40)	46.303***
	중	16.5	36.6	37.3	9.6	100(1789)	
	상	26.2	27.8	33.8	12.2	100(722)	

〈표 III-3-39〉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6	22.5	53.8	19.2	100(6984)	
성별	남	6.2	26.0	49.3	18.6	100(3545)	110.921***
	여	2.9	18.8	58.4	19.9	100(3439)	
교급	중	6.5	27.1	50.7	15.7	100(3172)	147.046***
	고	3.0	18.6	56.2	22.1	100(3782)	
학업 성적	하	5.8	22.8	52.1	19.3	100(2413)	34.818***
	중	3.9	23.7	55.2	17.2	100(2714)	
	상	4.0	19.9	54.1	22.0	100(1842)	
가족 구성	양부모	4.4	22.1	54.2	19.3	100(5919)	11.703
	한부모	5.2	23.7	52.0	19.1	100(885)	
	조손가정	10.5	25.3	47.4	16.8	100(95)	
경제 수준	하	7.3	17.2	50.4	19.3	100(243)	34.818***
	중	3.9	22.6	54.9	17.2	100(2714)	
	상	8.2	25.5	46.1	22.0	100(1842)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을 대할 때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의 48.1%(‘그렇다’ 37%, ‘매우 그렇다’ 11.1%), 중·고등학생의 77.2%(‘그렇다’ 55.2%, ‘매우 그렇다’ 2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중·고등학생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높은 경우(상 49%, 하 48.8%, 중 47.6%),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상 43.5%, 중 49.9%, 하 56.4%)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가족구성,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82.1%)이 남학생(72.3%)보다, 고등학생(83%)이 중학생(70%)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79.1%, 중 78.2%, 하 74.4%), 양부모와 함께 살 경우(양부모 77.7%, 한부모 75.6%, 조손가정 60%),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80.7%, 중 77.1%, 상 73.5%) ‘그렇다’(‘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40〉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0.3	31.6	37.0	11.1	100(2555)	
성별	남	20.0	32.3	35.6	12.1	100(1302)	4.367
	여	20.6	30.9	38.5	10.1	100(1253)	
학업 성적	하	19.6	31.6	37.7	11.1	100(342)	18.637**
	중	17.9	34.6	37.8	9.8	100(1175)	
	상	22.8	28.2	36.1	12.9	100(997)	
가족 구성	양부모	20.3	31.8	36.9	10.9	100(2320)	5.520
	한부모	18.1	28.6	39.2	14.1	100(199)	
	조손가정	26.3	31.6	42.1	0.0	100(19)	
경제 수준	하	23.1	20.5	43.6	12.8	100(39)	44.560***
	중	17.4	32.6	39.7	10.2	100(1784)	
	상	27.0	29.5	30.1	13.4	100(718)	

〈표 III-3-41〉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4	18.5	55.2	22.0	100(6982)	
성별	남	5.8	21.9	51.0	21.3	100(3543)	100.775***
	여	3.0	14.9	59.5	22.6	100(3439)	
교급	중	6.1	23.9	51.1	19.0	100(3171)	170.152***
	고	3.1	13.8	58.6	24.4	100(3781)	
학업 성적	하	5.2	20.4	53.1	21.3	100(2411)	42.465***
	중	4.1	17.7	58.5	19.7	100(2714)	
	상	3.9	17.0	53.0	26.1	100(1842)	
가족 구성	양부모	4.2	18.1	55.7	22.0	100(5917)	21.268**
	한부모	5.1	19.3	53.2	22.4	100(885)	
	조손가정	10.5	29.5	45.3	14.7	100(95)	
경제 수준	하	6.0	13.3	51.5	29.2	100(518)	58.626***
	중	3.9	19.0	55.9	21.2	100(5850)	
	상	8.8	17.6	51.2	22.3	100(601)	

우리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43.4%(‘그렇다’ 34.1%, ‘매우 그렇다’ 9.3%), 중·고등학생의 70.6%(‘그렇다’ 51.2%, ‘매우 그렇다’ 19.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중·고등학생이 대중매체의 부정적 역할로 인해 발언권을 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45.1%)이 여학생(41.7%)보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51.3%, 중 44.1%, 상 41.9%)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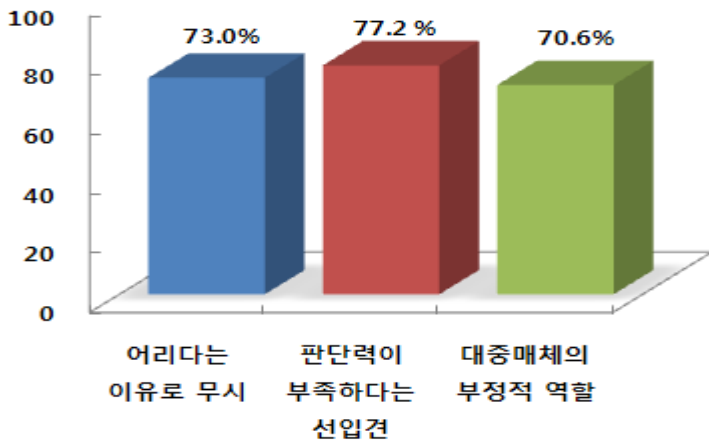
〈표 III-3-42〉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 대중매체의 부정적 역할(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9.5	37.0	34.1	9.3	100(2536)	
성별	남	19.7	35.2	34.4	10.7	100(1286)	8.049 ***
	여	19.4	38.9	33.9	7.8	100(1250)	
학업 성적	하	17.4	36.8	35.3	10.6	100(340)	8.811
	중	18.8	39.2	33.9	8.0	100(1162)	
	상	20.3	34.9	34.0	10.7	100(993)	
가족 구성	양부모	19.8	37.1	33.7	9.4	100(2302)	7.126
	한부모	16.2	34.5	41.6	7.6	100(197)	
	조손가정	15.0	50.0	25.0	10.0	100(20)	
경제 수준	하	25.6	23.1	38.5	12.8	100(39)	42.304 ***
	중	16.6	39.3	35.5	8.6	100(1770)	
	상	26.4	31.7	31.0	10.9	100(713)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73.8%)이 남학생(67.6%)보다, 고등학생(76.6%)이 중학생(63.3%)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71.8%, 중 70.8%, 하 69.4%),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74.2%, 중 70.7%, 상 66.6%) ‘그렇다’(‘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43〉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 대중매체의 부정적 역할(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9	24.5	51.2	19.4	100(6966)	
성별	남	6.5	25.9	47.7	19.9	100(3535)	63.420 ***
	여	3.2	23.1	54.9	18.9	100(3431)	
교급	중	7.0	29.7	46.1	17.2	100(3163)	157.798 ***
	고	3.2	20.2	55.4	21.2	100(3773)	
학업 성적	하	5.6	25.0	49.7	19.7	100(2406)	18.407 **
	중	4.7	24.5	53.3	17.5	100(2707)	
	상	4.2	24.0	50.2	21.6	100(1838)	
가족 구성	양부모	4.8	14.4	51.3	19.5	100(5902)	11.003
	한부모	5.1	23.9	52.3	18.8	100(884)	
	조손가정	9.5	33.7	38.9	17.9	100(95)	
경제 수준	하	6.6	19.2	49.8	24.4	100(516)	52.225 ***
	중	4.3	25.0	52.1	18.6	100(5837)	
	상	9.0	24.3	44.3	22.3	100(600)	



[그림 III-3-7]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중·고등학생)

03) 집회·결사의 자유

(1) 학교에서의 집회·결사

학생회나 학급회 참여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급회나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의 58.2%(‘그렇다’ 39.4%, ‘매우 그렇다’ 18.8%), 중·고등학생의 29.9%(‘그렇다’ 25.6%, ‘매우 그렇다’ 4.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이 학생회나 학급회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네 개 변인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58.4%)이 여학생(57.9%)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62.3%, 중 57.6%, 하 46.9%),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양부모 59.1%, 한부모 47.5%, 조손 가정 47.5%),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67.4%, 중 54.6%, 하 50%)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44> 학생회나 학급회 참여도(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2.5	29.4	39.4	18.8	100(2544)	
성별	남	14.2	27.4	39.7	18.7	100(1300)	10.282 *
	여	10.6	31.4	39.1	18.8	100(1244)	
학업 성적	하	18.4	34.7	33.8	13.1	100(346)	37.366 ***
	중	11.8	30.7	40.8	16.8	100(1163)	
	상	11.2	26.5	39.7	22.6	100(996)	
가족 구성	양부모	11.7	29.1	40.4	18.7	100(2310)	16.442 *
	한부모	19.7	32.8	29.3	18.2	100(198)	
	조손가정	10.0	35.0	40.0	15.0	100(20)	
경제 수준	하	25.0	25.0	27.5	22.5	100(40)	81.939 ***
	중	12.4	33.0	39.7	14.9	100(1777)	
	상	12.1	20.5	39.3	28.1	100(712)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32.3%)이 여학생(27.5%)보다, 중학생(33.9%)이 고등학생(26.5%)보

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31.9%, 중 29.2%, 하 29.1%),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7.6%, 중 29.3%, 하 27.7%)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45〉 학생회나 학급회 참여도(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5.3	44.8	25.6	4.3	100(6970)	
성별	남	26.7	41.1	26.8	5.5	100(3533)	53.128***
	여	23.8	48.7	24.3	3.2	100(3437)	
교급	중	21.7	44.4	28.4	5.5	100(3167)	68.561***
	고	28.4	45.2	23.1	3.4	100(3773)	
학업 성적	하	26.7	44.2	25.3	3.8	100(2401)	24.021**
	중	23.7	47.2	25.4	3.8	100(2713)	
	상	25.9	42.2	26.1	5.8	100(1841)	
가족 구성	양부모	25.1	45.0	25.4	4.4	100(5906)	7.648
	한부모	25.7	45.5	25.1	3.6	100(883)	
	조손가정	25.3	35.8	30.5	8.4	100(95)	
경제 수준	하	29.7	42.6	23.4	4.3	100(516)	47.751***
	중	24.6	46.1	25.3	4.0	100(5843)	
	상	27.5	34.8	29.6	8.0	100(597)	

(2) 학교 밖에서의 집회·결사

학교의 교내/교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18.4%만이 교내/교외 동아리활동을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64.9%로 높게 나타나 동아리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나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모두 낮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학교에서의 동아리활동을 인정하는 비율은 18.4%와 12.6%를 합해보면 31.0%).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가족구성, 경제수준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18.5%)이 남학생(18.4%)보다, 고등학생(19.7%)이 중학생(16.9%)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20.6%, 중 18.3%, 하 17%),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양부모 18.9%, 한부모 16.2%, 조손가정 13.7%) 그리고 경제수

준이 높을수록(상 19.6%, 중 18.5%, 하 16.4%) 동아리활동 허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6〉 학교의 교내/교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학교안 학교밖 활동 모두인정	학교안 활동만 인정	학교밖 활동만 인정	둘다 인정하지 않음	모르겠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8.4	12.6	1.1	3.0	64.9	100(6964)	
성별	남	18.4	13.3	1.6	4.0	62.7	49.887***
	여	18.5	11.8	0.6	1.9	67.2	
교급	중	16.9	8.1	1.4	2.9	70.7	131.620***
	고	19.7	16.3	0.9	3.0	60.1	
학업 성적	하	17.0	12.6	1.2	4.1	65.1	25.341**
	중	18.3	12.5	1.0	2.2	65.9	
	상	20.6	12.5	1.1	2.7	63.1	
가족 구성	양부모	18.9	12.6	0.9	2.5	65.1	54.440***
	한부모	16.2	11.6	2.5	5.3	64.4	
	조손가정	13.7	17.9	2.1	7.4	58.9	
경제 수준	하	16.4	13.9	2.3	5.2	62.1	24.456**
	중	18.5	12.4	1.0	2.7	65.4	
	상	19.6	13.1	1.7	3.5	62.1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토론,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서명운동 참여 등 네 가지 활동의 경험수준을 물어보았다.

먼저 토론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48.3%(‘가끔 있다’ 37.1%, ‘자주 있다’ 11.2%), 중·고등학생의 34.2%(‘가끔 있다’ 29.2%, ‘자주 있다’ 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이 토론을 통한 사회문제 참여 행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변인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적이 높을수록(상 51.6%, 중 48.7%, 하 36.7%), 그리고 경제수준이 상위층인 경우(상 55.7%, 중 45.1%, 하 55%) ‘경험이 있다’(‘가끔 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47〉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토론(초등학생)

구 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3.9	27.8	37.1	11.2	100(2559)	
성별	남	25.3	26.7	36.6	11.4	100(1307)	3.774
	여	22.4	28.9	37.7	11.0	100(1252)	
학업 성적	하	30.9	32.4	28.3	8.4	100(346)	40.908 ***
	중	21.8	29.5	39.6	9.1	100(1170)	
	상	24.1	24.4	37.5	14.1	100(1002)	
가족 구성	양부모	23.5	27.6	37.5	11.4	100(2323)	4.734
	한부모	26.6	31.2	34.2	8.0	100(199)	
	조손가정	30.0	20.0	40.0	10.0	100(20)	
경제 수준	하	22.5	22.5	47.5	7.5	100(40)	59.895 ***
	중	23.8	31.1	36.3	8.8	100(1789)	
	상	24.6	19.7	38.4	17.3	100(716)	

중고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변인별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37.6%)이 남학생(33.2%)보다, 고등학생(37%)이 중학생(44.3%)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41.2%, 중 35.3%, 하 31.2%), 그리고 경제수준이 상위층인 경우(상 45.9%, 하 35.3%, 중 34.4%) ‘경험이 있다’(‘가끔 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48〉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토론(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2.1	32.5	29.2	5.0	100(6974)	
성별	남	33.1	33.7	28.2	5.0	100(3537)	23.966***
	여	31.0	31.3	30.2	7.4	100(3437)	
교급	중	31.4	35.2	27.5	5.9	100(3170)	20.209***
	고	32.7	30.3	30.5	6.5	100(3774)	
학업 성적	하	35.5	33.4	26.1	5.1	100(2410)	61.934***
	중	31.6	33.2	29.9	5.4	100(2712)	
	상	28.6	30.2	32.5	8.7	100(1837)	
가족 구성	양부모	31.8	32.6	29.4	6.2	100(5910)	3.304
	한부모	33.6	31.4	28.3	6.7	100(884)	
	조손가정	28.4	36.8	30.5	4.2	100(95)	
경제 수준	하	37.1	27.6	30.7	4.6	100(518)	45.639***
	중	32.1	33.5	28.4	6.0	100(5843)	
	상	27.5	26.7	36.2	9.7	100(600)	

모임이나 카페 가입 등의 사회참여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29.2%(‘가끔 있다’ 19.6%, ‘자주 있다’ 9.6%), 중·고등학생의 31%(‘가끔 있다’ 23%, ‘자주 있다’ 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고등학생이 모임이나 카페 가입을 통한 사회문제 참여 행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변인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적이 상위권일 경우(상 32.1%, 하 30.1%, 중 26.5%), 그리고 경제수준이 상위층인 경우(상 31.5%, 중 28.2%, 하 28.2%) ‘경험이 있다’(‘가끔 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변인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31.7%)이 여학생(30.2%)보다, 중학생(37%)이 고등학생(25.9%)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34.7%, 중 32%, 하 27%),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8.5%, 중 30.4%, 하 29%) ‘경험이 있다’(‘가끔 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49〉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모임이나 카페 가입(초등학생)

구 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8.3	22.6	19.6	9.6	100(2543)	
성별	남	47.6	23.5	20.1	8.9	100(1296)	2.690
	여	48.9	21.7	19.2	10.3	100(1247)	
학업 성적	하	45.8	24.2	21.6	8.5	100(343)	20.007**
	중	48.1	25.3	18.8	7.7	100(1164)	
	상	49.6	19.3	19.4	11.7	100(995)	
가족 구성	양부모	48.7	22.0	19.6	9.7	100(2308)	8.414
	한부모	43.7	30.2	19.1	7.0	100(199)	
	조손가정	45.0	20.0	20.0	15.0	100(20)	
경제 수준	하	38.5	33.3	23.1	5.1	100(39)	17.409**
	중	48.7	23.1	19.9	8.3	100(1780)	
	상	48.9	20.6	18.5	13.0	100(710)	

〈표 III-3-50〉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모임이나 카페 가입(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3.6	25.4	23.0	8.0	100(6970)	
성별	남	41.5	26.7	23.9	7.8	100(3536)	14.414**
	여	45.7	24.1	22.0	8.2	100(3434)	
교급	중	38.1	24.9	26.0	11.0	100(3169)	130.859***
	고	48.3	25.9	20.4	5.5	100(3771)	
학업 성적	하	47.0	26.0	20.6	6.4	100(2409)	58.362***
	중	41.1	26.8	24.6	7.4	100(2708)	
	상	42.7	22.6	23.7	11.0	100(1838)	
가족 구성	양부모	43.8	25.4	22.9	8.0	100(5908)	2.957
	한부모	42.8	24.7	23.8	8.8	100(884)	
	조손가정	39.4	30.9	21.3	8.5	100(94)	
경제 수준	하	45.3	25.7	22.4	6.6	100(517)	29.041***
	중	44.2	25.4	22.7	7.7	100(5839)	
	상	35.8	25.8	26.0	12.5	100(601)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의 21%('가끔 있다' 16.8%, '자주 있다' 4.2%), 중·고등학교의 11.3%('가끔 있다' 9.8%, '자주 있다' 1.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초등학교가 거리집회나 문화행사를 통한 사회문제 참여 행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교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변인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적이 높을수록(상 21.4%, 중 20.9%, 하 18.8%), 그리고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경우(하 32.5%, 상 26.4%, 중 18.3%) '경험이 있다'('가끔 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51〉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초등학교)

구 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51.1	27.1	16.8	4.2	100(2528)	
성별	남	49.3	28.6	17.9	4.1	100(1289)	4.304
	여	53.0	27.1	15.6	4.3	100(1239)	
학업 성적	하	51.5	29.7	15.6	3.2	100(344)	23.796 **
	중	48.7	30.4	17.9	3.0	100(1155)	
	상	54.5	24.2	15.6	5.8	100(988)	
가족 구성	양부모	51.6	28.0	16.3	4.1	100(2294)	7.573
	한부모	47.0	27.3	22.2	3.5	100(198)	
	조손가정	57.9	27.9	10.5	10.5	100(19)	
경제 수준	하	40.0	27.5	30.0	2.5	100(40)	46.398 ***
	중	52.5	29.2	15.6	2.7	100(1769)	
	상	48.4	25.0	18.7	7.7	100(705)	

중고등학교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변인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12.9%)이 여학생(9.6%)보다, 중학생(13.5%)이 고등학교(9.4%)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12.3%, 중 11.1%, 하 10.1%), 그리고 경제수준이 상위층인 경우(상 20%, 중 10.4%, 하 11.6%) '경험이 있다'('가끔 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52〉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60.4	28.3	9.8	1.5	100(6971)	
성별	남	57.3	29.8	11.2	1.7	100(3539)	34.727***
	여	63.7	26.7	8.2	1.4	100(3432)	
교급	중	56.0	30.5	11.4	2.1	100(3167)	56.738***
	고	64.2	26.3	8.3	1.1	100(3774)	
학업 성적	하	60.8	29.1	9.1	1.0	100(2408)	34.484***
	중	58.4	29.9	10.3	1.4	100(2709)	
	상	63.1	24.6	9.8	2.5	100(1839)	
가족 구성	양부모	60.9	28.0	9.5	1.6	100(5912)	11.104
	한부모	58.0	29.3	11.8	0.9	100(882)	
	조손가정	52.7	33.3	12.9	1.1	100(93)	
경제 수준	하	62.2	26.2	11.0	0.6	100(516)	83.964***
	중	61.2	28.4	9.1	1.3	100(5841)	
	상	52.1	28.0	14.8	5.2	100(601)	

서명운동을 통한 사회문제 참여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14.4%(‘가끔 있다’ 10.4%, ‘자주 있다’ 4.0%), 중·고등학생의 29.8%(‘가끔 있다’ 25.1%, ‘자주 있다’ 4.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고등학생이 서명운동을 통한 사회문제 참여 행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변인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적이 상위권일 경우(상 14.9%, 하 14.2%, 중 13.6%), 그리고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경우(하 25%, 상 18.7%, 중 12.2%) ‘경험이 있다’(‘가끔 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변인별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34.9%)이 남학생(24.7%)보다, 고등학생(32.5%)이 중학생(26.5%)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33%, 중 31.4%, 하 25.2%), 그리고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경우(하 36.2%, 상 31.8%, 중 29.8%) ‘경험이 있다’(‘가끔 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53〉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서명운동(초등학생)

구 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62.7	23.0	10.4	4.0	100(2528)	
성별	남	61.0	23.4	10.8	4.7	100(1288)	5.925
	여	64.4	22.5	9.9	3.1	100(1240)	
학업 성적	하	59.3	26.5	9.3	4.9	100(344)	19.368**
	중	61.1	25.3	10.8	2.8	100(1152)	
	상	65.7	19.4	10.3	4.6	100(991)	
가족 구성	양부모	63.1	22.8	10.4	3.8	100(2293)	2.816
	한부모	60.8	24.6	10.6	4.0	100(199)	
	조손가정	57.9	21.1	10.5	10.5	100(19)	
경제 수준	하	37.5	37.5	17.5	7.5	100(40)	50.072***
	중	63.4	24.4	9.7	2.5	100(1768)	
	상	62.6	18.7	11.3	7.4	100(706)	

〈표 III-3-54〉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서명운동(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2.8	27.5	25.1	4.7	100(6974)	
성별	남	45.3	30.0	20.1	4.6	100(3539)	97.941***
	여	40.1	24.9	30.2	4.7	100(3435)	
교급	중	45.4	28.1	21.1	5.4	100(3170)	52.889***
	고	40.6	27.0	28.4	4.1	100(3774)	
학업 성적	하	46.3	28.5	21.1	4.1	100(2410)	45.976***
	중	40.5	28.1	27.0	4.4	100(2710)	
	상	41.8	25.2	27.1	5.9	100(1839)	
가족 구성	양부모	43.2	27.7	24.6	4.6	100(5913)	5.543
	한부모	40.9	26.4	27.5	5.2	100(883)	
	조손가정	41.5	30.9	22.3	5.3	100(94)	
경제 수준	하	40.4	23.4	30.2	6.0	100(517)	41.644***
	중	43.0	27.9	24.9	4.1	100(5843)	
	상	41.3	27.0	22.8	9.0	100(601)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모임을 만들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중·고등학생의 48.6%가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렇다’ 37.2%, ‘매우
그렇다’ 11.4%).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가족구성, 경
제수준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48.6%)이 여학생(48.5%)보다,
중학생(52%)이 고등학생(45.8%)보다,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중 50.1%, 상
48%, 하 47.3%),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양부모 48%, 한부모 46.1%, 조손가
정 40.5%),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51.6%, 중 48.9%, 하 43.2%) ‘보
장받고 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55>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보장정도에 대한 인식(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5.2	36.2	37.2	11.4	100(6876)	
성별	남	16.1	35.3	36.6	12.0	100(3472)	8.849*
	여	14.2	37.2	37.8	10.7	100(3404)	
교급	중	14.2	33.8	40.6	11.4	100(3113)	30.107***
	고	16.0	38.2	34.4	11.4	100(3734)	
학업 성적	하	16.4	36.2	36.4	11.0	100(2385)	14.584*
	중	13.9	36.0	39.3	10.8	100(2672)	
	상	15.4	36.5	35.3	12.7	100(1805)	
가족 구성	양부모	14.9	36.1	38.0	11.0	100(5828)	15.018*
	한부모	15.7	38.2	33.0	13.1	100(870)	
	조손가정	22.3	37.2	27.7	12.8	100(94)	
경제 수준	하	20.5	36.3	29.3	13.9	100(512)	37.955***
	중	14.4	36.7	38.0	10.9	100(5761)	
	상	18.1	31.7	37.2	14.4	100(590)	

4)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1) 알권리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공지책임 이행정도를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80.8%(‘그렇다’ 50.6%, ‘매우 그렇다’ 30.2%), 중·고등학생의 69.5%(‘그렇다’
57.1%, ‘매우 그렇다’ 12.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

정 공지책임 이행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교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84.1%)이 남학생(77.5%)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81.7%, 중 80.8%, 하 77%),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84.2%, 중 79.8%, 하 65%)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56>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공지책임 이행정도(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5.1	14.1	50.6	30.2	100(2543)	
성별	남	6.8	15.7	50.1	27.4	100(1301)	25.497***
	여	3.4	12.5	51.1	33.0	100(1242)	
학업 성적	하	6.7	15.5	50.7	27.0	100(341)	22.014**
	중	4.6	14.6	54.2	26.6	100(1161)	
	상	4.9	13.3	47.0	34.7	100(999)	
가족 구성	양부모	5.0	13.8	50.9	30.3	100(2310)	7.081
	한부모	5.6	15.7	50.3	28.4	100(197)	
	조손가정	10.0	30.0	30.0	30.0	100(20)	
경제 수준	하	10.0	25.0	37.5	27.5	100(40)	65.622***
	중	4.9	15.3	54.0	25.8	100(1773)	
	상	5.2	10.6	43.2	41.0	100(715)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72.7%)이 남학생(36.5%)보다, 중학생(74.1%)이 고등학생(65.5%)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31.9%, 중 29.2%, 하 29.1%),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류층인 경우(상 67.6%, 중 70.1%, 하 64.6%)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57〉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공지책임 이행정도(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9.9	20.5	57.1	12.4	100(6976)	
성별	남	12.2	21.4	23.3	13.2	100(3539)	60.679***
	여	7.6	19.7	61.0	11.7	100(3437)	
교급	중	7.8	18.1	58.7	15.4	100(3165)	86.945***
	고	11.8	22.7	55.5	10.0	100(3783)	
학업 성적	하	10.3	19.5	57.4	12.9	100(2409)	17.725**
	중	8.4	21.3	58.2	12.1	100(2714)	
	상	11.9	20.7	55.1	12.4	100(1837)	
가족 구성	양부모	9.9	20.3	57.5	12.3	100(5912)	7.429
	한부모	9.9	21.6	55.7	12.8	100(885)	
	조손가정	9.6	22.3	47.9	20.2	100(94)	
경제 수준	하	12.0	23.4	52.8	11.8	100(517)	49.114***
	중	9.3	20.6	58.2	11.9	100(5844)	
	상	15.0	17.5	49.8	17.8	100(601)	

학생생활규정, 자치규정 등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80.4%(‘그렇다’ 50.4%, ‘매우 그렇다’ 30%), 중·고등학생의 59.4%(‘그렇다’ 51.9%, ‘매우 그렇다’ 7.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이 학생생활규정, 자치규정 등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높을수록(상 83.7%, 중 79.5%, 하 72.8%),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85.4%, 중 78.6%, 하 67.5%)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63.1%)이 남학생(55.7%)보다, 중학생(63%)이 고등학생(56.3%)보다, 성적이 중위권일 경우(상 58.7%, 중 60.5%, 하 58.7%),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63.3%, 중 59.3%, 하 52.9%)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58〉 학교나 학급 규칙 인지도(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8	14.8	50.4	30.0	100(2544)	
성별	남	5.8	14.8	50.8	28.5	100(1302)	7.542
	여	3.8	14.8	40.4	31.5	100(1242)	
학업 성적	하	7.0	20.2	49.3	23.5	100(341)	48.779 ***
	중	4.8	15.7	54.1	25.4	100(1165)	
	상	4.2	12.0	47.3	36.4	100(996)	
가족 구성	양부모	4.6	14.5	50.6	30.3	100(2311)	5.962
	한부모	6.6	17.8	49.7	25.9	100(197)	
	조손가정	10.0	15.0	55.0	20.0	100(20)	
경제 수준	하	10.0	22.5	45.0	22.5	100(40)	83.942 ***
	중	4.8	16.6	53.6	25.0	100(1778)	
	상	4.8	9.8	43.0	42.4	100(712)	

〈표 III-3-59〉 학생생활규정, 자치규정 등 인지도(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2.5	28.1	51.9	7.5	100(6974)	
성별	남	15.5	28.8	47.6	8.1	100(3541)	81.441 ***
	여	9.4	27.4	56.3	6.8	100(3433)	
교급	중	11.3	25.7	52.8	10.2	100(3168)	76.270 ***
	고	13.6	60.2	51.0	5.3	100(3777)	
학업 성적	하	12.2	29.0	51.2	7.5	100(2410)	16.950 **
	중	11.3	28.3	53.4	7.1	100(2708)	
	상	14.7	26.6	50.5	8.2	100(1841)	
가족 구성	양부모	12.5	28.4	51.9	7.3	100(5936)	5.269
	한부모	12.3	26.4	52.8	8.5	100(889)	
	조손가정	12.6	27.4	48.4	11.6	100(96)	
경제 수준	하	15.7	29.4	47.4	7.5	100(517)	52.276 ***
	중	11.8	28.9	52.3	7.0	100(5844)	
	상	16.5	20.2	50.9	12.4	100(599)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로서, 어린이 및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내용을 쉽게 풀이한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26%(‘그렇다’ 22.5%, ‘매우 그렇다’ 3.5%), 중·고등학생의 20.4%(‘그렇다’ 19.6%, ‘매우 그렇다’ 0.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이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 내용을 쉽게 풀이한 어린이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높을수록(상 30.4%, 중 24.7%, 하 17.7%),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1.9%, 중 23.7%, 하 23.1%)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60> 아동용 정책 홍보자료 제공 여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9.3	34.7	22.5	3.5	100(2541)	
성별	남	38.9	35.2	21.3	4.0	100(1294)	2.944
	여	39.7	34.1	23.3	3.0	100(1247)	
학업 성적	하	44.6	37.6	16.0	1.7	100(343)	35.171***
	중	37.7	37.6	22.1	2.6	100(1166)	
	상	39.0	30.5	25.3	5.1	100(992)	
가족 구성	양부모	39.5	34.6	22.2	3.6	100(2305)	9.834
	한부모	36.7	35.7	26.6	1.0	100(199)	
	조손가정	25.0	45.0	20.0	10.0	100(20)	
경제 수준	하	43.6	33.3	20.5	2.6	100(39)	45.222***
	중	38.7	37.7	21.4	2.3	100(1774)	
	상	40.8	27.3	25.4	6.5	100(713)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22.1%)이 여학생(18.8%)보다, 중학생(25.2%)이 고등학생(16.5%)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20.5%, 중 21.1%, 하 19.5%),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26.1%, 중 20.4%, 하 14.5%)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61〉 청소년용 정책 홍보자료 제공 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4.9	44.6	19.6	0.8	100(6882)	
성별	남	33.7	44.2	21.0	1.1	100(3478)	13.842***
	여	36.2	45.0	18.2	0.6	100(3404)	
교급	중	30.7	44.2	24.0	1.2	100(3105)	93.447***
	고	38.6	45.0	15.9	0.6	100(3748)	
학업 성적	하	35.8	44.7	18.7	0.8	100(2378)	31.330***
	중	32.3	46.5	20.7	0.4	100(2682)	
	상	37.8	41.7	19.1	1.4	100(1808)	
가족 구성	양부모	34.4	45.0	19.8	0.8	100(5827)	7.468
	한부모	38.1	41.7	19.4	0.8	100(876)	
	조손가정	35.8	46.3	15.8	2.1	100(95)	
경제 수준	하	44.9	40.6	14.1	0.4	100(512)	56.085***
	중	34.3	45.3	19.7	0.7	100(5767)	
	상	32.5	41.4	23.6	2.5	100(590)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쉽게 풀어쓴 어린이용(청소년용)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14.1%(‘그렇다’ 11.6%, ‘매우 그렇다’ 2.5%), 중·고등학생의 12.9%(‘그렇다’ 12.2%, ‘매우 그렇다’ 0.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 가족구성,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낮을수록(상 12.6%, 중 14.8%, 하 15.5%), 조손가정인 경우(양부모 13.5%, 한부모 21%, 조손가정 25%), 그리고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경우(상 19.8%, 중 11.5%, 하 22.5%)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16.2%)이 여학생(9.6%)보다, 중학생(17.9%)이 고등학생(9%)보다,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상 12.5%, 중 13.6%, 하 12.4%),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19.5%, 중 12.5%, 하 10.6%)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62〉 아동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자료 제공 여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50.1	35.7	11.6	2.5	100(2538)	
성별	남	49.1	35.4	12.8	2.8	100(1292)	4.387
	여	51.2	36.1	10.4	2.2	100(1246)	
학업 성적	하	49.4	35.1	14.0	1.5	100(342)	19.631**
	중	46.7	38.5	12.6	2.2	100(1165)	
	상	54.0	33.4	9.5	3.1	100(991)	
가족 구성	양부모	50.7	35.8	10.9	2.6	100(2301)	19.116**
	한부모	44.5	34.5	20.0	1.0	100(200)	
	조손가정	35.0	40.0	20.0	5.0	100(20)	
경제 수준	하	45.0	32.5	20.0	2.5	100(40)	62.979***
	중	49.0	39.5	10.1	1.4	100(1771)	
	상	53.1	27.1	14.6	5.2	100(712)	

〈표 III-3-63〉 청소년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자료 제공 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2.6	44.4	12.2	0.7	100(6875)	
성별	남	40.3	43.5	15.2	1.0	100(3472)	72.812***
	여	45.1	45.4	9.2	0.4	100(3403)	
교급	중	37.1	45.1	16.9	1.0	100(3102)	144.634***
	고	47.3	43.7	8.5	0.5	100(3745)	
학업 성적	하	42.1	45.4	11.5	0.9	100(2373)	24.590***
	중	40.6	45.8	13.2	0.4	100(2679)	
	상	46.5	41.0	11.6	0.9	100(1809)	
가족 구성	양부모	42.4	44.7	12.3	0.7	100(5826)	2.770
	한부모	44.9	42.6	11.7	0.8	100(873)	
	조손가정	41.3	43.5	14.1	1.1	100(92)	
경제 수준	하	51.3	38.2	9.6	1.0	100(511)	44.886***
	중	42.4	45.2	11.9	0.6	100(5762)	
	상	38.4	42.1	18.0	1.5	100(589)	

학대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상담·구제)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안내받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43%(‘그렇다’ 30.9%, ‘매우 그렇다’ 12.1%), 중·고등학생의 22.8%(‘그렇다’ 21.4%, ‘매우 그렇다’ 1.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이 상담 및 구제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네 개 변인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46%)이 남학생(40%)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49.9%, 중 39.7%, 하 33.1%), 조손가정인 경우(양부모 43.2%, 한부모 39.9%, 조손가정 55%),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류층인 경우(상 41.9%, 중 43.6%, 하 32.5%)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64〉 학대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 받을 기관 정보 제공 여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2.0	25.0	30.9	12.1	100(2531)	
성별	남	33.8	26.1	29.3	10.7	100(1286)	10.047 [*]
	여	30.0	23.9	32.6	13.4	100(1245)	
학업 성적	하	40.2	26.7	25.5	7.6	100(341)	881.536 ^{***}
	중	32.2	28.1	32.0	7.7	100(1160)	
	상	28.6	21.5	31.5	18.4	100(990)	
가족 구성	양부모	31.7	25.1	30.6	12.6	100(2296)	15.351 [*]
	한부모	34.8	25.3	35.9	4.0	100(198)	
	조손가정	30.0	15.0	35.0	20.0	100(20)	
경제 수준	하	35.0	32.5	30.0	2.5	100(40)	24.876 ^{***}
	중	30.3	26.0	32.6	11.0	100(1767)	
	상	35.8	22.3	26.7	15.2	100(709)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24.9%)이 고등학생(21.1%)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27.4%, 중 23.4%, 하 18.6%),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25.2%, 중 22.7%, 하 21.1%)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65〉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 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5.6	41.5	21.4	1.4	100(6862)	
성별	남	35.4	41.5	21.3	1.7	100(3465)	4.647
	여	35.9	41.5	21.5	1.1	100(3397)	
교급	중	32.8	42.4	23.1	1.8	100(3093)	28.772***
	고	38.2	40.7	20.0	1.1	100(3741)	
학업 성적	하	37.7	43.6	17.2	1.4	100(2372)	58.770***
	중	33.7	42.9	22.3	1.1	100(2667)	
	상	35.8	36.8	25.5	1.9	100(1809)	
가족 구성	양부모	35.4	41.6	21.6	1.4	100(5815)	4.124
	한부모	37.4	40.6	20.5	1.5	100(872)	
	조손가정	33.7	39.1	23.9	3.3	100(92)	
경제 수준	하	42.2	36.7	19.3	1.8	100(509)	25.055***
	중	35.0	42.3	21.5	1.2	100(5753)	
	상	37.0	37.8	22.3	2.9	100(587)	

아동·청소년의 권리 이해 및 인권 보호방법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36.1%(‘그렇다’ 27.6%, ‘매우 그렇다’ 8.5%), 중·고등학생의 26.5%(‘그렇다’ 24.7%, ‘매우 그렇다’ 1.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높을수록(상 39.3%, 중 35.3%, 하 27.2%),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8%, 중 35.2%, 하 35.5%)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모든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28.6%)이 여학생(24.3%)보다, 중학생(31.2%)이 고등학생(22.6%)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29%, 중 27.5%, 하 23.4%), 조손가정인 경우(양부모 26.6%, 한부모 24.7%, 조손가정 35.8%),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2.4%, 중 25.9%, 하 26.1%)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66>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5.2	28.7	27.6	8.5	100(2528)	
성별	남	37.6	27.4	27.1	7.9	100(1286)	6.794
	여	32.9	30.0	27.9	9.3	100(1242)	
학업 성적	하	42.4	30.4	20.5	6.7	100(342)	27.598 ***
	중	34.8	29.8	28.7	6.6	100(1160)	
	상	33.4	27.3	28.4	10.9	100(987)	
가족 구성	양부모	35.3	28.8	27.4	8.4	100(2292)	6.823
	한부모	33.2	29.1	29.6	8.0	100(299)	
	조손가정	45.0	10.0	25.0	20.0	100(20)	
경제 수준	하	42.5	22.5	30.0	5.5	100(40)	50.559 ***
	중	33.7	31.2	28.6	6.6	100(1768)	
	상	39.2	22.8	24.4	13.6	100(706)	

<표 III-3-67>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2.7	40.8	24.7	1.8	100(6856)	
성별	남	32.7	38.7	26.6	2.0	100(3457)	19.455 ***
	여	32.8	42.9	22.7	1.6	100(3399)	
교급	중	28.7	40.1	28.6	2.6	100(3089)	84.973 ***
	고	36.2	41.2	21.5	1.1	100(3739)	
학업 성적	하	34.7	41.9	21.8	1.6	100(2367)	37.924 ***
	중	30.5	42.0	26.2	1.3	100(2667)	
	상	33.5	37.5	26.3	2.7	100(1808)	
가족 구성	양부모	32.4	41.1	24.9	1.7	100(5811)	13.989 *
	한부모	35.1	40.2	22.6	2.1	100(870)	
	조손가정	32.6	31.5	30.4	5.4	100(92)	
경제 수준	하	40.0	33.9	24.3	1.8	100(507)	65.075 ***
	중	32.1	42.0	24.5	1.4	100(5749)	
	상	33.0	34.6	27.3	5.1	100(587)	

5) 사회참여 및 참정권

(1) 사회참여

지난 1년(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참여시간이 초등학교 13.7시간, 중학생 21.29시간, 고등학교 21.82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값은 응답시간 중 최대값이 지나치게 높은 수치들이 있어 불성실한 응답이 영향을 미쳤을 우려가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33.8%)’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이웃, 지역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24.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업성적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업성적이 중위권인 학생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뚜렷했다.

〈표 III-3-68〉 자원봉사 참여 이유(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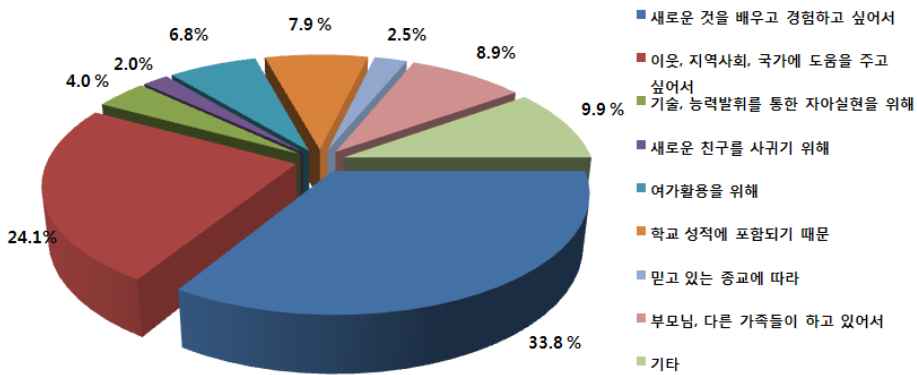
구 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 하고 싶어서	이웃, 지역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기술·능력 발휘를 통한 자아실현 위해	새로운 친구들 사귀기 위해	여가 활용을 위해	학교 성적에 포함 되기 때문	믿고 있는 종교에 따라	부모님, 다른 가족들이 하고 있어서	기타	전체 (빈도)	카이 제곱값
전 체		33.8	24.1	4.0	2.0	6.8	7.9	2.5	8.9	9.9	100(985)	
성별	남	32.7	22.8	4.3	2.5	7.0	8.9	2.9	9.1	9.7	100(483)	4.112
	여	34.9	25.3	3.6	1.6	6.6	7.0	2.2	8.8	10.2	100(502)	
학업 성적	하	32.4	26.7	5.7	1.0	12.4	3.8	2.9	7.6	7.6	100(105)	29.442*
	중	38.0	20.8	4.3	2.7	6.3	5.8	2.9	8.9	10.3	100(447)	
	상	28.9	27.3	3.3	1.7	6.2	11.2	2.2	8.9	10.3	100(418)	
가족 구성	양부모	33.5	24.6	3.6	2.1	7.0	7.8	2.4	9.2	9.9	100(892)	23.889
	한부모	38.8	18.8	7.5	1.3	6.3	5.0	5.0	6.3	11.3	100(80)	
	조손가정	14.3	14.3	14.3	0.0	0.0	42.9	0.0	0.0	14.3	100(7)	
경제 수준	하	45.5	18.2	4.5	0.0	4.5	9.1	0.0	9.1	9.1	100(22)	19.066
	중	33.6	21.1	4.3	2.3	7.1	8.1	3.0	10.3	10.2	100(658)	
	상	33.4	31.1	3.0	1.7	6.4	7.7	1.7	5.7	9.4	100(299)	

중·고등학교생들의 경우 자원봉사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학업성적에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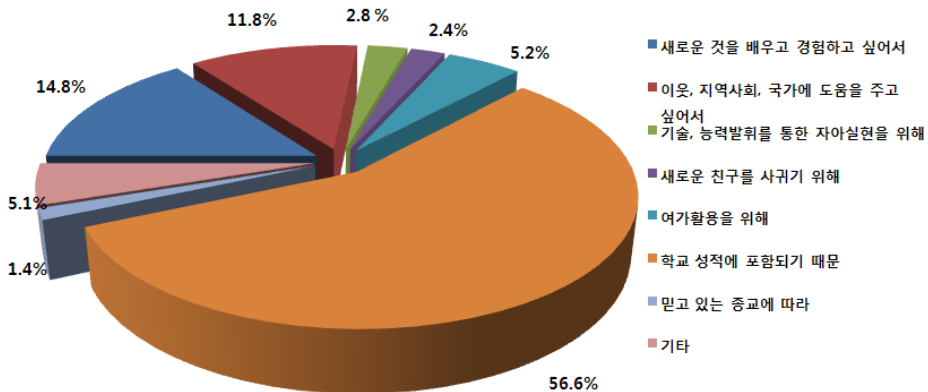
함되기 때문인 것’(56.6%)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서(14.8%)’, ‘이웃, 지역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11.8%)’ 순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59.8%)이 남학생(53.4%)보다, 고등학생(58.8%)이 중학생(54.1%)보다, 학업성적이 중위권인 경우(상 56.3%, 중 57.9%, 하 55.2%),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양부모 57.8%, 한부모 52.8%, 조손가정 28.1%), 경제수준이 중류층인 경우(상 44%, 중 58.1%, 하 54.6%) ‘학교성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유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III-3-69〉 자원봉사 참여 이유(중·고등학생)

구 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 하고 싶어서	이웃, 지역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기술·능력 발휘를 통한 자아실현 위해	새로운 친구들 사귀기 위해	여가 활용을 위해	학교 성적에 포함 되기 때문	믿고 있는 종교에 따라	기타	전체 (빈도)	카이 제곱값
전 체		14.8	11.8	2.8	2.4	5.2	56.6	1.4	5.1	100(4755)	
성별	남	15.7	11.7	3.6	3.0	6.1	53.4	1.8	4.7	100(2393)	44.343 ***
	여	13.8	11.9	2.1	1.7	4.2	59.8	1.0	5.5	100(2362)	
교급	중	15.1	12.2	3.0	2.6	6.0	54.1	1.5	5.4	100(2202)	14.798 *
	고	14.4	11.4	2.7	2.1	4.4	58.8	1.3	4.9	100(2535)	
학업 성적	하	15.5	10.3	3.0	3.0	6.2	55.2	1.6	5.3	100(1517)	35.240 **
	중	14.1	11.0	3.0	1.6	5.3	57.9	1.5	5.5	100(1874)	
	상	14.7	14.6	2.4	2.6	3.9	56.3	1.0	4.4	100(1356)	
가족 구성	양부모	14.8	11.9	2.5	2.1	4.8	57.8	1.2	4.9	100(4071)	78.611 ***
	한부모	12.4	10.8	5.3	3.4	7.4	52.8	2.5	5.5	100(566)	
	조손가정	25.0	10.9	4.7	10.9	7.8	28.1	0.0	12.5	100(64)	
경제 수준	하	12.1	13.2	4.0	3.7	7.5	54.6	1.1	3.7	100(348)	60.645 ***
	중	14.9	10.8	2.6	2.1	4.9	58.1	1.4	5.2	100(3991)	
	상	15.6	19.6	4.2	3.9	5.9	44.0	2.0	4.9	100(4.9)	



[그림 III-3-8] 자원봉사 참여 이유(초등학생)



[그림 III-3-9] 자원봉사 참여 이유(중·고등학생)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 관련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청소년 정책과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인 아동총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경험’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50.5%, 중·고등학생의 64.3%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두 집단 모두 정책 및 시설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고등학생의 인지도는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만 보면, 초등학생은 8.0%, 중·고등학생은 2.0%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모든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54.1%)이 여학생(46.6%)보다,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상 46.8%, 중 51.8%, 하 56.9%), 한부모가족인 경우(양부모 49.6%, 한부모 60%, 조손가정 45%),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상 48.4%, 중 51.2%, 하 57.9%)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모든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65.6%)이 여학생(63%)보다, 고등학생(66.2%)이 중학생(62.4%)보다, 성적이 낮을수록(상 61.4%, 중 63.9%, 하 67.1%), 한부모가족인 경우(양부모 64.1%, 한부모 66.5%, 조손가정 60.6%),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상 55.7%, 중 64.9%, 하 67.6%)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70〉 아동 정책·시설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경험(초등학생)

구 분		잘 알고 있으며 참여경험 있음	알고 있으나 참여경험 없음	들어봤으나 자세히 모름	전혀 모름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8.0	16.9	24.7	50.5	100(2553)	
성별	남	8.0	16.9	21.0	54.1	100(1303)	21.404***
	여	8.0	16.9	28.5	46.6	100(1250)	
학업 성적	하	5.0	16.4	21.7	56.9	100(341)	23.154**
	중	6.5	17.0	24.8	51.8	100(1174)	
	상	10.5	16.9	25.8	46.8	100(996)	
가족 구성	양부모	8.1	16.7	25.6	49.6	100(2341)	14.042*
	한부모	6.5	17.5	16.0	60.0	100(200)	
	조손가정	5.0	30.0	20.0	45.0	100(20)	
경제 수준	하	2.6	26.3	13.2	57.9	100(38)	22.706**
	중	6.9	15.9	26.0	51.2	100(1788)	
	상	10.8	18.7	22.0	48.4	100(713)	

<표 III-3-71> 청소년 정책·시설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경험(중·고등학생)

구 분		잘 알고 있으며 참여경험 있음	알고 있으나 참여경험 없음	들어봤으나 자세히 모름	전혀 모름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0	11.9	21.7	64.3	100(6863)	36.659***
성별	남	2.2	13.2	19.0	65.6	100(3467)	47.830***
	여	1.9	10.5	24.5	63.0	100(3396)	
교급	중	2.2	12.9	22.5	62.4	100(3114)	12.098**
	고	1.9	11.0	20.9	66.2	100(3719)	
학업 성적	하	2.2	11.0	19.7	67.1	100(2364)	21.480**
	중	1.8	11.3	22.9	63.9	100(2672)	
	상	2.2	13.9	22.5	61.4	100(1812)	
가족 구성	양부모	2.1	11.4	22.5	64.1	100(5817)	24.413***
	한부모	1.4	14.4	17.7	66.5	100(868)	
	조손가정	5.3	17.0	17.0	60.6	100(94)	
경제 수준	하	2.2	12.4	17.8	67.6	100(510)	70.597***
	중	1.8	11.0	22.3	64.9	100(5753)	
	상	4.2	20.5	19.5	55.7	100(589)	

정부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31.7%(‘그렇다’ 25.4%, ‘매우 그렇다’ 6.3%), 중·고등학생의 16.1%(‘그렇다’ 15.2%, ‘매우 그렇다’ 0.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초등학생 42.3%, 중·고등학생 52.3%).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32.8%)이 여학생(30.7%)보다,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상 27.7%, 중 35.3%, 하 29.4%), 그리고 경제수준이 하류층인 경우(상 35.4%, 중 30.1%, 하 40%)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20.2%)이 여학생(11.7%)보다, 중학생(18.9%)이 고등학생(13.6%)보다, 성적이 낮을수록(상 14.6%, 중 16.4%, 하 16.7%),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22.4%, 중 15.6%, 하 13.9%) ‘반영한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Ⅲ-3-72〉 아동정책에 대해 아동 의견 반영 여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2.2	13.8	25.4	6.3	42.3	100(2553)	
성별	남	14.5	12.7	25.4	7.4	40.0	100(1303)	22.134 ***
	여	9.8	14.9	25.4	5.3	44.6	100(1250)	
학업 성적	하	14.4	15.9	24.7	4.7	40.3	100(340)	31.974 ***
	중	10.5	13.3	29.7	5.6	40.9	100(1172)	
	상	13.5	14.1	20.3	7.4	44.6	100(999)	
가족 구성	양부모	11.7	14.0	25.1	6.6	42.4	100(2316)	8.808
	한부모	15.5	12.0	28.5	3.0	41.0	100(200)	
	조손가정	20.0	10.0	25.0	5.0	40.0	100(20)	
경제 수준	하	20.0	12.5	35.0	5.0	27.5	100(40)	24.811 **
	중	12.3	14.6	25.0	5.1	43.0	100(1784)	
	상	11.9	11.9	25.9	9.5	40.8	100(715)	

〈표 Ⅲ-3-73〉 청소년정책에 대해 청소년 의견 반영 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3.5	18.1	15.2	0.9	52.3	100(6970)	
성별	남	15.1	17.1	19.0	1.2	47.6	100(3535)	125.371 ***
	여	12.0	19.2	11.1	0.6	57.1	100(3435)	
교급	중	10.4	14.0	17.8	1.1	56.7	100(3164)	148.607 ***
	고	16.2	21.6	12.9	0.7	48.5	100(3776)	
학업 성적	하	12.7	16.7	15.8	0.9	53.8	100(2413)	30.375 ***
	중	12.3	18.5	15.7	0.7	52.8	100(2708)	
	상	16.5	19.4	13.5	1.1	49.5	100(1834)	
가족 구성	양부모	13.5	18.0	14.9	0.9	52.6	100(5907)	5.491
	한부모	13.6	19.3	16.4	0.8	49.9	100(882)	
	조손가정	13.7	20.0	18.9	0.0	47.4	100(95)	
경제 수준	하	17.6	21.2	12.9	1.0	47.3	100(518)	50.120 ***
	중	13.2	18.0	14.9	0.7	53.2	100(5840)	
	상	13.7	16.8	19.7	2.7	47.2	100(600)	

동네의 놀이터, 도서관, 문화시설, 청소년수련관 등을 만들고 운영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28.6%(‘그렇다’ 21.7%, ‘매우 그렇다’ 6.9%), 중·고등학생의 20.1%(‘그렇다’ 17.8%, ‘매우 그렇다’ 2.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초등학생 39.3%, 중·고등학생 45.8%).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30.8%)이 여학생(26.4%)보다,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상 25.7%, 중 31%, 하 26.8%), 그리고 경제수준이 상위층인 경우(상 31.9%, 중 27%, 하 27.5%) ‘반영한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74〉 지역 아동시설 설치·운영 시 아동 의견 반영여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4.5	17.6	21.7	6.9	39.3	100(2552)	
성별	남	15.8	16.0	23.6	7.2	37.5	100(1303)	14.113**
	여	13.1	19.4	19.9	6.5	41.2	100(1249)	
학업 성적	하	15.6	19.2	20.6	6.2	38.3	100(339)	28.573***
	중	11.9	17.5	25.2	5.8	39.6	100(1172)	
	상	17.2	17.5	17.8	7.9	39.5	100(999)	
가족 구성	양부모	14.1	17.7	21.9	6.8	39.5	100(2316)	4.493
	한부모	16.6	16.1	21.6	7.0	38.7	100(199)	
	조손가정	20.0	30.0	20.0	5.0	25.0	100(20)	
경제 수준	하	17.5	12.5	30.0	7.5	32.5	100(40)	21.007**
	중	14.5	18.5	21.5	5.5	39.9	100(1785)	
	상	14.2	17.6	21.8	10.1	38.1	100(713)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24.3%)이 여학생(16.2%)보다, 중학생(22.7%)이 고등학생(17.7%)보다,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상 17.5%, 중 21.2%, 하 20.8%),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25.5%, 중 19.5%, 하 20.2%)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75> 지역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시 청소년 의견
반영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5.2	18.9	17.8	2.3	45.8	100(6950)	
성별	남	15.7	17.0	21.0	3.0	43.3	100(3522)	80.624***
	여	14.6	20.9	14.6	1.6	48.4	100(3428)	
교급	중	12.2	15.4	20.1	2.6	49.6	100(3157)	112.376***
	고	17.7	21.9	15.7	2.0	42.6	100(3764)	
학업 성적	하	13.9	18.1	18.1	2.7	47.2	100(2396)	37.233***
	중	14.3	18.5	19.4	1.8	46.0	100(2709)	
	상	18.0	20.8	15.0	2.5	43.7	100(1831)	
가족 구성	양부모	15.1	19.1	17.5	2.1	46.2	100(5899)	14.671
	한부모	16.2	18.1	20.0	3.4	42.3	100(875)	
	조손가정	13.0	15.2	21.8	3.3	46.7	100(92)	
경제 수준	하	19.6	19.1	17.3	2.9	41.1	100(514)	44.684***
	중	14.7	19.1	17.6	1.9	46.6	100(5827)	
	상	15.6	16.9	20.1	5.4	41.9	100(596)	

(2) 학교에서의 참여

학생회 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네 개 문항을(초등학생은 세 개) 조사하였다. 먼저 학생회 활동을 할 경우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중·고등학생의 25.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5.6%로 높게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모든 변수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26%)이 남학생(24.4%)보다, 고등학생(28.7%)이 중학생(21.1%)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17.5%, 중 24.5%, 하 24.3%),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양부모 25.5%, 한부모 22.9%, 조손가정 25.3%), 그리고 경제수준이 상위층인 경우(상 28.6%, 중 24.7%, 하 27.1%)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76〉 학생회 활동에 지도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중·고등학생)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5.2	9.2	65.6	100(6979)	
성별	남	24.4	11.6	64.0	100(3545)	46.441 ***
	여	26.0	6.8	67.2	100(3434)	
교급	중	21.1	10.9	68.0	100(3172)	62.235 ***
	고	28.7	7.9	63.4	100(3777)	
학업 성적	하	24.3	10.8	65.0	100(2412)	16.419 **
	중	24.5	8.5	67.0	100(2712)	
	상	27.5	8.3	64.3	100(1839)	
가족 구성	양부모	25.5	8.6	65.8	100(5914)	20.749 ***
	한부모	22.9	12.3	64.8	100(884)	
	조손가정	25.3	16.8	57.9	100(95)	
경제 수준	하	27.1	12.4	60.5	100(517)	29.509 ***
	중	24.7	8.6	66.7	100(5850)	
	상	28.6	13.0	58.4	100(598)	

학생회 임원 자격에 성적 제한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50.5%, 중고등학생의 18.2%가 ‘그렇다’고 응답해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임원 자격의 성적 제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초등학생 33.5%, 중·고등학생 51.7%) 일반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적, 가족구성,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높을수록(상 60.1%, 중 47.4%, 하 35.3%), 조손가정인 경우(양부모 51.5%, 한부모 39.1%, 조손가정 65%),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53.4%, 중 49.4%, 하 48.7%)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21%)이 남학생(15.4%)보다, 고등학생(23.1%)이 중학생(12.1%)보다, 그리고 성적이 낮을수록(상 15.8%, 중 17.4%, 하 20.8%), ‘성적 제한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77〉 전교 어린이회 임원 자격의 성적 제한 여부(초등학생)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50.5	16.0	33.5	100(2561)	
성별	남	50.0	17.4	32.6	100(1305)	4.134
	여	51.1	14.5	34.4	100(1256)	
학업 성적	하	35.3	26.8	37.9	100(343)	86.215***
	중	47.4	15.8	36.9	100(1174)	
	상	60.1	12.4	27.5	100(1002)	
가족 구성	양부모	51.5	15.1	33.4	100(2328)	23.018***
	한부모	39.1	25.4	35.5	100(197)	
	조손가정	65.0	25.0	10.0	100(20)	
경제 수준	하	48.7	25.6	25.6	100(39)	9.693*
	중	49.4	15.3	35.3	100(1786)	
	상	53.4	16.6	30.0	100(721)	

〈표 III-3-78〉 학생회 임원 자격의 성적 제한 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8.2	30.1	51.7	100(6979)	
성별	남	15.4	29.4	55.1	100(3545)	47.301***
	여	21.0	30.9	48.1	100(3434)	
교급	중	12.1	31.0	56.8	100(3174)	414.653***
	고	23.1	29.5	47.4	100(3775)	
학업 성적	하	20.8	23.9	55.3	100(2413)	111.863***
	중	17.4	30.0	52.6	100(2710)	
	상	15.8	38.7	45.6	100(1841)	
가족 구성	양부모	18.0	30.3	51.7	100(5916)	1.440
	한부모	19.2	29.6	51.2	100(882)	
	조손가정	20.0	32.6	47.4	100(95)	
경제 수준	하	20.9	27.7	51.4	100(516)	5.117
	중	18.0	30.2	51.8	100(5849)	
	상	17.1	32.6	50.2	100(601)	

전교 어린이회나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42.5%, 중고등학생의 18.1%가 ‘그렇다’고 응답해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학생회활동에 대한 학교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초등학생 43.6%, 중·고등학생 68.8%).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44.7%)이 남학생(40.4%)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51.6%, 중 37.6%, 하 32.6%),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49%, 중 40%, 하 42.5%)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79> 전교 어린이회 활동장소와 시간 보장여부(초등학생)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2.5	13.9	43.6	100(2553)	
성별	남	40.4	16.1	43.7	100(1308)	11.878**
	여	44.7	11.6	43.7	100(1245)	
학업 성적	하	32.6	20.0	47.4	100(340)	63.359***
	중	37.6	14.6	47.7	100(1175)	
	상	51.6	11.1	37.3	100(997)	
가족 구성	양부모	43.1	13.6	43.2	100(2320)	6.588
	한부모	35.2	16.8	48.0	100(196)	
	조손가정	50.0	20.0	30.0	100(20)	
경제 수준	하	42.5	20.0	37.5	100(40)	18.464**
	중	40.0	14.4	45.6	100(1780)	
	상	49.0	12.3	38.7	100(718)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18.8%)이 여학생(17.3%)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21.1%, 중 17.5%, 하 16.3%),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24.5%, 중 17.6%, 하 15.7%),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80〉 학생회 활동장소와 시간 보장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8.1	13.1	68.8	100(6975)	
성별	남	18.8	14.1	67.1	100(3543)	11.103**
	여	17.3	12.1	70.6	100(3432)	
교급	중	17.5	13.2	69.3	100(3173)	1.184
	고	18.5	13.0	68.4	100(3772)	
학업 성적	하	16.3	12.2	71.4	100(2411)	27.768***
	중	17.5	12.8	69.7	100(2711)	
	상	21.1	14.7	64.1	100(1838)	
가족 구성	양부모	18.1	13.0	68.9	100(5911)	7.111
	한부모	17.6	12.8	69.6	100(883)	
	조손가정	23.2	20.0	56.8	100(95)	
경제 수준	하	15.7	13.9	70.4	100(517)	29.837***
	중	17.6	12.7	69.6	100(5845)	
	상	24.5	16.2	59.3	100(600)	

학생회장(전교 어린이회장)을 전교 학생들이 직접 투표하여 뽑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80.8%, 중고등학생의 45.0%가 ‘그렇다’고 응답해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직접 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중·고등학생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6%로 높게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모든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84.7%)이 남학생(77.1%)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85.4%, 중 78.3%, 하 75.9%), 조손가정인 경우(양부모 81.4%, 한부모 72.4%, 조손가정 95%),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80.2%, 중 81.5%, 하 59%)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50.2%)이 남학생(39.9%)보다, 고등학생(50.3%)이 중학생(38.3%)보다, 성적이 상위권일수록(상 54.0%, 중 45.0%, 하 38.2%),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류층인 경우(중 45.5%, 하 45.2%, 상 39.8%), ‘직접선거를 통해 학생회 임원을 선출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81〉 직접선거를 통한 전교 어린이회장 선출여부(초등학생)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80.8	9.1	10.1	100(2547)	
성별	남	77.1	9.7	13.2	100(1302)	31.130***
	여	84.7	8.5	6.8	100(1245)	
학업 성적	하	75.9	10.9	13.2	100(340)	30.360***
	중	78.3	9.1	12.5	100(1172)	
	상	85.4	8.3	6.3	100(993)	
가족 구성	양부모	81.4	8.9	9.7	100(2315)	12.586*
	한부모	72.4	12.2	15.3	100(196)	
	조손가정	95.0	5.0	0.0	100(20)	
경제 수준	하	59.0	20.5	20.5	100(39)	13.038*
	중	81.5	8.8	9.7	100(1777)	
	상	80.2	9.1	10.8	100(716)	

〈표 III-3-82〉 직접선거를 통한 학생회장 선출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5.0	10.4	44.6	100(6972)	
성별	남	39.9	10.6	49.4	100(3541)	79.136***
	여	50.2	10.2	39.6	100(3431)	
교급	중	38.3	10.0	51.7	100(3173)	120.323***
	고	50.3	10.8	38.8	100(3770)	
학업 성적	하	38.2	10.7	51.1	100(2410)	113.255***
	중	45.0	10.2	44.8	100(2710)	
	상	54.0	10.3	35.7	100(1838)	
가족 구성	양부모	45.4	10.4	44.2	100(5907)	3.925
	한부모	43.6	10.1	46.4	100(884)	
	조손가정	37.9	13.7	48.4	100(95)	
경제 수준	하	45.2	10.5	44.4	100(516)	14.671**
	중	45.5	10.0	44.5	100(5843)	
	상	39.8	14.5	45.7	100(600)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65%('그렇다' 48.3%, '매우 그렇다' 16.7%), 중·고등학생의 33.8%('그렇다' 26.8%, '매우 그렇다' 7.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상 64.3%, 중 67.4%, 하 59.9%),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72.1%, 중 62.5%, 하 57.5%)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83> 학교규칙과 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여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0.0	23.3	48.3	16.7	100(2557)	
성별	남	11.0	23.3	47.7	17.9	100(1311)	7.768
	여	9.0	26.6	48.9	15.5	100(1246)	
학업 성적	하	11.9	28.2	50.3	9.6	100(344)	27.021***
	중	8.8	23.9	51.4	16.0	100(1220)	
	상	10.5	25.2	44.6	19.7	100(998)	
가족 구성	양부모	9.4	25.3	48.3	17.0	100(2322)	11.856
	한부모	14.1	20.7	50.6	14.6	100(198)	
	조손가정	25.0	20.0	45.0	10.0	100(20)	
경제 수준	하	22.5	20.0	45.0	12.5	100(40)	90.115***
	중	9.4	28.2	49.6	12.9	100(1783)	
	상	10.8	17.1	45.8	26.3	100(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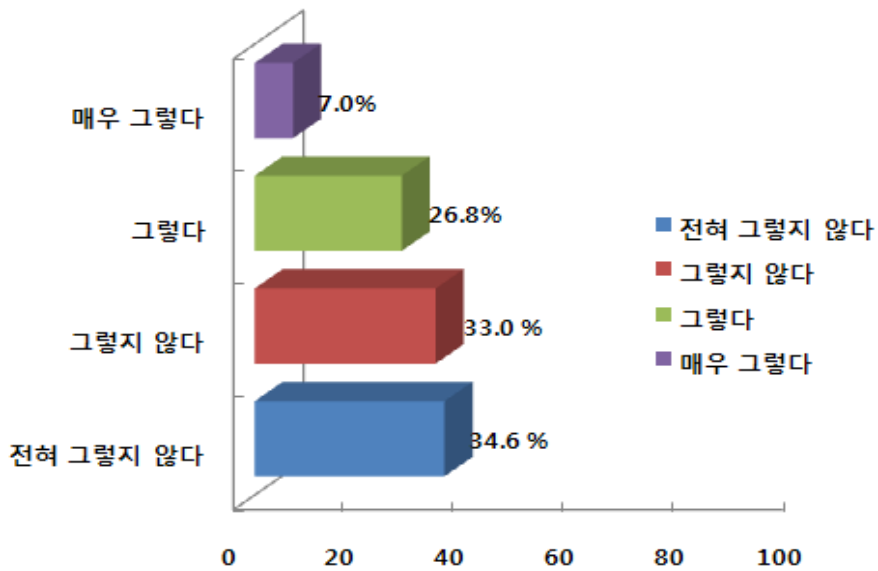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교급, 가족구성,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34.1%)이 여학생(28.8%)보다, 중학생(38.1%)이 고등학생(27.5%)보다, 조손가정인 경우(양부모 32.4%, 한부모 29.5%, 조손가정 50.5%),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6.5%, 중 32.4%, 하 26.6%)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84> 학교규칙과 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4.6	33.0	26.8	7.0	100(3548)	
성별	남	33.7	29.0	30.2	3.9	100(3437)	100.163***
	여	35.6	37.2	23.3	5.5	100(6985)	
중·고	중	28.6	33.3	30.9	7.2	100(3175)	129.909***
	고	39.8	32.7	23.4	4.1	100(3781)	
학업 성적	하	35.6	31.6	26.8	6.1	100(2410)	10.792
	중	32.8	34.5	27.4	5.3	100(2716)	
	상	36.2	32.8	26.0	5.0	100(6969)	
가족 구성	양부모	34.7	32.9	27.2	5.2	100(5918)	33.860***
	한부모	35.3	35.2	23.2	6.3	100(886)	
	조손가정	24.2	25.3	34.7	15.8	100(95)	
경제 수준	하	38.3	35.1	21.7	4.9	100(515)	26.327***
	중	34.3	33.3	27.2	5.2	100(5852)	
	상	34.8	28.6	27.6	8.9	100(604)	

전교 어린이회나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알아본 결과 ‘참여하여 발언권이 있는 경우’는 초등학생의 17.8%, 중·고등학생의 12.1%로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초등학생 61.8%, 중·고등학생 69.3%). 발언권이 없으나 참여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 참여가능 수치를 보면, 초등학생은 24.4%, 중·고등학생은 19.2(중학생 18.2%, 고등학생 20.1%)였다.

초등학생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 성적,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18.8%)이 남학생(16.9%)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22.2%, 중 15.8%, 하 11.9%),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23.0%, 중 16.0%, 하 7.7%)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림 Ⅲ-3-10] 학교규칙, 규정 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중·고등학생)

<표 Ⅲ-3-85> 전교어린이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초등학생)

구 분		참여할수 없다	참여가능, 발언권 없음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	잘 모르겠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3.8	6.6	17.8	61.8	100(2545)	
성별	남	16.2	6.9	16.9	60.1	100(1298)	13.615**
	여	11.3	6.4	18.8	63.5	100(1247)	
학업 성적	하	18.3	8.4	11.9	61.4	100(345)	33.434***
	중	14.1	7.3	15.8	62.7	100(1162)	
	상	11.6	5.4	22.2	60.7	100(996)	
가족 구성	양부모	13.2	6.7	18.0	62.1	100(2312)	10.472
	한부모	17.3	6.6	16.8	59.2	100(196)	
	조손가정	30.0	10.0	0.0	60.0	100(20)	
경제 수준	하	30.8	10.3	7.7	51.3	100(39)	41.106***
	중	12.4	6.6	16.0	65.0	100(1779)	
	상	16.0	6.9	23.0	54.1	100(712)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12.5%)이

남학생(11.8%)보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상위층인 경우(상 14.8%, 하 13.1%, 중 11.8%)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86〉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참여할수 없다	참여가능, 발언권 없음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	잘 모르겠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1.4	7.1	12.1	69.3	100(6980)	
성별	남	13.8	8.9	11.8	65.4	100(3542)	87.946***
	여	9.0	5.1	12.5	73.4	100(3438)	
교급	중	11.7	7.1	11.1	70.1	100(3170)	5.993
	고	11.3	7.1	13.0	68.5	100(3780)	
학업 성적	하	12.3	6.7	10.7	70.3	100(2415)	12.677
	중	11.0	7.3	12.2	69.4	100(2710)	
	상	11.0	7.1	13.9	68.0	100(1841)	
가족 구성	양부모	11.2	6.7	12.4	69.7	100(5913)	12.331
	한부모	12.0	9.1	11.5	67.4	100(886)	
	조손가정	14.7	9.5	6.3	69.5	100(95)	
경제 수준	하	14.5	8.5	13.1	63.9	100(518)	25.282***
	중	10.8	6.9	11.8	70.5	100(5848)	
	상	14.6	7.8	14.8	62.7	100(601)	

학생들의 교육활동 결정과정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문항을 질문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방과 후 교실 등을 결정할 때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79.4%가 ‘그렇다’(‘그렇다’ 45.9%, ‘매우 그렇다’ 33.5%)고 응답하였다. 여학생(83.0%)이 남학생(75.9%)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84.7%, 중 77.9%, 하 69.4%),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81.1%, 중 79.3%, 하 52.5%) 학생의 선택권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87〉 특별활동, 방과 후 교실 학생 선택권(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6.9	13.8	45.9	33.5	100(2569)	
성별	남	8.7	15.4	44.3	31.6	100(1315)	22.669***
	여	4.9	12.0	47.6	35.4	100(1254)	
학업 성적	하	11.6	18.9	42.4	27.0	100(344)	63.233***
	중	6.7	15.4	48.4	29.5	100(1178)	
	상	5.3	10.0	44.1	40.6	100(1004)	
가족 구성	양부모	6.6	13.4	46.6	33.4	100(2332)	8.519
	한부모	7.5	18.5	39.0	35.0	100(200)	
	조손가정	15.0	10.0	40.0	35.0	100(20)	
경제 수준	하	12.5	35.0	20.0	32.5	100(40)	59.545***
	중	6.7	14.0	49.4	29.9	100(1795)	
	상	7.0	12.0	38.7	42.4	100(719)	

중·고등학생에게 ‘아침 보충수업(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추가학습을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3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절반이 넘는 60.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60.9%, ‘그렇지 않다’ 24.0%)고 응답하였다. 여학생(40.2%)이 남학생(36.6%)보다, 중학생(45.3%)이 고등학생(32.6%)보다, 성적이 중위권일 경우(중 40.0%, 상 38.3%, 하 36.5%),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42.8%, 중 38.2%, 하 34.8%) 선택권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을 갈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는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 73.5%가 ‘그렇다’(‘그렇다’ 49.5%, ‘매우 그렇다’ 24.0%)고 응답하였다.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중 74.7%, 상 73.7%, 하 67.5%),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상 77.3%, 하 75.0%, 중 71.8%)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88>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추가학습 선택권(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6.9	24.0	28.7	7.9	100(6979)	
성별	남	39.3	24.0	28.7	7.9	100(3543)	19.087***
	여	34.4	25.4	31.9	8.3	100(3436)	
교급	중	28.5	26.2	35.8	9.5	100(3168)	191.106***
	고	44.0	23.4	25.7	6.9	100(3781)	
학업 성적	하	38.2	25.2	29.2	7.3	100(2412)	23.655**
	중	34.3	25.6	32.1	7.9	100(2712)	
	상	39.0	22.6	28.9	9.4	100(1839)	
가족 구성	양부모	37.0	24.9	30.2	7.9	100(5915)	9.225
	한부모	37.3	23.9	30.0	8.8	100(883)	
	조손가정	28.4	22.1	34.7	14.7	100(95)	
경제 수준	하	41.1	24.0	26.9	7.9	100(521)	17.903**
	중	36.7	25.0	30.5	7.7	100(5865)	
	상	34.8	22.5	31.0	11.8	100(605)	

<표 III-3-89>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결정에 학생의견 반영여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7.9	18.6	49.5	24.0	100(2566)	
성별	남	8.2	17.2	51.2	23.4	100(1315)	5.465
	여	7.5	20.1	47.6	24.7	100(1251)	
학업 성적	하	7.8	24.7	48.3	19.2	100(344)	31.892***
	중	6.5	18.8	52.8	21.9	100(1177)	
	상	9.5	16.8	45.8	27.9	100(1002)	
가족 구성	양부모	7.6	18.8	49.4	24.2	100(2329)	11.295
	한부모	8.5	16.5	53.0	22.0	100(200)	
	조손가정	25.0	15.0	30.0	30.0	100(20)	
경제 수준	하	10.0	15.0	47.5	27.5	100(40)	60.306***
	중	7.4	20.8	51.7	20.1	100(1792)	
	상	9.0	13.6	43.9	33.4	100(719)	

‘수학여행, 수련회 등 비용부담이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물어본 결과, 중·고등학생의 51.4%가 ‘그렇다’(‘그렇다’ 42.2%,

‘매우 그렇다’ 9.2%)고 응답하였다. 남학생(52.9%)이 여학생(49.9%)보다, 중학생(57.9%)이 고등학생(45.7%)보다,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중 52.2%, 상 50.2%, 하 51.4%),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56.4%, 중 51.4%, 하 46.2%)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급식 메뉴나 음식의 질 등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의 60.5%, 중·고등학생의 36.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급식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초등학교가 더 민주적임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63.6%)이 여학생(57.2%)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60.1%, 중 63.6%, 하 51.8%),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66.2%, 중 58.3%, 하 57.5%)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90> 수학여행, 수련회 등 결정에 학생의견 반영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9.4	29.2	42.2	9.2	100(6984)	
성별	남	20.0	27.1	42.4	10.5	25.890 ***
	여	18.9	31.3	42.1	7.8	
교급	중	15.6	36.5	45.7	12.2	138.476 ***
	고	22.8	31.4	39.2	6.5	
학업 성적	하	20.8	27.7	42.7	8.7	16.758 *
	중	17.4	30.4	43.1	9.1	
	상	20.5	29.2	40.2	10.0	
가족 구성	양부모	19.5	29.4	42.1	9.0	4.805
	한부모	18.7	29.6	42.3	9.4	
	조손가정	17.9	22.1	46.3	13.7	
경제 수준	하	23.8	30.0	37.9	8.3	34.053 ***
	중	18.9	29.7	42.6	8.8	
	상	20.4	23.2	42.3	14.1	

〈표 III-3-91〉 급식메뉴와 질에 학생의견 반영여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2.8	26.7	44.1	16.4	100(2566)	
성별	남	13.7	22.7	45.7	17.9	100(1314)
	여	11.8	31.0	42.3	14.9	100(1252)
학업 성적	하	15.1	33.1	41.9	9.9	100(344)
	중	11.0	25.4	48.0	15.6	100(1178)
	상	13.4	26.6	40.5	19.6	100(1001)
가족 구성	양부모	12.7	26.7	44.4	16.2	100(2330)
	한부모	12.6	25.1	43.2	19.1	100(199)
	조손가정	10.0	45.0	30.0	15.0	100(20)
경제 수준	하	17.5	25.0	32.5	25.0	100(40)
	중	12.8	28.9	46.1	12.2	100(1801)
	상	12.4	21.4	39.6	26.6	100(719)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38.4%)이 여학생(34.0%)보다, 중학생(44.0%)이
고등학생(29.6%)보다, 성적이 낮을수록(하 37.1%, 중 36.3%, 상 35.0%), 그리
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43.0%, 중 35.8%, 하 32.1%) 의견을 반영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92〉 급식메뉴와 질에 학생의견 반영여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0.2	33.7	30.2	6.0	100(6992)	
성별	남	30.6	31.1	31.2	7.2	100(3550)
	여	29.8	36.3	29.2	4.8	100(3442)
교급	중	23.1	32.8	36.1	7.9	100(3189)
	고	36.1	34.3	25.2	4.4	100(3788)
학업 성적	하	30.7	32.2	30.5	6.6	100(2416)
	중	28.9	34.7	30.9	5.4	100(2716)
	상	31.2	34.1	28.6	6.4	100(1844)
가족 구성	양부모	29.9	34.0	60.2	5.8	100(5924)
	한부모	32.0	32.1	29.5	6.3	100(887)
	조손가정	23.2	30.5	33.7	12.6	100(95)
경제 수준	하	32.7	35.2	25.5	6.6	100(517)
	중	30.2	34.1	30.3	5.5	100(5856)
	상	28.3	28.8	32.9	10.1	100(605)

(3) 참정권

‘어른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일꾼 등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의 64.5%가 ‘그렇다’(‘그렇다’ 31.0%, ‘매우 그렇다’ 33.5%), 35.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72.1%, 중 62.8%, 하 52.6%),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65.3%, 중 64.3%, 하 52.5%) 선거참여 의향이 높았다.

〈표 III-3-93〉 어른이 되었을 때 선거참여 의향(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6.0	19.5	31.0	33.5	100(2568)	
성별	남	18.0	19.4	30.9	31.7	100(1314)	8.552
	여	14.0	19.6	31.1	35.2	100(1254)	
학업 성적	하	25.6	21.8	28.2	24.4	100(344)	101.138***
	중	16.6	21.6	34.3	27.5	100(1177)	
	상	11.8	16.1	28.3	43.8	100(1004)	
가족 구성	양부모	15.5	19.3	31.1	34.1	100(2332)	8.376
	한부모	21.5	21.0	31.0	26.5	100(200)	
	조손가정	20.0	25.0	25.0	30.0	100(20)	
경제 수준	하	32.5	15.0	25.0	27.5	100(40)	16.912*
	중	15.1	20.5	31.8	32.5	100(1793)	
	상	17.5	17.2	28.8	36.5	100(720)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선거 가능연령은 만 19세부터이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모든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 21.9%,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은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15.5%, ‘모든 선거연령을 현재대로 유지한다’ 30.8%, ‘잘 모르겠다’ 31.8%로 나타나, 하향화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 37.4%, 유지의견 30.8%, 무지와 무관심 31.8% 등이 고루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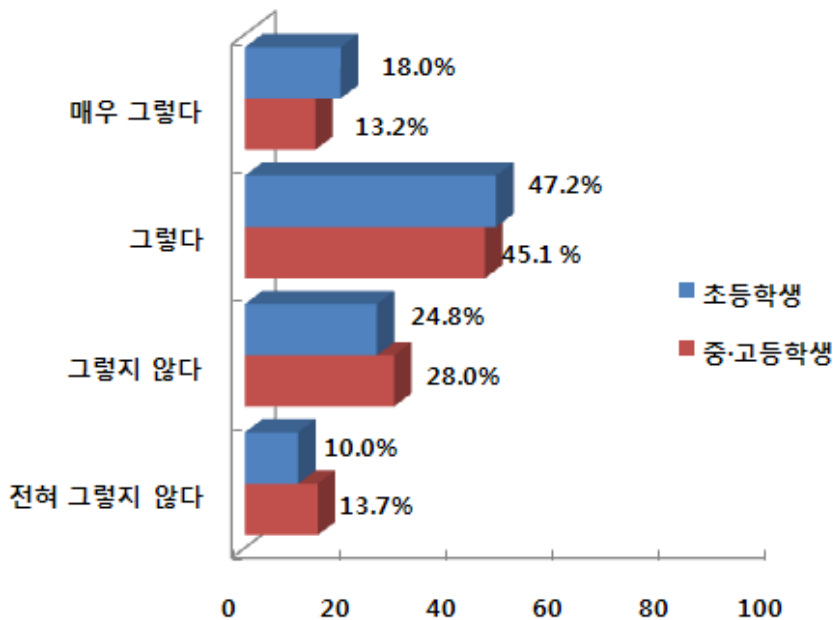
<표 III-3-94>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인식(중·고등학생)

구 분		모든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은 만18세로 낮추어야 한다	모든 선거연령을 현재대로 (만19세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1.9	15.5	30.8	31.8	100(6971)	
성별	남	21.0	14.4	29.2	35.4	100(3538)	44.153***
	여	22.7	16.7	32.4	28.1	100(3433)	
교급	중	19.1	14.8	27.7	38.4	100(3165)	117.344***
	고	24.2	16.0	33.4	26.4	100(3777)	
학업 성적	하	20.8	13.3	27.1	38.8	100(2408)	132.758***
	중	21.8	15.4	31.0	31.8	100(2712)	
	상	23.4	18.6	35.5	22.5	100(1835)	
가족 구성	양부모	21.8	15.8	31.2	31.2	100(5906)	10.752
	한부모	22.1	14.0	28.6	35.3	100(885)	
	조손가정	20.2	12.8	26.6	40.4	100(94)	
경제 수준	하	23.6	14.7	30.2	31.5	100(517)	2.128
	중	21.7	15.4	31.0	31.9	100(5836)	
	상	22.4	16.7	30.1	30.8	100(604)	

6) 참여관련 인식

(1) 참여 의의와 필요성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의 65.2%가 ‘그렇다’(‘그렇다’ 47.2%, ‘매우 그렇다’ 18.0%)고 응답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은 58.3%가 ‘그렇다’(‘그렇다’ 45.1%, ‘매우 그렇다’ 13.2%)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3-11]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68.1%)이 남학생(62.3%)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73.0%, 중 64.1%, 하 47.9%),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양부모 66.1%, 조손가정 65.0%, 한부모 56.7%),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69.8%, 중 63.6%, 하 52.5%)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63.0%)이 남학생(53.7%)보다, 고등학생(59.0%)이 중학생(57.4%)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62.2%, 중 59.6%, 하 53.8%), 부모님과 함께 살수록(양부모 59.1%, 한부모 54.8%, 조손가정 48.9%),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59.5%, 중 58.8%, 하 50.3%) 사회참여 의의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표 III-3-95>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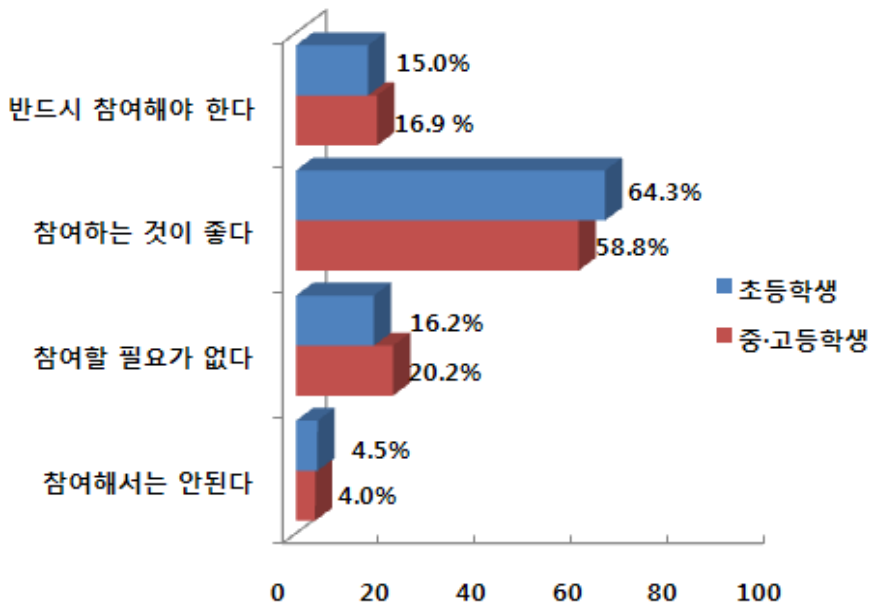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0.0	24.8	47.2	18.0	100(2550)	
성별	남	11.8	25.7	44.3	18.0	100(1307)	14.337**
	여	8.1	23.8	50.3	17.8	100(1243)	
학업 성적	하	19.7	32.4	35.0	12.9	100(340)	116.719***
	중	9.3	26.5	50.4	13.7	100(1168)	
	상	7.3	19.8	48.0	25.0	100(1001)	
가족 구성	양부모	9.5	24.4	47.6	18.5	100(2317)	13.939*
	한부모	14.8	28.6	43.9	12.8	100(196)	
	조손가정	20.0	15.0	55.0	10.0	100(20)	
경제 수준	하	17.5	30.0	35.0	17.5	100(40)	22.238**
	중	10.3	26.2	47.5	16.1	100(1781)	
	상	8.7	21.3	47.3	22.5	100(714)	

<표 III-3-96>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3.7	28.0	45.1	13.2	100(6967)	
성별	남	17.3	29.1	39.5	14.2	100(3534)	123.438***
	여	10.1	26.9	50.8	12.2	100(3433)	
교급	중	13.3	29.3	43.6	13.8	100(3163)	8.163*
	고	14.1	26.9	46.2	12.8	100(3775)	
학업 성적	하	16.3	29.8	43.2	10.6	100(2406)	57.808***
	중	12.4	28.1	46.5	13.1	100(2710)	
	상	12.4	25.3	45.5	16.7	100(1836)	
가족 구성	양부모	13.1	27.9	45.8	13.3	100(5902)	18.905**
	한부모	17.0	28.2	42.0	12.8	100(886)	
	조손가정	22.3	28.7	35.1	13.8	100(94)	
경제 수준	하	20.3	29.4	37.5	12.8	100(517)	41.654***
	중	12.9	28.3	46.0	12.8	100(5834)	
	상	16.1	24.4	42.3	17.2	100(603)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의 79.3%(‘참여하는 것이 좋다’

64.3%,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15.0%), 중·고등학생의 75.7%(‘참여하는 것이 좋다’ 58.8%,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16.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I-3-12]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84.1%)이 남학생(74.7%)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86.7%, 중 76.4%, 하 67.2%), 부모님과 함께 살수록(양부모 80.0%, 한부모 73.9%, 조손가정 65.0%),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위층일 경우(중 79.6%, 상 78.9%, 하 69.2%)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81.3%)이 남학생(70.4%)보다, 고등학생(78.2%)이 중학생(72.5%)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79.7%, 중 76.8%, 하 71.7%), 부모님과 함께 살수록(양부모 76.6%, 한부모 71.6%, 조손가정 67.4%),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위층일 경우(중 76.2%, 상 73.8%, 하 73.2%)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표 III-3-97〉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초등학생)

구 분		참여해서는 안된다	참여할 필요가 없다	참여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5	16.2	64.3	15.0	100(2527)	
성별	남	5.5	19.8	60.1	14.6	100(1288)	34.494 ***
	여	3.4	12.5	68.6	15.5	100(1239)	
학업 성적	하	6.8	26.0	56.6	10.6	100(339)	92.511 ***
	중	5.3	18.3	64.8	11.6	100(1154)	
	상	2.8	10.5	66.1	20.6	100(993)	
가족 구성	양부모	4.4	15.6	65.1	14.9	100(2294)	14.171 *
	한부모	3.6	22.4	56.6	17.3	100(196)	
	조손가정	15.0	20.0	55.0	10.0	100(20)	
경제 수준	하	10.3	20.5	41.0	28.2	100(39)	31.523 ***
	중	4.0	16.4	66.7	12.9	100(1770)	
	상	5.5	15.5	59.7	19.2	100(703)	

〈표 III-3-98〉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중·고등학생)

구 분		참여해서는 안된다	참여할 필요가 없다	참여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0	20.2	58.8	16.9	100(6940)	
성별	남	5.8	23.8	52.5	17.9	100(3521)	156.831 ***
	여	2.1	16.6	65.3	16.0	100(3419)	
교급	중	4.6	22.8	57.7	14.8	100(3145)	38.479 ***
	고	3.6	18.2	59.5	18.7	100(3767)	
학업 성적	하	5.0	23.3	56.8	14.9	100(2397)	49.725 ***
	중	3.4	19.7	60.2	16.6	100(2699)	
	상	3.4	17.1	59.5	20.2	100(1830)	
가족 구성	양부모	3.7	19.7	59.6	17.0	100(5882)	34.590 ***
	한부모	4.6	23.8	55.6	16.0	100(882)	
	조손가정	13.0	19.6	45.7	21.7	100(92)	
경제 수준	하	6.6	20.2	50.7	22.5	100(515)	70.259 ***
	중	3.4	20.5	60.2	16.0	100(5813)	
	상	7.8	18.4	52.3	21.5	100(599)	

(2) 참여의 장애요인

참여의 장애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부족, 필요성 인식 부족, 정보 부족, 부모님의 반대, 학교의 반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등 6가지 요인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먼저 ‘시간 부족’에 대해 초등학생은 40.7%(‘그렇다’ 33.3%, ‘매우 그렇다’ 7.4%)가, 중·고등학생은 57.5%(‘그렇다’ 46.7%, ‘매우 그렇다’ 10.8%)가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41.0%)이 남학생(40.3%)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44.8%, 중 38.7%, 하 35.3%),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42.0%, 중 40.2%, 하 30.8%)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58.5%)이 남학생(56.5%)보다, 고등학생(61.7%)이 중학생(52.6%)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62.2%, 중 58.3%, 하 53.0%), 부모님과 함께 살수록(양부모 58.5%, 한부모 53.3%, 조손가정 44.1%),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류층인 경우(중 58.3%, 상 55.6%, 하 50.7%)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99> 참여의 장애요인 - 시간 부족(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2.5	36.8	33.3	7.4	100(2560)	
성별	남	24.3	35.3	31.8	8.5	100(1311)	12.348**
	여	20.6	38.4	34.8	6.2	100(1249)	
학업 성적	하	25.0	39.4	30.0	5.3	100(340)	19.126**
	중	21.3	40.0	31.6	7.1	100(1177)	
	상	22.8	32.5	36.3	8.5	100(1001)	
가족 구성	양부모	22.1	36.7	33.7	7.4	100(2324)	5.715
	한부모	27.5	38.5	28.5	5.5	100(200)	
	조손가정	25.0	40.0	25.0	10.0	100(20)	
경제 수준	하	28.2	41.0	23.1	7.7	100(39)	26.925***
	중	20.5	39.3	33.6	6.6	100(1789)	
	상	27.2	30.8	32.8	9.2	100(717)	

〈표 III-3-100〉 참여의 장애요인 - 시간 부족(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9.7	32.8	46.7	10.8	100(6944)	
성별	남	11.6	31.9	44.4	12.1	100(3523)	45.721***
	여	7.8	33.7	49.0	9.5	100(3421)	
교급	중	11.8	35.7	44.8	7.8	100(3153)	92.843***
	고	8.1	30.2	48.4	13.3	100(3762)	
학업 성적	하	11.4	35.7	44.2	8.8	100(2398)	82.273***
	중	8.9	32.8	48.9	9.4	100(2704)	
	상	8.8	29.0	46.7	15.5	100(1828)	
가족 구성	양부모	9.4	32.1	47.3	11.2	100(5882)	17.582**
	한부모	10.5	36.2	44.1	9.2	100(883)	
	조손가정	15.1	40.9	36.6	7.5	100(93)	
경제 수준	하	14.8	34.6	39.4	11.3	100(515)	41.791***
	중	8.8	32.9	47.7	10.6	100(5817)	
	상	14.2	30.2	43.7	11.9	100(599)	

‘필요성 인식 부족’에 대해 초등학생은 27.9%(‘그렇다’ 22.8%, ‘매우 그렇다’ 5.1%)가, 중·고등학생은 43.4%(‘그렇다’ 36.8%, ‘매우 그렇다’ 6.4%)가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31.7%)이 여학생(24.1%)보다, 성적이 낮을수록(하 35.8%, 중 27.4%, 상 26.9%),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35.9%, 중 28.2%, 상 26.5%)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45.7%)이 여학생(40.5%)보다, 중학생(46.1%)이 고등학생(40.7%)보다, 성적이 낮을수록(하 44.9%, 중 44.0%, 상 39.6%),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류층일 경우(중 43.6%, 하 42.1%, 상 39.1%)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101〉 참여의 장애요인 - 필요성 인식 부족(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7.1	45.0	22.8	5.1	100(2556)	
성별	남	25.7	42.6	24.7	7.0	100(1306)	28.163***
	여	28.5	47.4	21.0	3.1	100(1250)	
학업 성적	하	23.5	40.8	27.3	8.5	100(341)	32.560***
	중	24.1	48.5	23.1	4.3	100(1170)	
	상	31.5	41.6	21.8	5.1	100(1002)	
가족 구성	양부모	26.9	45.3	22.8	5.1	100(2320)	6.613
	한부모	30.0	42.0	23.5	4.5	100(200)	
	조손가정	25.0	30.0	30.0	15.0	100(20)	
경제 수준	하	20.5	43.6	23.1	12.8	100(39)	40.672***
	중	24.1	47.6	23.6	4.6	100(1786)	
	상	35.1	38.4	20.8	5.7	100(716)	

〈표 III-3-102〉 참여의 장애요인 - 필요성 인식 부족(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2.5	44.3	36.8	6.4	100(6926)	
성별	남	13.4	40.8	37.7	8.0	100(3516)	56.144***
	여	11.6	47.9	35.8	4.7	100(3410)	
교급	중	12.2	41.6	39.5	6.6	100(3143)	21.906***
	고	12.8	46.5	34.6	6.1	100(3754)	
학업 성적	하	11.6	43.6	37.5	7.4	100(2392)	42.030***
	중	11.1	44.9	38.6	5.4	100(2700)	
	상	16.1	44.3	33.2	6.4	100(1820)	
가족 구성	양부모	12.5	44.3	36.6	6.5	100(5865)	1.258
	한부모	12.2	44.7	37.4	5.7	100(882)	
	조손가정	12.8	42.6	37.2	7.4	100(94)	
경제 수준	하	16.1	41.8	34.4	7.7	100(517)	38.237***
	중	11.6	44.8	37.5	6.1	100(5799)	
	상	18.8	42.2	31.7	7.4	100(597)	

‘정보 부족’에 대해 초등학생은 40.3%(‘그렇다’ 33.3%, ‘매우 그렇다’ 7.0%)가, 중·고등학생은 75.2%(‘그렇다’ 58.2%, ‘매우 그렇다’ 17.0%)가 ‘그렇

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중·고등학생의 참여 장애요인으로 정보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43.5%)이 남학생(37.1%)보다, 성적이 낮은 경우(하 45.7%, 상 42.1%, 중 37.7%),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46.1%, 중 42.4%, 상 34.2%)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103> 참여의 장애요인 - 정보 부족(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1.7	38.1	33.3	7.0	100(2552)	
성별	남	22.8	40.1	29.3	7.8	100(1303)	19.547***
	여	20.5	36.0	37.4	6.1	100(1249)	
학업 성적	하	20.6	33.6	36.3	9.4	100(339)	20.243**
	중	20.5	41.8	32.2	5.5	100(1170)	
	상	23.0	34.9	34.0	8.1	100(1000)	
가족 구성	양부모	21.4	38.2	33.4	7.0	100(2315)	4.279
	한부모	23.4	37.8	32.8	6.0	100(201)	
	조손가정	30.0	35.0	20.0	15.0	100(20)	
경제 수준	하	23.1	30.8	33.3	12.8	100(39)	72.794***
	중	17.4	40.1	35.7	6.7	100(1784)	
	상	32.5	33.3	27.3	6.9	100(714)	

중·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80.6%)이 남학생(69.8%)보다, 고등학생(81.6%)이 중학생(67.5%)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78.8%, 중 76.5%, 하 70.6%), 부모님과 함께 살수록(양부모 76.0%, 한부모 72.2%, 조손가정 62.4%),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류층인 경우(중 75.9%, 하 74.4%, 상 67.3%) 정보 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04〉 참여의 장애요인 - 정보 부족(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6.0	18.9	58.2	17.0	100(6923)	
성별	남	7.8	22.4	54.1	15.7	100(3513)	110.395***
	여	4.1	15.3	62.3	18.3	100(3410)	
교급	중	8.1	24.4	54.7	12.8	100(3139)	207.336***
	고	4.3	1.1	61.1	20.5	100(3756)	
학업 성적	하	7.2	22.2	56.3	14.3	100(2388)	85.210***
	중	4.9	18.6	60.7	15.8	100(2700)	
	상	6.2	15.0	56.7	22.1	100(1821)	
가족 구성	양부모	5.8	18.2	58.9	17.1	100(5865)	15.867*
	한부모	6.3	21.6	55.5	16.7	100(880)	
	조손가정	9.7	28.0	45.2	17.2	100(93)	
경제 수준	하	7.6	17.9	53.0	21.4	100(513)	63.800***
	중	5.2	18.8	59.3	16.6	100(5803)	
	상	12.3	20.4	51.3	16.0	100(594)	

참여의 장애요인 중 ‘부모 반대’에 대해 초등학생은 16.3%(‘그렇다’ 12.5%, ‘매우 그렇다’ 3.8%)가, 중·고등학생은 21.6%(‘그렇다’ 18.5%, ‘매우 그렇다’ 3.1%)가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중·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높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20.1%)이 여학생(12.3%)보다, 성적이 낮을수록(하 18.6%, 중 16.6%, 상 15.3%), 한부모 가정인 경우(한부모 21.0%, 조손가정 20.0%, 양부모 15.8%),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30.1%, 중 16.0%, 상 15.6%) 참여활동에 부모 반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20.5%)이 여학생(18.5%)보다, 중학생(23.5%)이 고등학생(20.1%)보다, 성적이 낮을수록(하 23.5%, 중 21.3%, 상 19.8%),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하 25.6%, 상 23.5%, 중 21.1%) 참여활동에 부모 반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105〉 참여의 장애요인 - 부모님 반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9.8	43.9	12.5	3.8	100(2555)	
성별	남	36.9	43.0	15.2	4.9	100(1308)	29.874***
	여	42.8	44.8	9.6	2.7	100(1247)	
학업 성적	하	38.2	43.2	12.4	6.2	100(340)	30.250***
	중	36.4	47.0	14.0	2.6	100(1172)	
	상	44.5	40.2	10.8	4.5	100(1000)	
가족 구성	양부모	40.1	44.1	12.0	3.8	100(2319)	14.786*
	한부모	35.0	44.0	18.0	3.0	100(200)	
	조손가정	45.0	35.0	5.0	15.0	100(20)	
경제 수준	하	28.2	41.0	25.0	5.1	100(39)	42.720***
	중	36.7	47.3	12.5	3.5	100(1787)	
	상	48.7	35.7	11.3	4.3	100(715)	

〈표 III-3-106〉 참여의 장애요인 - 부모님 반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7.2	51.1	18.5	3.1	100(6914)	
성별	남	27.4	54.5	16.4	4.1	100(3508)	53.342***
	여	27.1	54.5	16.4	2.1	100(3406)	
교급	중	26.0	50.4	19.8	3.7	100(3134)	14.757**
	고	28.2	51.6	17.5	2.6	100(3752)	
학업 성적	하	25.0	51.5	20.0	3.5	100(2383)	30.810***
	중	26.5	52.2	18.8	2.5	100(2697)	
	상	31.2	49.1	16.3	3.5	100(1820)	
가족 구성	양부모	27.6	51.2	18.2	3.0	100(5859)	11.335
	한부모	25.3	51.1	20.4	3.3	100(879)	
	조손가정	21.7	50.0	20.7	7.6	100(92)	
경제 수준	하	26.5	48.0	19.9	5.7	100(513)	57.174***
	중	26.4	52.6	18.4	2.7	100(5794)	
	상	36.0	40.6	18.4	5.1	100(594)	

‘학교 반대’로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는 초등학생의 9.6%(‘그렇다’ 7.8%, ‘매우 그렇다’ 1.8%), 중·고등학생의 23.1%(‘그렇다’ 18.2%, ‘매우

그렇다' 4.9%)로 중·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높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13.3%)이 여학생(5.9%)보다,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중 10.6%, 상 8.9%, 하 8.6%), 그리고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경우(하 23.1%, 상 11.0%, 중 8.6%) 학교 반대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표 III-3-107> 참여의 장애요인 - 학교 반대(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44.5	45.8	7.8	1.8	100(2549)	
성별	남	40.7	46.0	10.5	2.8	100(1301)	46.025***
	여	48.5	45.6	5.1	0.8	100(1248)	
학업 성적	하	45.0	46.2	6.8	1.8	100(338)	20.713**
	중	40.4	49.0	9.1	1.5	100(1169)	
	상	49.2	41.8	6.8	2.1	100(999)	
가족 구성	양부모	44.7	46.1	7.5	1.7	100(2314)	15.511
	한부모	41.7	44.7	11.6	2.0	100(199)	
	조손가정	45.0	35.0	10.0	10.0	100(20)	
경제 수준	하	28.2	48.7	20.5	2.6	100(39)	47.945***
	중	41.8	49.7	7.1	1.5	100(1785)	
	상	52.6	36.4	8.6	2.4	100(711)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27.8%)이 여학생(18.3%)보다, 고등학생(24.8%)이 중학생(21.2%)보다, 성적이 낮은 경우(하 23.5%, 상 23.2%, 중 22.7%), 그리고 경제수준이 상위층인 경우(상 29.5%, 하 25.5%, 중 22.3%) 참여의 어려움으로 학교 반대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표 III-3-108〉 참여의 장애요인 - 학교 반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22.9	54.0	18.2	4.9	100(6917)	
성별	남	23.6	48.6	20.8	7.0	100(3511)	128.840***
	여	22.2	59.5	15.5	2.8	100(3406)	
교급	중	24.3	54.5	17.2	4.0	100(3138)	19.422***
	고	21.7	53.5	19.1	5.7	100(3751)	
학업 성적	하	21.9	54.6	18.6	4.9	100(2386)	21.072**
	중	21.9	55.5	18.4	4.3	100(2699)	
	상	25.9	50.8	17.3	5.9	100(1818)	
가족 구성	양부모	22.9	54.1	18.1	4.9	100(5859)	4.654
	한부모	22.5	54.5	18.2	4.8	100(879)	
	조손가정	23.4	50.0	17.0	9.6	100(94)	
경제 수준	하	24.7	49.8	17.9	7.6	100(514)	65.585***
	중	22.1	55.6	18.0	4.3	100(5794)	
	상	28.9	41.6	20.8	8.7	100(596)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참여의 장애요인이라고 보는 응답률은 초등학생의 26.0%(‘그렇다’ 19.3%, ‘매우 그렇다’ 6.7%), 중·고등학생의 63.0%(‘그렇다’ 44.3%, ‘매우 그렇다’ 18.7%)로 중·고등학생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높은 경우(상 28.9%, 하 27.5%, 중 23.7%)와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하 35.9%, 중 26.2%, 상 24.6%)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67.1%)이 남학생(59.0%)보다, 고등학생(69.2%)이 중학생(55.6%)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68.0%, 중 62.8%, 하 59.4%),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64.4%, 중 63.3%, 상 58.7%)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09> 참여의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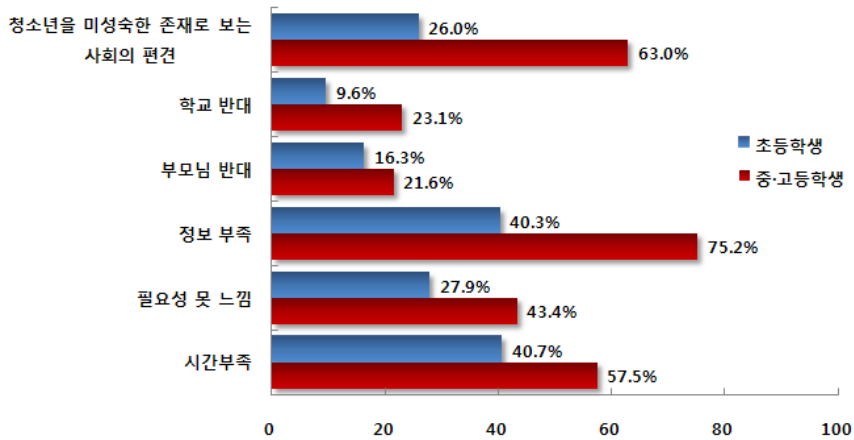
-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초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2.7	41.3	19.3	6.7	100(2547)	
성별	남	32.4	41.6	19.1	6.8	100(1301)	2.263
	여	33.0	41.0	19.5	6.5	100(1246)	
학업 성적	하	32.0	40.5	19.5	8.0	100(338)	25.660***
	중	30.8	45.5	18.8	4.9	100(1168)	
	상	34.7	36.4	20.4	8.5	100(997)	
가족 구성	양부모	32.9	41.2	19.3	6.6	100(2312)	2.758
	한부모	31.2	42.7	19.6	6.5	100(199)	
	조손가정	25.0	40.0	20.0	15.0	100(20)	
경제 수준	하	25.6	38.5	25.6	10.3	100(39)	34.278***
	중	29.9	43.9	20.2	6.0	100(1781)	
	상	40.2	35.3	16.6	8.0	100(712)	

<표 III-3-110> 참여의 장애요인

-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9.0	28.0	44.3	18.7	100(6927)	
성별	남	11.3	29.6	40.8	18.2	100(3516)	41.553***
	여	6.5	26.4	47.9	19.2	100(3411)	
교급	중	11.5	32.8	39.8	15.8	100(3142)	139.372***
	고	6.9	24.0	48.1	21.1	100(3757)	
학업 성적	하	10.1	30.5	41.0	18.4	100(2391)	60.062***
	중	8.2	29.0	46.5	16.3	100(2701)	
	상	8.7	23.3	45.3	22.7	100(1821)	
가족 구성	양부모	8.8	27.7	44.7	18.8	100(5869)	9.829
	한부모	9.0	28.8	44.4	17.8	100(880)	
	조손가정	16.1	31.2	32.3	20.4	100(93)	
경제 수준	하	10.7	24.9	41.4	23.0	100(514)	48.836***
	중	8.2	28.6	45.2	18.1	100(5803)	
	상	15.2	26.1	38.4	20.3	100(597)	



[그림 III-3-13] 참여의 장애요인

(3) 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 참여권 신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은 부모님 협조(34.9%), 사회인식 개선(21.7%), 참여 정보제공(11.2%), 다양한 참여기구와 프로그램 개발(10.8%), 학교 협조(7.4%), 권리상담 기구 운영(7.3%), 성적위주 학교와 사회분위기 개선(6.1%)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참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37.6%), 참여 정보제공(14.4%), 참여기구와 프로그램 개발(10.9%), 입시위주 교육풍토 개선(10.8%), 학교 협조(10.6%), 부모님 협조(7.7%), 권리상담 기구 운영(4.4%)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부모님 협조’를 1순위로, ‘참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2순위로 꼽은 반면, 중·고등학생은 ‘참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1순위로 꼽았으며 ‘입시위주 교육풍토’가 초등학생에 비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참여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 3순위, 2순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성별, 성적, 경제수준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부모님 협조’와 ‘학교 협조’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고, 성적이 높은 경우 ‘사회인식 개선’, ‘성적 위주의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

선’, ‘권리 상담기구 운영’에, 중위권의 경우 ‘부모님 협조’, ‘정보 제공’에, 하위권의 경우 ‘학교 협조’와 ‘참여 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상위층은 ‘부모님 협조’에, 중간층은 ‘사회인식 개선’, ‘정보 제공’, ‘성적 위주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에, 하위층은 ‘학교 협조’, ‘권리 상담기구 운영’, ‘참여 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특히 하위층의 ‘학교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의 세 배 가량 높아 전체집단 응답률 5순위인 ‘학교 협조’가 경제수준 하위층에서는 1순위로 높게 나타났고 다른 집단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사회인식 개선’이나 ‘정보제공’에 대한 응답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3-111> 참여 활성화 방안(초등학생)

구 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부모님 협조	학교 협조	참여에 대한 활동 정보 제공	성적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	아동 권리 상담 기구 운영	다양한 참여 기구, 프로 그램 개발	기타	전체 (빈도)	카이 제곱값
전 체		21.7	34.9	7.4	11.2	6.1	7.3	10.8	0.6	100(2470)	
성별	남	20.5	38.8	9.3	9.2	5.4	6.4	9.9	0.5	100(1249)	40.600 ***
	여	23.0	30.9	5.5	13.2	6.8	8.2	11.7	0.7	100(1221)	
학업 성적	하	18.0	27.6	11.3	8.0	5.8	5.8	13.1	0.3	100(327)	77.654 ***
	중	17.6	38.1	8.5	12.3	4.7	7.3	10.6	0.9	100(1127)	
	상	28.2	29.8	4.9	10.6	8.1	7.8	10.2	0.4	100(976)	
가족 구성	양부모	22.4	34.4	7.2	11.3	6.1	7.4	10.7	0.5	100(2341)	23.334
	한부모	15.5	39.4	9.3	11.4	5.2	6.2	11.9	1.0	100(201)	
	조손가정	10.5	36.8	15.8	0.0	15.8	10.5	5.3	5.3	100(20)	
경제 수준	하	10.5	34.2	21.1	7.9	2.6	7.9	13.2	2.6	100(38)	27.391 *
	중	22.1	33.7	7.0	11.5	7.0	7.5	10.9	0.5	100(1729)	
	상	21.3	38.0	7.8	10.6	4.2	6.7	10.6	0.9	100(690)	

중·고등학생의 경우, 모든 변인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은 ‘부모님 협조’와 ‘학교 협조’, ‘권리상담 기구 운영’에, 여학생은 ‘사회인식 개선’, ‘정보 제공’, ‘입시위주 교육풍토 개선’, ‘참여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학생은 ‘부모님 협조’, ‘학교 협조’, ‘권리상담 기구 운영’, ‘참여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고등학생은 ‘사회인식 개선’, ‘정보 제공’, 특히 ‘입시위주 교육풍토 개선’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적 상위층은 ‘사회인식 개선’과 ‘입시위주 교육풍토 개선’에 눈에 띄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나머지 방안들에 대해서는 하위층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양부모 가정 청소년은 ‘사회인식 개선’과 ‘입시위주 교육풍토 개선’에,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권리상담 기구 운영’과 ‘참여 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조손가정 청소년은 ‘부모님 협조’, ‘학교 협조’, ‘활동정보 제공’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층은 ‘부모님 협조’, ‘학교 협조’에, 중위층은 ‘사회인식 개선’, ‘권리 상담기구 운영’, ‘참여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하위층은 ‘정보 제공’과 ‘입시위주 교육풍토 개선’에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3-112〉 참여 활성화 방안(중·고등학생)

구 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부모님 협조	학교 협조	참여에 대한 활동 정보 제공	입시위주 교육풍토 개선	청소년 권리에 관한 상담 기구 운영	다양한 참여 기구, 프로 그램 개발	기타	전체 (빈도)	카이 제곱값
전 체		37.6	7.7	10.6	14.4	10.8	4.4	10.9	3.7	100(6842)	
성별	남	36.5	10.2	13.6	11.1	9.9	4.5	9.8	4.5	100(3488)	199.521 ***
	여	38.8	5.1	7.5	17.8	11.7	4.2	12.1	2.8	100(3354)	
교급	중	35.7	11.7	12.6	13.2	5.3	4.5	12.0	4.9	100(3123)	543.757 ***
	고	39.2	4.3	9.0	15.3	15.4	4.3	9.9	2.6	100(3690)	
학업 성적	하	33.4	10.3	12.3	15.0	7.0	5.2	12.1	4.7	100(2360)	184.355 ***
	중	37.9	7.5	10.6	14.4	11.1	4.6	10.6	3.3	100(2663)	
	상	42.9	4.3	8.4	13.6	15.2	2.9	9.9	2.8	100(1807)	
가족 구성	양부모	38.0	4.8	10.4	14.1	11.2	4.3	11.0	3.6	100(5788)	26.268 *
	한부모	36.7	8.2	11.2	15.7	8.6	4.7	11.2	3.8	100(875)	
	조손가정	30.9	11.7	17.0	16.0	4.3	4.3	7.4	8.5	100(94)	
경제 수준	하	36.4	8.3	11.9	15.2	11.3	3.8	9.5	3.8	100(506)	56.164 ***
	중	38.0	7.2	9.9	14.6	10.8	4.6	11.3	3.4	100(5734)	
	상	36.1	11.2	16.3	10.5	9.7	2.5	8.5	5.3	100(590)	

‘청소년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인권정보 제공 등 청소년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예: 아동·청소년인권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은 81.0%(‘필요하다’ 46.9%, ‘반드시 필요하다’ 34.1%)가, 중·고등학생은 78.3%(‘필요하다’ 50.6%, ‘반드시 필요하다’ 27.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86.4%)이 남학생(75.7%)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87.5%, 중 78.2%, 하 70.8%),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양부모 82.1%, 조손가정 70.0%, 한부모 69.8%)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13〉 청소년인권 옹호 기구 필요성(초등학생)

구 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5.2	13.9	46.9	34.1	100(2563)	
성별	남	7.2	17.1	41.8	33.9	100(1306)	55.854***
	여	3.0	10.6	52.2	34.2	100(1257)	
학업 성적	하	8.5	20.7	40.8	30.0	100(343)	64.002***
	중	5.5	16.3	47.6	30.6	100(1172)	
	상	3.7	8.9	47.8	39.6	100(1005)	
가족 구성	양부모	4.6	13.3	47.6	34.5	100(2328)	24.072**
	한부모	10.6	19.6	42.7	27.1	100(199)	
	조손가정	10.0	20.0	35.0	35.0	100(20)	
경제 수준	하	5.1	23.1	38.5	33.3	100(39)	9.627
	중	4.7	13.9	48.3	33.0	100(1792)	
	상	6.0	13.2	43.7	37.1	100(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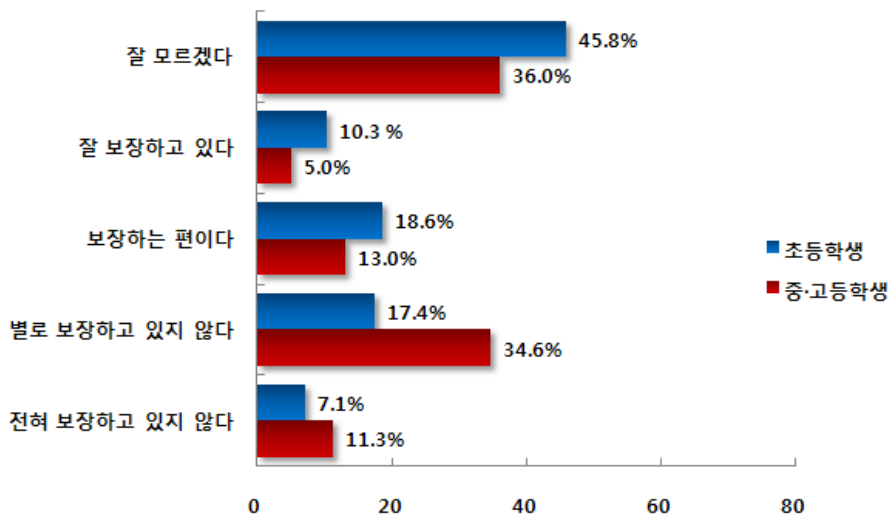
중·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84.4%)이 남학생(72.4%)보다, 고등학생(81.5%)이 중학생(84.4%)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82.8%, 중 79.2%, 하 73.8%), 부모님과 함께 살수록(양부모 79.3%, 한부모 73.5%, 조손가정 64.2%),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위층인 경우(중 78.5%, 하 77.4%, 상 77.3%) 인권 옹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3-114〉 청소년인권 옹호 기구 필요성(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9	17.8	50.6	27.7	100(6986)	
성별	남	5.7	21.8	44.9	27.5	100(3547)	171.072***
	여	2.1	13.6	56.5	27.9	100(3439)	
교급	중	4.8	20.9	50.2	24.2	100(3175)	68.475***
	고	3.2	15.3	50.8	30.7	100(3781)	
학업 성적	하	5.5	20.7	47.8	26.0	100(2419)	61.116***
	중	3.4	17.4	52.8	26.4	100(2710)	
	상	2.7	14.5	51.1	31.7	100(1842)	
가족 구성	양부모	3.7	17.0	51.3	28.0	100(5917)	28.132***
	한부모	5.3	21.2	47.7	25.8	100(888)	
	조손가정	6.3	29.5	36.8	27.4	100(95)	
경제 수준	하	4.6	18.1	43.7	33.7	100(520)	35.110***
	중	3.6	17.9	51.8	26.7	100(5851)	
	상	6.1	16.6	44.6	32.7	100(603)	

(4) 참여권 보장 수준

‘우리 사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의 28.9%(‘보장하는 편’ 18.6%, ‘잘 보장’ 10.3%), 중·고등학생의 18.0%(‘보장하는 편’ 13.0%, ‘잘 보장’ 5.0%)가 보장받겠다고 응답하여 참여권 보장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 매우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초등학생 45.8%, 중·고등학생 36.0%)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III-3-14] 우리 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29.7%)과 여학생(29.8%)의 ‘보장받는다’는 응답률이 비슷했는데 여학생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8.5%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층인 경우(상 35.1%, 하 31.6%, 중 27.5%)가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20.5%)이 여학생(15.6%)보다, 중학생(21.8%)이 고등학생(14.9%)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20.2%, 중 18.2%, 하 16.4%),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25.8%, 중 17.5%, 하 15.5%)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생(51.9%), 성적 상위권(50.6%), 경제수준 하위층(53.1%)의 절반 이상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3-115> 우리 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초등학생)

구 분		전혀 보장하고 있지않다	별로 보장하고 있지않다	보장하는 편이다	잘 보장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7.1	17.4	18.6	10.3	45.8	100(2531)	
성별	남	9.2	17.9	17.8	11.9	43.2	100(1292)	23.136***
	여	4.9	16.9	19.5	10.3	48.5	100(1239)	
학업 성적	하	8.0	18.3	16.6	9.5	47.6	100(338)	14.970
	중	5.7	17.8	19.2	10.0	47.4	100(1154)	
	상	8.5	16.8	18.7	12.8	43.1	100(998)	
가족 구성	양부모	6.7	17.2	13.1	10.7	46.3	100(2302)	14.114
	한부모	10.4	18.1	13.0	16.6	42.0	100(193)	
	조손가정	5.0	20.0	25.0	10.0	40.0	100(20)	
경제 수준	하	7.9	13.2	15.8	15.8	47.4	100(38)	32.283***
	중	6.5	18.6	18.3	9.2	47.4	100(1773)	
	상	8.5	14.5	19.4	15.7	41.8	100(705)	

<표 Ⅲ-3-116> 우리 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중고등학생)

구 분		전혀 보장하고 있지않다	별로 보장하고 있지않다	보장하는 편이다	잘 보장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전 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11.3	34.6	13.0	5.0	36.0	100(6981)	
성별	남	12.6	31.3	13.8	6.6	35.7	100(3542)	74.999***
	여	9.9	38.0	12.2	3.4	36.4	100(3439)	
교급	중	9.4	29.4	14.9	6.9	39.4	100(3173)	136.794***
	고	12.9	39.0	11.4	3.5	33.2	100(3778)	
학업 성적	하	11.6	32.4	11.0	5.4	39.6	100(2413)	66.469***
	중	10.1	34.3	13.6	4.6	37.5	100(2710)	
	상	12.6	38.0	14.9	5.3	29.1	100(1843)	
가족 구성	양부모	11.0	34.6	13.3	4.8	36.2	100(5915)	14.827
	한부모	13.0	34.9	11.4	5.2	35.6	100(886)	
	조손가정	10.5	32.6	9.5	11.6	35.8	100(95)	
경제 수준	하	17.6	35.5	10.3	5.2	31.4	100(516)	77.786***
	중	10.6	35.0	13.0	4.5	36.8	100(5850)	
	상	12.6	29.4	15.3	10.5	32.2	100(602)	

IV.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실태조사결과 요약

IV.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실태조사결과 요약

1. 아동·청소년 발달권 조사결과요약

발달권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각 발달단계의 과업수행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에 대한 권리로 정의된다. 발달권은 발달이라고 하는 성장의 개념과 권리라고 하는 법적 개념의 결합으로, 발달권 실현의 보장을 위한 제반 환경의 조성과 개선이 요구되며 동시에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필요하다. 발달에 대한 권리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제반 조건형성 및 촉진과 더불어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청소년들 간에는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자질에 따른 세분화된 발달과업을 상징, 그에 따른 적절한 권리의 보장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권 영역에서의 실태조사는 발달의 과업에서 요구되는 조건과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은 인지, 정서, 사회, 직업, 그리고 신체적 영역으로 나뉘게 되며 실태조사 또한 이러한 구분에 의해 실시되었다.

첫째, 인지발달기회와 관련된 설문항목으로 학업중도포기 이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사교육 경험 유무와 효과성,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 학교수업진행 수준,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결과를 분석했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로 초·중·고 공통으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침에 일어나기 싫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공부가 싫어서라는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른 남녀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성적이 좋지 않

기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성적이 낮은 집단 일수록 높았다. 대다수의 아동들이 학교수업이 이해하기 적당하거나 쉽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들의 경우 26%가 학교수업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답변하고 있다. 성적하위 집단이나 경제수준 하위집단 청소년들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전체 아동의 72%, 청소년의 63% 이상이 사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상응하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80% 정도, 청소년은 63.5%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험비율이 높았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려는 이유에 대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73.2%는 학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지만, 포기할 생각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 8.5%, 경제적인 문제가 4.8%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하위집단이 중간 및 상위집단 보다, 조손 및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경제수준 하위집단이 중간 및 상위 집단보다 학업포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둘째, 정서적 발달영역 중 정서발달환경은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아버지),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어머니), 학교선생님과의 대화빈도,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평균(하루기준),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지각, 휴일을 보내는 방법,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가정, 친구, 학교 생활영역별 만족도, 고민 상담대상, 고민거리의 유형별 우선 순위 및 부모·자녀관계 등의 지표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정서적 안정은 현재의 심리·정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울감, 학업스트레스,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고립감, 정서적 조절감, 낙관성 척도등을 사용하여 조사가 실시되어졌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 일수록 아버지와의 대화빈도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 일수록 아버지와의 대화빈도가 높았다. 어머니의 대화빈도의 경우 상기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선생님과 대화 빈도는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서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 일수록 그 빈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부모자녀관계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 수준이 상위집단에서 긍정적 관계정도가 높았다.

아동과 청소년의 가정, 학교 및 친구에 대한 만족도에는 일정한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가족구성유형의 경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나 조손가정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변인의 경우 상위집단이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아동과 청소년의 고민거리 중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청소년의 경우는 친구문제로 인한 고민이, 아동의 경우 여가시간이용에 대한 고민이 뒤따랐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민은 학업성적 하위집단에서 응답비율이 중간 및 상위집단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마찬가지로 경제수준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 일수록 보다 중간층이나 상위층의 청소년들보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관찰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민상담 대상에 대해 전체 아동의 43.5%가 어머니라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의 40.2%가 동성친구라고 응답했으며, 어머니는 20.8%로 나타났다. 상담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아동 13%, 청소년은 13.9%였다.

어떻게 휴일을 보내는지에 대해 전체 아동의 20.6%가 게임하기, 친구와 놀기 17.2%, 15.1%는 TV시청으로 응답했으며, 청소년의 25.5%가 게임하기, 19.9%는 TV시청, 친구와 놀기 13.3%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게임에 대한 응답비율이 여자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게임의 경우 가족구성 유형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양부모에 비해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루에 활용가능 한 여가시간에 대해 평균 1~2시간 정도 된다고 응답한 아동(28.1%)및 청소년(27.1%)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 그렇다 이상을 기준으로 아동은 57.7%, 청소년은 30.6%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39.4%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주변의 여가시설이 충분하다(그렇다를 기준으로)고 생각하고 있어 청소년의 11.4%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아동 및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과 정서적 고립감 정도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하위집단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족구성 유형 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 아동의 우울감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한부모, 조손가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조절감, 낙관성 수준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서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각각의 변인에서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유형에 따라 양부모가정이 한부모와 조손가정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 그들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에 따라 하위, 중간, 상위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행복감에 대해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의 행복감 수준은 중간집단과 하위집단 보다 높았으며, 가족구성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확인되었는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행복감보다 높았다.

셋째, 사회적 발달 중 사회성 발달 기회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아동·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성 발달정도는 갈등해결전략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에 대해 아동 청소년 모두 3~4명 정도 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 구성유형과 경제수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데, 양부모가정이고 집안이 잘 살수록 많은 수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동아리 가입 및 활동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아동의 76%, 청소년의 55.3%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가입동아리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55.3%, 학교 내 동아리 활동은 36.4% 였으며, 사이버 및 학교 밖 동아리 활동에 대한 비율은 미비하게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년단체에 가입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청소년의 88.1%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청소년 활동의 효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 보다 높았다.

갈등해결방식 중 협력전략(대체로 그렇다를 기준으로)에 대해 아동의 72.2%, 청소년의 77.7%가, 양보전략은 아동의 57.7%, 청소년의 53.4%가, 회피전략은 아동의 58.5%, 청소년의 59.2%가, 지배전략에 대해 아동의 28%, 청소년의 29.5%가 해당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전략과 양보전략의 경우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서 사용 비율이 높았다.

넷째, 직업적 발달은 진로준비기회와 직업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교육경험유무 및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후자는 진로직업태도와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진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고등학생의 59%가 받아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진로교육에 대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26.2%(그렇다를 기준으로)가 만족 한다고 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비교에서 학업성적 및 가족구성 유형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적 상위집단이 중간 및 하위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와 조손가정보다 높았다.

진로 성숙도로 표현되는 진로직업 태도는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이 중간집단 보다, 중간집단이 하위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와 조손가정 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졸업 후 진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 중학생의 45.5%는 인문계 진학, 추후결정이 28.8%, 자율형사립고 진학이 15.1%, 전문계 진학이 9.3%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3.4%는 보통수준의 대학진학, 상위권 대학진학은 33.1%로 나타나 전체 66.5%의 고등학생이 졸

업 후 대학진학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년제 대학진학과 졸업 후 취직의 경우 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하위집단 이나 중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섯째, 신체적 발달 중 신체발달 기회를 측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운동실천 여부, 평일 평균수면시간,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된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일일평균 아동의 수면 시간의 경우 7~8시간(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는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일일 평균 수면시간 5~6은 31.6%로 가장 높았으며, 6~7시는 30.2%로 그 뒤를 따랐다. 7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생의 응답비율은 11.9%에 불과했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 성적상위집단으로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이 중간집단의 아동과 청소년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았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에서 양부모가정 아동과 청소년이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보다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에 속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중간집단과 하위집단에 보다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정기적인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아동의 43.8%, 청소년의 19.3%가 일주일에 3~4회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신체적 안정, 양육환경의 적절성, 지적능력과 다른 능력들의 완전한 개발,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정책과제를 세분화하고 해당 시기의 정책과제 이행여부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발달이 성장과정에서 발현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고려된다면,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여가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향유가 강조되어야 한다.

교육은 단순한 제도교육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정내에서의 올바른 교육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존중 등을 포괄한다.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정서,인지, 사회성 발달 기회

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공간이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교사나 동료관계의 친밀감이나 결속력의 부족으로 아동·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과중한 사교육과 학습부하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시간의 부족은 우리 아동·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전인적 발달의 중요한 요소인 교육이 권리가 실현되는 공간인 학교가 성장과 발달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창의성을 개발하고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의 목적과 학교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 인식변화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시작한 가정내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 이를테면 빈곤 가족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오늘날 입시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위주의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견인할 수 있는 전인적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우울증이나 자살, 사회적 고립감, 정서적 불안 등 발달권의 중요한 지표들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고, 이 같은 요인은 주로 개성과 인성을 경시하는 현재의 입시중심의 교육에 기반한다. 아동·청소년이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균등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시체제는 상당한 개선이 불가피하다.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보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 시기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국가의 정책적 과제 그리고 현재 아동과 청소년이 국가의 정책적 과제로부터 그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조사결과요약

청소년 참여권은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국제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하나의 권리로 천명하고 국가와 세계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이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듯이 청소년 참여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보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사회참여 및 참정권, 참여관련 인식 등 청소년인권지표체계의 6개 관심영역에 총 61개 문항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보호 영역이다. 중·고등학생의 38.9%가 학교 종교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이 아직 미완의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부모는 가정 중요사(초등 80.9%, 중·고등 72.5), 상급학교 선택(초등 82.9%, 중·고등 77.0%), 진로선택(초등 87.9%, 중·고 79.0%) 시에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었는데,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의견 존중도가 높았다.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정보, 징계대상 학생 정보, 개인 시험성적 등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에서 시험성적 공개가 많았고(초등 74.2%, 중·고등 59.8%), 교육비 미납 학생 공개(초등 40.2%, 중·고등 37.0%), 징계대상 학생 정보 공개(41.2%) 등도 40% 전후로 나타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인권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사생활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의 33.6%, 중·고등 학생의 45.6%가 학교에서 개인 소지품 검사 경험이 있고 이 중 각각 47.1%

와 77.1%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등교 후 휴대폰을 제출하는 경우도 초등학교 45.1%, 중·고등학교 62.1%로 나타났는데 개인 소지품 검사 부당성에 대해 중·고등학교의 문제의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물품을 검사, 압수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만큼 합의된 타당한 목적 하에 구성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사적취향의 표현으로 두발과 복장 규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의 15.1%, 중·고등학교의 80.7%가 두발 규제 경험이 있고, 그 중 각각 53.4%와 70.1%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복장 규제는 초등학교의 10.8%와 중·고등학교 68.4%가 경험이 있고 그 중 각각 60.7%와 70.5%가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두발과 복장은 개인취향 표현권과도 관련되는 만큼 학교구성원 대상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도방법에 있어서도 인권친화적인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의견표현으로,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의 자율권 보장(초등 60.6%, 중·고등 48.9%)과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제시 가능(초등 77.2%, 중·고등 51.5%) 등에 대해 중·고등학교는 50% 전후의 응답률을 보여 학교에서의 의견표현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초등학교 16.8%, 중·고등학교의 24.5%는 징계대상 학생에게 소명권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현행 교육법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으로, 지난 1년간 인터넷에 게시글 작성 경험에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 30.9%, 중·고등학교 68.7%였으며, 댓글 작성 경험은 초등학교 29.5%, 중·고등학교 35.5%로 나타나 특히, 중·고등학교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표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았다.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 대중매체의 부정적 청소년상(像) 유포 등에 대해 초등학교는 40%선(46.3%, 48.1%, 43.4%), 중·고등학교는 70%선(73.0%, 77.2%, 70.6%)의 응답률

을 보여 중·고등학생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이다. 학생회나 학급회 결정사항 인지도를 통해 자치조직 참여도를 알아본 결과, 인지도는 초등학생 58.2%, 중·고등학생 29.9%로 낮게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서 교내외 동아리를 모두 허용하는 경우는 18.4%로 매우 낮았다.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으로 토론(초등 48.3%, 중·고등 34.2%), 모임이나 카페 가입(초등 29.2%, 중·고등 31.0%),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초등 21.0%, 중·고등 11.3%), 서명운동(초등 14.4%, 중·고등 29.8%) 등 초등학생의 참여 경험이 중·고등학생 못지않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절반이 약간 넘는 51.4%의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네 번째, 정보접근권과 정보참여 영역이다. 학교가 학생에게 학교생활규정을 성실하게 공지하는지, 학생이 학교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 응답률은 두 질문 모두 80%선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중·고등학생은 그보다 낮은 69.5%, 59.4%로 나타났다.

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현황을 알아본 결과, 아동·청소년용 정책자료,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10~20%선으로 낮았는데, 그 중 초등학생에 대한 권리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은 43.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인권교육 경험은 초등학생 36.1%, 중·고등학생 26.5%로, 인권교육 필수 실시를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았다.

다섯 번째, 사회참여 및 참정권 영역이다. 사회참여의 하나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에 대해 초등학생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서(33.8%)’가, 중·고등학생은 ‘학교성적에 포함되기 때문(56.6%)’이 1순위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 점수화로 인한 부정적 단면을 보여주었다.

아동총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와 참여경험에 대해, 초등학생의 50.5%, 중·고등학생의 64.3%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참여기구에 대한

홍보와 확산이 필요함을 제기해 주었다.

아동·청소년정책과 시설 설치·운영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각각 31.7%, 28.6%, 중·고등학생 각각 16.1%, 6.9%로 특히 중·고등학생이 정책사업 반영도에 회의적인 응답을 보였다.

학교에서의 참여 현황으로 학생회 운영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해본 결과, 중·고등학교 학생회 활동 시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5.2%, 임원 자격에 성적 제한이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 50.5%, 중·고등학교 18.2%, 학생회 활동장소와 시간 보장의 경우는 초등학교 42.5%, 중·고등학교 18.1%, 학생회 임원 직선제 선출의 경우는 초등학교 80.8%, 중·고등학교 45.0% 등으로,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운영 시 학생 자율성 보장수준이나 민주화 및 활성화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 65.0%, 중·고등학생 33.8%가 학교 규칙이나 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경우는 초등학생 17.8%, 중·고등학생 12.1%로 낮게 나타났다(발언권 없이 참여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각각 24.4%, 19.2%).

교육활동 결정과정 참여현황으로, 먼저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교실 선택권이 있다는 초등학생은 79.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추가교육 프로그램인만큼 선택권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0교시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 등 선택권이 있다는 중·고등학생은 36.6%에 불과했다.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결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초등학생은 73.5%로 비교적 높았으나 중·고등학생은 51.4%로 절반 정도였다. 급식메뉴와 질에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60.5%, 중·고등학생 36.2%로 역시 중·고등학생이 낮게 나타나 각종 교육활동 시 학생들의 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참정권과 관련하여 64.5%의 초등학생이 어른이 되면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중·고등학생의 37.4%가 선거연령 하향화(모두 선거에서 만 18세로 하향 21.9%,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 지역 정치인만 만 18세로 하향 15.5%)에 동의하였고 ‘모르겠다’는 의견도 31.8%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 번째, 참여관련 인식 영역이다. 초등학교생 65.2%, 중·고등학교생 58.3%가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초등학교생 79.3%, 중·고등학교생의 75.7%가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초등학교생은 시간부족(40.7%)과 정보부족(40.3%)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고등학교생은 정보부족(75.2%),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63.0%), 시간부족(57.5%) 등을 꼽아, ‘정보부족’이 참여의 큰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초등학교생은 부모협조(34.9%)와 사회인식 개선(21.7%), 정보제공(11.2%), 참여기구와 프로그램 개발(10.8%) 순으로, 중·고등학교생은 사회인식 개선(37.6%), 정보제공(14.4%), 그 외 참여기구와 프로그램 개발, 입시위주 교육풍토 개선, 학교 협조 등이 10%대의 유사한 응답률을 보여 ‘참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정보제공’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및 상담, 인권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 인권을 옹호하는 기구(예: 아동·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 초등학교생의 81.0%, 중·고등학교생 78.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참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생 28.9%, 중·고등학교생 18.0%만이 보장받는다고 응답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각각 45.8%, 36.0%로 높게 나타나 참여에 대한 아동·청소년 스스로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은 낮았으며 초등학교생보다 중·고등학교생의 경우 더욱 낮게 나타났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신체의 자유, 사적취향의 표현 등에 있어 아동·청소년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어 인권은 유보되는 측면이 있었고, 미성숙하고 무능력하며 잠재적 문제집단이라는 사회의 편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 참여도 미흡하였는데, 학내 매체, 학생회, 동아리 등 의견표현 통로나 자치모임 운영의 민주성과 활성화, 학생 자율성 보장수준이 낮은 편이었고 학교 규칙 제·개정 시 주요 구성원인 학생의 의견 반영 수준도 낮았다.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

동 결정 시 학생의 선택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아동·청소년정책과 시설 설치·운영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도 낮게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이 사회참여의 하나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로 ‘학교성적 반영’을 1순위로 꼽은 것도 시사적이다. 참여의 주요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눈높이의 정책 홍보자료와 인권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보장에 필수적인 인권교육 실시 정도도 미흡하였다.

다행히 사회참여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은 높은 편이며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꼽힌 ‘시간부족’과 ‘정보부족’, ‘사회의 편견’ 등은 기성세대와 사회가 노력하여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아동·청소년인권센터와 같은 인권 옹호기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부 문항들에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꽤 높은 것을 볼 때, 아동·청소년 스스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할 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권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또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권향유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장면과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실질적인 참여기구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역량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보제공과 인권교육 실시, 이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인권센터와 같은 기관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늘 언급되는 시간부족과 입시위주 교육풍토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 존재의 변화된 위상과 미래 전망에 대한 전향적인 관점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 록

부 록. 201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



본 설문지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사항은 보호되며,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D — —

201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 초등학교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국가연구기관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며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연구 자료로만 이용되므로 본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6.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사진행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담당연구자:	모상현 박사 · 김영지 박사	조사 문의처:	02-2017-1809~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다음은 교육과 문화·여가(자유)생활 혹은 신체적 활동 등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문항들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1. 평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자나요?
 ① 5시간 이하 ② 5~6시간 정도 ③ 6~7시간 정도
 ④ 7~8시간 정도 ⑤ 8~9시간 정도 ⑥ 9시간 이상

2.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많다 ⑤ 매우 관심이 많다

3. 내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4. 현재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하고 있는 운동(단, 학교체육시간에 하는 운동 제외) 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①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한 달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1~2회 정도
 ⑤ 일주일에 3~4회 이상

5. 지금 받고 있는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나요?
 ①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② 이해하기 힘든 편이다
 ③ 이해하기에 적당하다 ④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⑤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6. 학교 수업은 아래 보기 중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① 상위권 ② 중상위 ③ 중간권
 ④ 중하위 ⑤ 최하위권

7.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 하루 평균 몇 시간 공부하나요?

- | | | |
|---------|---------|----------|
| ① 1시간 | ② 1~2시간 | ③ 2~3시간 |
| ④ 3~4시간 | ⑤ 4~5시간 | ⑥ 5시간 이상 |

8. 지난 1년간 (2009년6월~2010년5월까지) 학교수업 이외에 성적향상(진학)을 위해 과외, 학원, 학습지 중 하나라도 받은 경험이 있나요?

- ① 없다 (☞ 문제 9번으로 가세요)
② 있다 (☞ 문제 8-1번으로 가세요)

8-1. 사교육(학교수업 이외 과외, 학원, 학습지 등의 공부)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

9.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되나요?

- | | | |
|---------|---------|----------|
| ① 1시간 | ② 1~2시간 | ③ 2~3시간 |
| ④ 3~4시간 | ⑤ 4~5시간 | ⑥ 5시간 이상 |

10. 나의 여가(자유)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

11. 우리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나 영화, 연극, 음악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

12.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골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① 공부	② 독서	③ TV 시청
④ 게임(인터넷 게임 포함)	⑤ 인터넷(정보검색과 숙제)	⑥ 친구와 놀기
⑦ 음악, 회화 등 취미활동	⑧ 문화, 예술행사 관람 (영화, 음악회 등)	⑨ 운동
⑩ 휴대폰으로 대화하기	⑪ 쇼핑	⑫ 집에서 휴식
⑬ 기타()		

13. 현재 보이с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단, 누리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등과 같은 어린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나요?

- ① 가입하지 않았다
-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4.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을 보기에서 골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①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② 친구문제로
③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④ 제대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⑤ 여가(노는)시간을 따분하게 보내서	⑥ 부모님이 집에 자주 안 계셔서
⑦ 남자 혹은 여자라는 차별 때문에	⑧ 외모나 신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⑨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⑩ 몸이 아파서
⑪ 가족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⑫ 용돈이 적어서
⑬ 특별한 고민이 없음	⑭ 기타()

19. 다음은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생각이 다르거나 다투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해주세요.

내 용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1)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친구에게 맞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서로 다툴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의 견해가 다르더라도 나는 내 주장을 밀고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에게 친한 친구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성적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8) 앞으로 해야 할 공부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해당하는 곳에 √표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금의 내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곳에 √표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떤 일이든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빨리 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화가 나거나 감정이 상해도 이를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 질것으로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뜻한 일이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시작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면, 왜 그런지를 보기에서 골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③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④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⑥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⑦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⑧ 학교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⑨ 학교규율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아서	⑩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
⑪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⑫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음

24. 다음의 생활영역에서 얼마나 만족하나요? 각 영역별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내 용	매우 불만족 이다	불만족 이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가정생활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3) 친구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내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생각을 표현하고 가정·학교·사회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25. 여러분의 가정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도 좋아하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직업을 부모님도 좋아하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6. 여러분의 학교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특별활동(특활), 방과 후 교실 등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을 갈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3) 급식 메뉴나 음식의 질 등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고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신문이나 소식지 등의 내용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내지 못했더라도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학생이 잘못된 일로 징계(벌)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을 학교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 앞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규칙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우리학교와 학급의 규칙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학급회나 전교 어린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7. 전교 어린이회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학교 상황과 가까운 것에 √표 해주세요.

내 용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전교 회장이나 부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2) 전교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3) 전교 회장이나 부회장을 전교 학생들이 직접 투표하여 뽑는다.	①	②	③

28. 전교 어린이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 ① 참여할 수 없다.
-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할 수 있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29. 학교에서 징계(벌)을 받게 되는 경우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나요?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30.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의 경험을 한 경우 어떻게 했나요?

내 용	경험 정도			경험 후 어떻게 하였나요? ※ 경험이 있는 경우(‘②가끔 경험하였다’와 ‘③자주 경험하였다’)만 응답해 주세요.		
	경험 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 하였다	자주 경험 하였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항의하지 않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가만히 있었다
1) 머리 모양, 머리 길이, 염색, 손톱 매니큐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①	②	③
2) 복장검사(바지나 치마길이, 옷, 신발 등)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①	②	③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①	②	③

31.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핸드폰을 제출하고 방과 후에 돌려받고 있나요?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32.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우리 사회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 겠다
1) 나라에서 어린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어린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린이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의 놀이터,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만들고 운영할 때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를 대하는 아래와 같은 태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리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어린이는 아직 덜 자라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 어린이는 성숙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사람으로 종종 표현된다.	①	②	③	④

34. 지난 1년간(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나요?

내 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인터넷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게시글을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2) 다른사람의 게시글이나 뉴스기사 등에 대해 의견(댓글)을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35. 어린이를 위한 정책과 동네의 청소년 문화시설에 어린이의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모임(아동총회,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 ①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 ②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③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36. 최근 1년간(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사회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 활동을 해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나요?

내 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친구들과 토론	①	②	③	④
2)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3)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행사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4) 서명운동(인터넷 또는 서명용지 이용)에 참여	①	②	③	④

37. 어린이 관련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나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 내용을 쉽게 풀이한 어린이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쉽게 풀어쓴 어린이용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학대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어린이의 권리 이해 및 인권 보호방법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유엔아동권리협약 :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

38. 지난 1년(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나요?

(자원봉사활동 예 : 환경보전캠페인, 고아원이나 복지시설 위문이나 일손돕기, 문화재보호활동, 지역사회 가꾸기, 교통안전지도활동 등)

1) 참여횟수 : () 회

2) 총 참여시간 : 약 () 시간

39. (38번에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어서
- ② 이웃이나 지역사회, 국가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 ③ 나의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해서 내 자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 ④ 새로운 사람을 만나 친구를 사귀기 위해
- ⑤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 ⑥ 학교 성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 ⑦ 믿고 있는 종교에 따라
- ⑧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하고 있어서
- ⑨ 기타()

40. '내가 어른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일꾼 등을 뽑는 선거에 꼭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41. '나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42. 어린이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② 참여할 필요가 없다
③ 참여하는 것이 좋다 ④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43. 우리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내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①	②	③	④
3)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6) 어린이의 생각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44. 어린이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어린이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② 부모님의 협조
- ③ 학교의 협조
- ④ 어린이 참여에 대한 활동정보 제공
- ⑤ 성적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
- ⑥ 어린이 권리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구 운영
- ⑦ 다양한 참여기구나 프로그램 개발
- ⑧ 기타()

45. 어린이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인권정보 제공 등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기관(예: 아동인권센터 등)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하다
- ④ 반드시 필요하다

46.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② 별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 ③ 보장하는 편이다 ④ 잘 보장하고 있다
- ⑤ 잘 모르겠다

다음은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1. 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 다른 지방의 직장·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 ②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음
- ③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 ④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음

3.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나요?

- 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 ②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음
- ③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 ④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음

4.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시나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구분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1	2
2) 어머니	1	2

5. 나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1	2	3	4	5	6	7

6. 나의 학업성적(2010년 1학기 기준으로)은 반에서 대략 어디쯤 되나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성 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반성적	1	2	3	4	5

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가요?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동/읍/면 으로 표기

※ 살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동/읍/면으로 표기

♣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설문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사항은 보호되며,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D — —

201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 중·고등학생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며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연구 자료로만 이용되므로 자신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금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6.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사진행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담당연구자:	모상현 박사·김영지 박사	조사문의처:	02-2017-1809~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다음은 교육과 문화·여가(자유)생활 혹은 신체적 활동 등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문항들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1. 평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5시간 이하	② 5~6시간 정도	③ 6~7시간 정도
④ 7~8시간 정도	⑤ 8~9시간 정도	⑥ 9시간 이상

2.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많다	⑤ 매우 관심이 많다	

3. 내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4. 현재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하고 있는 운동(단, 학교체육시간에 하는 운동 제외)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한 달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1~2회 정도
⑤ 일주일에 3~4회 이상	

5. 지금 받고 있는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①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② 이해하기 힘든 편이다
③ 이해하기에 적당하다	④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⑤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 5-1. 학교에서 받고 있는 수업내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이다	② 불만족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6. 학교 수업은 아래 보기 중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 상위권 ② 중상위 ③ 중간권
- ④ 중하위 ⑤ 최하위권

7.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 하루 평균 몇 시간 공부합니까?

- ① 1시간 ② 1~2시간 ③ 2~3시간
- ④ 3~4시간 ⑤ 4~5시간 ⑥ 5시간 이상

8. 지난 1년간 (2009년6월~2010년5월까지) 학교수업 이외에 성적향상(진학)을 위한 사교육 (과외 · 학원 · 학습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문제 9번으로 가십시오)
- ② 있다 (☐ 문제 8-1번으로 가십시오)

8-1. 사교육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평소 본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됩니까?

- ① 1시간 ② 1~2시간 ③ 2~3시간
- ④ 3~4시간 ⑤ 4~5시간 ⑥ 5시간 이상

10. 평소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문화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아래 보기에 제시된 휴일을 보내는 방법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에 따라 세 가지만 표시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① 공부	② 독서	③ TV 시청
④ 게임(인터넷 게임 포함)	⑤ 인터넷(정보검색과 숙제)	⑥ 친구와 놀기
⑦ 음악, 회화 등 취미활동	⑧ 문화, 예술행사 관람 (영화, 음악회 등)	⑨ 운동
⑩ 휴대폰으로 대화하기	⑪ 쇼핑	⑫ 집에서 휴식
⑬ 기타()		

13. 현재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 ① 가입하지 않았다
-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4. 다음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해주시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활동은 내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활동은 나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활동은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 모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활동하고 있지 않다
- ② 학교 내 동아리
- ③ 학교 밖 동아리(사이버가 아닌 오프라인 현실 동아리)
- ④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동아리

16. 다음과 같은 일로 인해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면, 중요도에 따라 보기에서 세 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표시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② 친구문제로
③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④ 제대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⑤ 여가시간을 따분하게 보내서	⑥ 부모님이 집에 자주 안 계셔서
⑦ 성차별 때문에	⑧ 외모나 신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⑨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⑩ 질병이 있어서
⑪ 가족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⑫ 용돈이 적어서
⑬ 특별한 고민이 없음	⑭ 기타()

17.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하고 상담하십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동성친구
- ④ 이성친구 ⑤ 선생님 ⑥ 상담사
- ⑦ 형제, 자매 ⑧ 채팅상대나 메일친구 ⑨ 기타()
- ⑩ 상담대상이 없음 ⑪ 고민이 없음

18. 평소에 부모님, 학교(담임)선생님과 얼마나 대화를 합니까?

내 용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19. 다음은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해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0. 마음을 터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몇 명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9명 ⑤ 10명 이상

21. 다음은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다투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해주십시오.

내 용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1)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친구에게 맞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서로 다퉴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의 견해가 다르더라도 나는 내 주장을 밀고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해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에게 친한 친구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업성적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8) 앞으로 해야 할 공부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⑤
9)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3. 본인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금의 내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이 있으면 √표해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떤 일이든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빨리 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해도 이를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 질것으로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뜻한 일이 실패하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면, 왜 그런지를 보기에서 찾아 중요도 순으로 세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③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④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⑥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⑦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⑧ 학교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⑨ 학교규율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아서	⑩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
⑪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⑫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음

26. 만약 학업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포기할 생각이 없음
- ②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 ③ 가정문제(부모님과의 문제)로 인해서
- ④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 ⑤ 몸이 아파서
- ⑥ 기타()

27.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제 27-1번으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 문제 28번으로 가십시오)

27-1. 학교에서 배운 있는 진로 교육의 내용이 진로결정이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8.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해주시시오.

내 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이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나의 진로(학과나 직업)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인터넷, 관련서적 혹은 기타홍보물).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9-1. (중학생만 답변)앞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자율형 사립고(외고나 과학고 포함)에 진학할 계획이다
- ② 보통의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이다
- ③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이다
- ④ 취직할 계획이다
- ⑤ 상황을 봐서 나중에 결정하겠다

29-2. (고등학생만 답변)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상위권(4년제)에 진학할 계획이다
- ② 보통수준의 대학(4년제)에 진학할 계획이다
- ③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다
- ④ 취직할 계획이다
- ⑤ 상황을 봐서 나중에 결정하겠다

30. 다음의 생활영역에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영역별로 만족도를 평가해주시십시오.

시오.

내 용	매우 불만족 이다	불만족 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가정생활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3) 친구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의견을 표현하고 가정·학교·사회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31. 본인의 가정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도 좋아하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직업을 부모님도 좋아하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2. 본인의 학교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침 보충수업(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수학여행, 수련회 등 비용부담이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3) 급식 메뉴나 음식의 질 등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5) 교지나 학교신문의 내용은 학생들이 자율적·독립적으로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학교 종교행사에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등록금, 급식비 등 교육비를 내지 못했더라도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학교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 앞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규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우리학교의 학생생활규정, 학생자치규정 등의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학급회나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3. 학생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인의 학교 상황과 가까운 것에 √표 해주십시오.

내 용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학생회 활동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자격에 성적 제한이 있다.	①	②	③
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4) 학생회장을 전교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간접선거 형태로 선출하고 있다.	①	②	③

34.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① 참여할 수 없다.
-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할 수 있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35. 학교에서 정계대상이 되는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36.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의 경험을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내 용	경험 정도			경험 후 대응형태 ※ 경험이 있는 경우('②가끔 경험하였다'와 '③자주 경험하였다')만 응답해 주십시오		
	경험 하지 않았 다	가끔 경험 하였 다	자주 경험 하였 다	인권침해라 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항의하지 않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조치에 따랐다
1) 머리 모양, 길이, 염색, 손톱 매니큐어 등 용모를 통제하는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①	②	③
2) 바지나 치마길이, 옷 종류, 신발 등 복장을 통제하는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①	②	③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①	②	③

37. 등교 후 선생님께 핸드폰을 제출하고 방과 후에 돌려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38. 학생들이 학교에서나 학교 밖에서 동아리(청소년 자율·자치모임 등 포함)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① 학교 안과 학교 밖의 활동 모두 인정한다 ② 학교 안의 활동만 인정한다
 ③ 학교 밖의 활동만 인정한다 ④ 둘 다 인정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39. 살고 있는 지역이나 우리 사회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 겠다
1)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의 청소년시설(놀이공간, 도서관, 문화의 집, 수련관 등) 설치·운영 시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하는 아래와 같은 태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대중매체는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1. 지난 1년간(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내 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인터넷 게시판, 카페, 커뮤니티, 동호회,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게시글을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2) 뉴스기사나 타인의 게시글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댓글)을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42.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 ②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③ 명칭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43. 최근 1년간(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사회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 활동을 해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내 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친구들과 토론	①	②	③	④
2)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3)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4) 서명운동(인터넷 또는 서명용지 이용)에 참여	①	②	③	④

44.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모임을 만들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51.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청소년의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①	②	③	④
3)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52.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② 부모님의 협조
- ③ 학교의 협조
- ④ 청소년 참여에 대한 활동정보 제공
- ⑤ 입시위주 교육풍토 개선
- ⑥ 청소년 권리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구 운영
- ⑦ 다양한 참여기구나 프로그램 개발
- ⑧ 기타()

53. 청소년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인권정보 제공 등 청소년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예: 청소년인권센터 등)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하다
- ④ 반드시 필요하다

54.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 ② 별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 ③ 보장하는 편이다
- ④ 잘 보장하고 있다
- ⑤ 잘 모르겠다

다음은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1. 나의 성별은?

- ① 남자
- ② 여자

2.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 다른 지방의 직장·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 ②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음
- ③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 ④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음

3.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나요?

- 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 ②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음
- ③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 ④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음

4. 부모님께서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시나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구분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5. 나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의 학업성적(2010년 1학기 기준으로)은 반에서 대략 어디쯤 되나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성 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반성적	①	②	③	④	⑤

7. 본인의 가족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동사무소로부터 정기적으로 현금, 생활용품 등 도움을 받는 것)에 해당되십니까?

- ① 예 ②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③ 아니요 ④ 모르겠음

8.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가요?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동/읍/면 으로 표기

※ 살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동/읍/면으로 표기

♣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협력진 ◆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 전공 교수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권혜정 서울 상원초등학교 교사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교수
김남정 한국청소년진흥원 참여봉사부 팀장
김봉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박창남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형근 서울 등원초등학교 교사
신승배 삼육대학교 연구교수
양돈규 중앙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센터 교수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성 고양 행신고등학교 교사
이봉철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교수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정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
이지혜 서울 대림초등학교 교사
정혜민 서울 방산초등학교 교사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세용 서울 동산초등학교 교사
최윤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해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운정·안소연·윤소운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혜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박영균 · 이상훈 · 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 · 이승현 · 권수진 · 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 · 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 · 유영준 · 이명희 · 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 · 최수정 · 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 · 조아미 · 정경은 · 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Hernan Cuervo · 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 · 장지연 · 윤자영 · 성재민 · 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 · 김성경 · 남미애 · 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 · 박제일 · 이은경 · 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 · 권해수

■ 용역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운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란·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윤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кви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I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II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V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
옥·이은경·최순중·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장근영·임영식·정경은·조아미·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연구보고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V

2010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집

- 발달권참여권 -

인 쇄 2010년 12월 22일

발 행 2010년 1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양동문화사 02)2272-1767 대표 김방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888-5

ISBN 978-89-7816-886-1(세트)